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10

# 전라북도 농업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방안

조원지 정호중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10

# 전라북도 농업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방안

조원지 정호중



##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

연구책임 조원지 | 부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2절, 3절), 4장, 5장  
공동연구 정호중 | 전문연구원 | 제2장 1절 일부, 3장 2절

---

자문위원 김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마야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최종호 | 임순남 농촌지원중개센터 순창지소 팀장

---

연구관리 코드 : 21JU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요약

SUMMARY

## 1. 연구 개요

###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전북 농촌의 농업 인력난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하기 전 현재 고용 노동력 수급과 경로가 어떤지를 살펴볼 시기임
- 이는 전북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농업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시도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가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이 연구는 전북 농업 노동력 부족문제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농업 노동력 수급 관련 정책, 국내외 노동력 공급 경로 사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농업 노동력 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 연구 체계

- 첫째, 현재 농업 노동력 수급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함. 둘째, 2019년 전북도의 계절성 작물에 대한 농업 고용노동력 투입량을 산출하여 고용 노동력 수요를 살펴보고자 함. 셋째, 공공부문에서 전북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한계를 파악하고자 함. 넷째, 국내외 농업 노동력 수급 사례를 통해 농업 노동력 부족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전북 농업 노동력 수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 2. 전북 농업 노동력 공급경로

### ■ 전북 시군·작목별 농업 고용 노동력 실태

- 전라북도 시·군별 재배면적이 큰 계절성 작물을 중심으로 영농순기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투입된 월별 농업 고용 노동력을 통해 지역 및 작물에 따른 고용 노동력 공급시장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음
- 2019년과 2020년 전라북도 공공부문 농업인력 공급규모를 비교한 결과, 배, 포도, 사과, 마늘, 양파 계절성 작물의 2020년 농업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복숭아, 고구마, 고추, 딸기, 양파, 감자는 2020년 투입량이 2019년보다 적게 나타남
- 배, 마늘, 양파 등 작목의 경우<sup>1)</sup>, 2019년과 2020년 농산물 소득자료를 비교한 결과, 고용 노동비는 감소한 반면, 자가 노동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난을 가족노동력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사과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전북 농산물 소득자료를 살펴보면, 고용 노동비와 자가 노동비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농촌 인력난에 의해 농가가 사과 재배량을 축소한 것으로 보여짐
- 그 외, 작목들은 자가 노동비는 감소한 반면, 고용 노동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 공백에 대한 공공부문에서 내국인 인력 수요가 증가하였거나,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요 시장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 ■ 전북 농업 노동력 공급경로의 한계

- 전북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노동력 공급경로를 살펴보았음
  - 고용허가제(E-19)를 제외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자체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1) 마늘, 양파의 경우, 전라북도 소득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전국 평균 자료를 활용하였음

- 전북 농촌인력증개센터, 전문작업단,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부문에서 농업 노동력 공급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음
  - 농촌인력증개센터의 경우, 전담인력 1명 배치에 따른 과도한 업무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매년 사업기간 갱신에 따른 직업안정성 보장 문제, 열악한 근로여건과 환경 등의 문제가 제기됨
  - 농업 고용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강도가 높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건강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 비숙련 노동자의 교육 확대 필요 등이 대응방안으로 언급되었음
  - 공적 분야의 농업 노동력 지원을 위한 제도의 한계를 계절근로자제,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 계절근로자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귀농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업인력 양성 및 공급의 기회를 엿볼 수 있었음
- 전북 농업 노동력 공급경로 실태와 함께, 국내외 농업인력 공급 사례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원활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의 근로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 지자체 단위의 계절근로자제의 한계와 성실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
  - 구직자와 농가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비숙련 농업노동자의 교육 및 실습 확대 필요
  - 도시 유희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자리제공뿐만 아니라 전북 농촌 자원을 활용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농촌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 열악한 농작업 환경과 강도 높은 농작업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
  - 농촌 인력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력 공급 및 지원체계의 조직화가 필요

## ■ 국내외 농업 노동력 수급 사례

- 국내외 공공부문에서 농업 고용 노동력을 공급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직자와 농가를 매칭하는 인력증개센터의 체계화와 안정화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 간 인력증개센터와의 연계성을 통해 구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통해 농업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인력난을 도시 유희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음

으나, 면접조사와 간담회에서 언급된 농가의 숙련 노동력의 선호에 따라 비숙련 노동자의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지역 내 인력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거창군을 통해 지역주민의 상호협력과 연대가 농업 노동력 문제를 완화하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됨

### 3. 농업 노동력 수급 대응 방안

#### ■ 농업 노동력 수급 대응방안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개선’, ‘다양한 농업 노동력 발굴’, ‘농업인력 공급 제도 개선’, ‘농업인력 공급·지원체계 개선’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추진 전략을 수립함
-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
  - 농촌인력증개센터 지원사업 개선 :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우수한 실적을 가진 농촌인력증개센터에 한해 지원사업 공모 부담 해소를 위한 갱신제에서 신청제로 운영기간 연장
  - 농촌인력증개센터 전담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 전담인력 추가 확보로 업무 분담으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센터 인력의 근로여건 개선과 심신건강 증진
  - 농촌인력증개센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 : 열악한 업무공간을 가진 농촌인력증개센터를 대상으로 전담인력과 농기계작업단을 위한 휴게공간·샤워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지원
- 다양한 농촌인력 유형 발굴 및 근로여건 개선
  - 성실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제 도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계절근로자에 한해 취업기간동안 1회 체류기간 연장
  - 도시민 일+ 사업 : 전북 농촌에서 농업일자리를 구하는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증개 및 농작업 훈련·실습, 숙소, 전북 자유여행비 지원

- 마을인력단사업 : 지역 소농, 고령농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구성된 마을인력단의 반장수당, 식비, 교통비, 보험료 지원
- 비숙련인력 멘토-멘티제 : 농작업 경험이 적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전문작업단의 숙련인력과 매칭하여 3일 간 훈련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농가와 숙련인력에게 교육비 지원
- 농업 고용 근로자 안전·건강지원사업 : 농업 고용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현장 안전교육 참여의 무화, 치료비 일부 지원, 특수건강검진 일부 지원(2년 주기)
- 출퇴근 행복버스 운행 : 농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수송을 위해 교통이 불편한 농작업자 또는 이용을 희망하는 전문작업단을 작업장까지 수송할 수 있는 출퇴근 행복버스 운행
- 농업인력 공급·지원체계 개선
  - 계절근로자 중앙관리제도 도입 : 중앙단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법제 마련, 입국 계절근로자를 수용 및 교육이 가능한 공간을 가진 조직을 입국 계절근로자 교육기관으로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DB구축 및 관리 등
  - 총괄 농번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강화 : 도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중심으로 시·군,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와 정부부처와의 협조체계 강화
  - 총괄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정 운영: 총괄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농촌인력지원증개센터의 운영을 관리하고, 구직자와 농가에게 지역 내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정보 제공과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 활성화

## ■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 이 연구는 전북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공급자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였음
- 전북 농업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산출하여 전북의 고용 노동력 공급시장의 규모를 예측해 볼 수 있었음
- 공공부문 공급시장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의 시각을 통해 현재 고용 노동력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북 공공부문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략 도출과 정책화 방안 마

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이 연구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근거로 전북 농업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산출하여 파악한 농업 고용 노동력 투입량 변화가 코로나19, 고령화, 기계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무엇보다, 지난 2년 외국인 근로자 입국금지와 내국인 이동 제한에 따른 농촌 인력난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 연구의 변화 결과가 코로나19의 원인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21년, 2022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여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정기적인 농업 고용 노동량 투입량 산출로 농업 노동력 공급시장의 규모 변화와 고용 노동비·자가 노동비 변화 파악을 통해 농촌 인력난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이 필요함



---

# 차 례

## CONTENTS

---

요 약 ..... i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농업 고용 노동력 개념 및 선행연구 ..... 5  
    가. 농업 고용 노동력 개념 ..... 5  
    나. 농업 고용 노동력의 선행연구 고찰 ..... 5  
3. 연구내용과 구성 ..... 11

---

### 제2장 전북 농업 고용 노동력 및 정책 현황

1. 농업 노동시장 및 고용 노동력 구조 변화 ..... 15  
2. 전북 주요 품목별 노동투입량 ..... 25  
3. 농업 고용 노동력 관련 정책 및 제도 ..... 28  
    가. 고용 관련 법률 ..... 28  
    나. 고용서비스 관련 법률 ..... 32  
    다. 농업인력 관련 사업 ..... 34

---

### 제3장 전북 농업 고용 노동력 실태 및 공급경로

1. 시·군별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 41  
2.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경로 ..... 89  
    가.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경로 및 운용 ..... 89  
    나. 전북 고용 농업 노동력 공급 경로(공공부문) ..... 93  
3. 국내외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사례 ..... 108  
4. 시사점 ..... 118

---

**제4장      농업 노동력 수급 대응 방안**

1. 정책방향 ..... 125  
    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개선 ..... 125  
    나. 다양한 농업 노동력 발굴 ..... 125  
    다. 농업인력 공급 제도 개선 ..... 126  
    라. 농업인력 공급·지원체계 개선 ..... 127  
2. 추진전략 ..... 129  
    가.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 ..... 129  
    나. 다양한 농업인력 유형 발굴 및 근로여건 개선 ..... 130  
    다. 농업인력 공급·지원체계 개선 ..... 131  
3. 중점과제 ..... 132  
    가.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 ..... 132  
    나. 다양한 농업인력 유형 발굴 및 근로여건 개선 ..... 137  
    다. 농업인력 공급·지원체계 개선 ..... 149

---

**제5장      결론**

결론 ..... 157

**참고문헌** ..... 165

**부록** ..... 169

---

## 표 차례

### LIST OF TABLES

---

[표 1-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2
[표 2-1] 전국 및 전북 농가 및 농가인구 .....	16
[표 2-2] 연령별 농가인구분포 .....	17
[표 2-3] 성별·연령대별 농가인구분포 .....	18
[표 2-4] 농가 가구원수 .....	19
[표 2-5] 영농형태별 농가당 농업 노동력 구성 .....	21
[표 2-6] 경지규모별 농가당 농업 노동력 구성 .....	23
[표 2-7] 경지규모별 농가당 농업 노동력 구성 .....	24
[표 2-8] 2020년 전북 계절성 작물 재배면적 .....	25
[표 2-9] 2020년 전라북도 계절성 작목별 소득 및 노동투입 총괄표 .....	26
[표 2-10] 전북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현황 .....	27
[표 3-1] 전북 농업 노동력 산출단계 .....	42
[표 3-2] 전북 시·군 주요 품목별 재배면적 .....	43
[표 3-3] 월별 고용 노동력 투입량(지역 및 작물) .....	85
[표 3-4] 전라북도 일손돕기 시간 변화 .....	89
[표 3-5]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순창지소(2020.10.기준) .....	95
[표 3-6] 완주군 고산농협(2020년 기준) .....	96
[표 3-7] 익산시 금마농협(2020년 기준) .....	96
[표 3-8] 무주반딧불인력중개센터(2020년 기준) .....	97
[표 3-9] 전주원예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2020년 기준) .....	97
[표 3-10]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현황 .....	101
[표 3-11] 2022년 무주군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운영계획 .....	102
[표 4-1]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 중점과제 .....	129
[표 4-2] '다양한 농업인력 유형 발굴 및 근로여건 개선' 중점과제 .....	130
[표 4-3] '농업인력 공급·지원체계 개선' 중점과제 .....	131

---

## 그림 차례

### LIST OF FIGURES

[그림 2-1] 계절근로자 입국절차 .....	30
[그림 2-2]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 추진체계 .....	36
[그림 3-1] 농촌진흥청 농작업 부담 분석틀 .....	42
[그림 3-2] 시기별 전주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복숭아 .....	44
[그림 3-3] 시기별 전주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배 .....	45
[그림 3-4] 시기별 익산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고구마 .....	46
[그림 3-5] 시기별 익산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 고추 .....	47
[그림 3-6] 시기별 익산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딸기 .....	48
[그림 3-7] 시기별 익산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양파 .....	49
[그림 3-8] 시기별 정읍시 노동 투입량 추정 : 양파 .....	50
[그림 3-9] 시기별 정읍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	51
[그림 3-10] 시기별 정읍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 고구마 .....	52
[그림 3-11] 시기별 남원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 고추 .....	53
[그림 3-12] 시기별 남원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포도 .....	54
[그림 3-13] 시기별 남원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복숭아 .....	55
[그림 3-14] 시기별 남원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감자 .....	56
[그림 3-15] 시기별 남원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사과 .....	57
[그림 3-16] 시기별 남원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고구마 .....	58
[그림 3-17] 시기별 김제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감자 .....	59
[그림 3-18] 시기별 김제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구마 .....	60
[그림 3-19] 시기별 김제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	61
[그림 3-20] 시기별 김제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포도 .....	62
[그림 3-21] 시기별 완주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 고추 .....	63
[그림 3-22] 시기별 완주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양파 .....	64
[그림 3-23] 시기별 완주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딸기 .....	65
[그림 3-24] 시기별 완주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마늘 .....	66
[그림 3-25] 시기별 진안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	67
[그림 3-26] 시기별 진안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사과 .....	68
[그림 3-27] 시기별 진안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고구마 .....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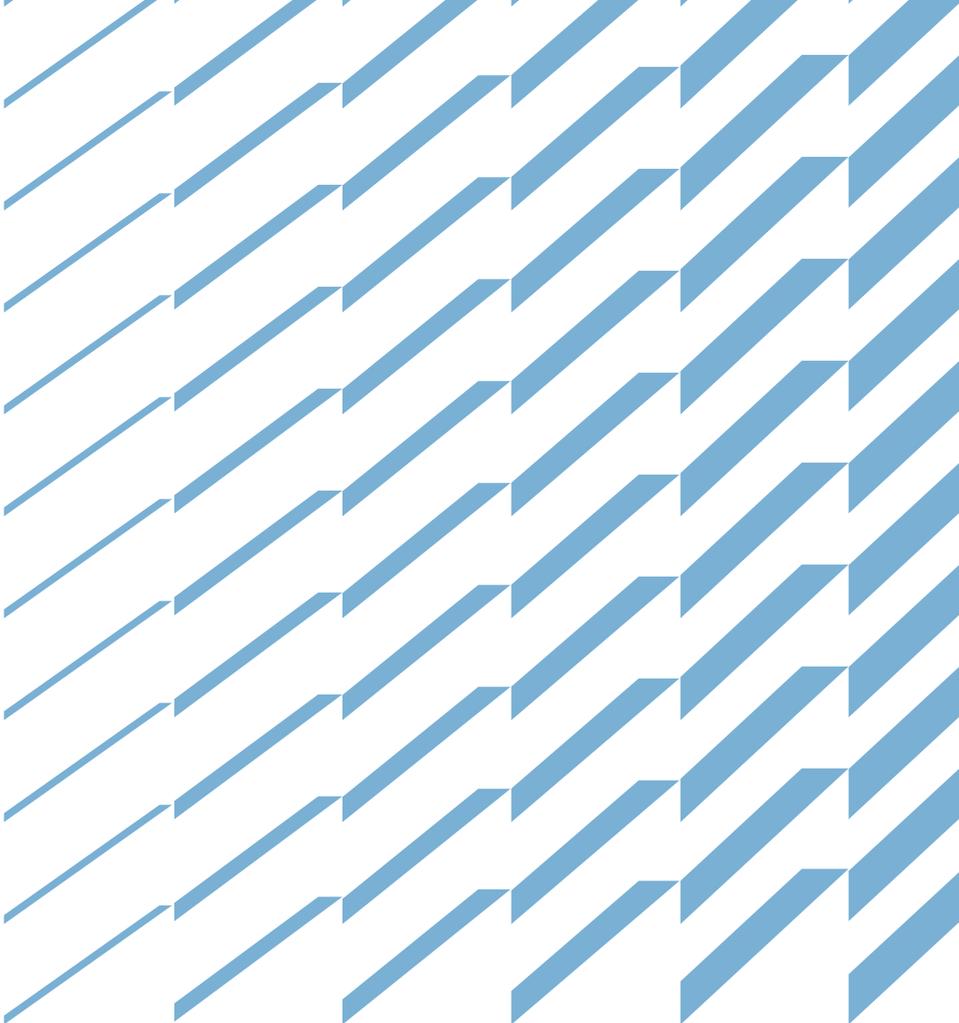
---

## 그림 차례

### LIST OF FIGUR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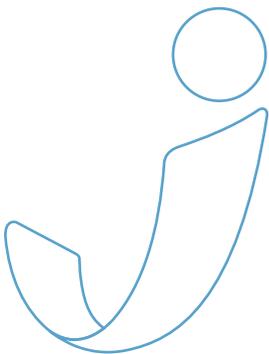
[그림 3-28] 시기별 진안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사과	70
[그림 3-29] 시기별 무주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71
[그림 3-30] 시기별 무주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복숭아	72
[그림 3-31] 시기별 장수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사과	73
[그림 3-32] 시기별 장수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74
[그림 3-33] 시기별 임실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75
[그림 3-34] 시기별 임실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복숭아	76
[그림 3-35] 시기별 임실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고구마	77
[그림 3-36] 시기별 순창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78
[그림 3-37] 시기별 고창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79
[그림 3-38] 시기별 고창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고구마	80
[그림 3-39] 시기별 고창군 노동 투입량 추정 : 양파	81
[그림 3-40] 시기별 부안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82
[그림 3-41] 시기별 부안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양파	83
[그림 3-42] 시기별 부안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마늘	84
[그림 3-43]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조직도	94
[그림 3-44] 완주군 인력지원단	99
[그림 3-45] 완주군 마을인력단	100
[그림 3-46] 사이토 농협의 무료 직업소개소 업무 프로세스	108
[그림 3-47]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110
[그림 3-48]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추진체계	111
[그림 3-49] 농작업지원단 운영체계	112
[그림 3-50] 충청남도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사업	113
[그림 3-51] 충청남도 농작업지원단 운영현황(2019)	113
[그림 3-52]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116
[그림 4-1] 전북 농업 노동력 수급 대응방안	128
[그림 4-2] 현재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	138
[그림 4-3] 마을인력단 운영체계	142



# 제 1 장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농업 고용 노동력 개념 및 선행연구
3. 연구내용과 구성





---

# 제 1 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노동력 감소는 농업 생산력 유지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농업 노동력 부족 해소방안으로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고용허가제(E-9)가 시행되면서 농업인력의 공백을 외국인근로자들에 의해 채워나가며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이동과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농업 부문의 농업 노동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며, 농촌사회 인력난은 각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안과제로 대두됨
- 농촌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 유희인력 활용, 자원봉사, 농촌인력증개센터 지원 등 정책적 논의와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 급속하게 고령화와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북 또한 심각한 농촌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한 농업 부문의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 정도가 높은 편임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 노동력 수급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북 또한 계절성 작물 재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며, 내국인 특히, 지역 내 주민을 계절성 작물에 투입되는 농업 노동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공급 가능하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실제 농업 노동력 공급 채널은 가족노동력, 품앗이, 전문작업단, 농촌인력증개센터,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불법체류자 등 다양함
- 계절성 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업인력을 파악하는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농촌인력증개센터 구직자 등 공공부문을 제외한 사적부문의 규모 파악은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전북 공공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전북도민을 농업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와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적 실효성은 높지 않음
- 지역별 계절성 작물에 공급되었던 공공부문의 인력시장 규모 파악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업인력 수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국인 인력공급시장의 변화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공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농업인력 공급시장 규모 파악은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공급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이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전북 농업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에 앞서, 계절성 작목별 투입되는 노동력을 추산하여 전북도의 고용 노동력 공급시장의 규모를 살펴보고자 함
- 또한, 공공부문에서 노동력 공급경로 실태를 살펴봄으로서, 현재 농업 노동력 확보 및 수급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공공부문 농업 노동력 공급시장의 관점에서 농촌 인력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실험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외 사례들을 발굴하여 전라북도 공공부문 공급서비스에 벤칭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2. 농업 고용 노동력 개념 및 선행연구

### 가. 농업 고용 노동력 개념

- ‘농업 고용 노동력’은 농업경영체가 농업 노동시장에서 농업 생산을 위해 화폐와 교환하는 노동력으로 정의함(김정섭 외, 2014),
- ‘고용 노동력’은 고용기간에 따라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는 자를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 또는 매일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를 ‘일용근로자’로 구분함(엄진영 외, 2017)
-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음
-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됨

### 나. 농업 고용 노동력의 선행연구 고찰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995년 이래 감소하였으나, 고령화로 인해 고용 노동력의 수요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농업 노동력의 부족이 야기되며, 농업 고용 노동력의 공급-수요 미스매칭 현상에 주목한 연구들은 작목별 재배순기에 따른 노동력 투입량, 농업 고용 노동력 특성,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실태,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경로 및 체계 등을 살펴봄

---

## ■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부족

- 경제활동인구조사, 농가가계조사 등을 통해 농업부문 노동력 투입량과 특성을 작목별, 시기별, 농가 생산 규모별, 지역별로 살펴본 연구들은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공급 부족을 강조함
- 김병률 외(201) 연구에서 농가들은 고용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자의 농작업 기피에 따른 인력회사를 통한 인력투입의 낮은 임금인상은 농가의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내국인 노동자 수급의 어려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외국 인근로자 공급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과 2012년 농가가계조사 결과를 비교한 김정섭 외(2014)와 김정섭(2015) 연구 역시 농가 가구원수의 감소와 고령화는 고용 노동력 수요를 증가시키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강조함
- 김정섭 외(2016)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계절 진폭이 큰 작목을 위한 임시 또는 일용 노동자 수 감소는 일손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 양파, 고추, 가을배추, 고구마 등 품목에서 농업 노동력 수급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업 수요자-공급자 특성을 살펴본 엄진영(2016) 연구는 농업부문은 농업규모화, 양극화, 고령화, 취업자 수 감소 등을 보이며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은 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계절적 인력 수요의 진폭에 따른 인력문제는 상용근로자의 고용 증가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고용 실태에 주목하였으며, 제주 농업 고용 노동력을 연구한 안경아·박성준(2017) 또한 고용노동 투입량의 계절적 편중을 언급함
-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활동인력 데이터를 통해 농촌 지역 인력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허가제에도 불구하고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의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을 유찬희 외(2018)연구에서 강조하였음

- 지역별로 농업 고용 노동력 실태를 살펴본 이항미·고종태(2018)와 김미옥(2020) 연구는 경영인의 연령, 농업 유형 및 특성에 의해 고용인력 유형과 구조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가족 및 고용 노동력 의존도 및 수요실태를 살펴보았음
- IMF금융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 고용 노동력 변화를 살펴본 엄진영(2020) 연구는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 감소를 보여줌
-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은 내국인 고용노동력과 외국인 근로자 공급의 감소로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인상되는 임금은 농가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 외국인 고용 노동력

- 농업인력 수급 불균형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농업인력 연구들은 외국인근로자 수급실태, 정책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수행해옴
- 초고령화와 여성화의 농촌 구조적인 문제로 농업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의 배경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특성과 한국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고, 농촌사회의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봄(정용교, 2020; 최서리 외, 2013)
- 농업경영체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농업경영체의 관점에서 작물재배업에서 외국인력 활용 실태, 제도적인 문제, 정책욕구 등을 살펴본 연구들은(엄진영 외, 2017; 이현욱·송정아, 2016; 최서리 외, 2013; 최서리·이창원, 2014)
- 이들 연구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를 통해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제의 한계와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최서리 외(2013)의 연구의 경우, 개선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관리, 농한기 외국인근로자 활용 및 활동 지원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도입과

---

관리에서 입국 후 외국인근로자의 영농교육훈련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선발과정에서 숙련정도를 평가하고, 경영인의 노무관리 및 인권교육의 병행을 언급함

-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속감 고취를 위한 마을공동체의 관심이 필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및 생활 중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농한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활동(기술교육, 휴가, 타 농가와의 연계 등)을 지원하거나, 농업보조금을 통해 농한기 임금을 보전 등을 제시함
- 최서리·이창원(2014)의 연구는 농축산업 고용허가제의 한계 및 개선방안으로 농업분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농번기와 농한기 간 인력수요 차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근무처추가제도의 인지 제고, 무급휴가제 고려, 농한기 직무 관련 기술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실시 등을 제시함
- 농업 고용 근로자 공급을 위한 계절근로자제 도입 후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모색한 이현욱·송정아(2016)의 연구는 최초로 계절 이주노동자 활용이 이루어진 충북 괴산 사례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인력난 해소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함
-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의 한계점과 개선점을 살펴본 엄진영 외(2017)의 연구는 두 제도의 다른 운영주체, 두 제도의 원활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리 및 감독 등을 한계로 제시하였음
- 두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계획 및 운영을 위한 부처 간의 조율,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두 제도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중재의 기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함
- 코로나19로 인해 제도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엄진영(2020)의 연구는 과일·과채 및 밭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인력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 증가를 강조하며, 내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 농업고용서비스 강화, 방문동거(F-1)외국인의 활용 고려, 농작업 인력의 건강관리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함

## ■ 농업 고용 노동력의 공급체계

- 농업 고용 노동력 수급 무제의 다양한 문제와 원인들이 논의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인력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연구들이 있음(김정섭, 2015; 김정섭 외, 2014; 김정섭 외, 2016, 유찬희 외, 2018)
- 고용 노동력 공급경로는 사적 사회연결망, 전문작업단, 민간 고용서비스,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유찬희 외(2018)의 연구의 경우, 현재 농업인력 공급체계에서 고용허가제는 품목별 최소 영농 규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임시, 일용 근로형태 고용이 필요한 농가 및 소규모 농가는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으며, 농업 부문의 열악한 근로환경, 인건비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함
- 김정섭 외(2014)의 연구는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고용서비스 사례(김천시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단, 영양군 빛깔찬 일자리 지원센터, 거창군 사회적협동조합 상시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 노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함
- 김정섭(2015)의 연구에서 전남 무안군의 농번기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경로 파악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농업 인력난의 문제를 확인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화된 노동시장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함
- 마지막으로, 농업 일용노동시장은 개인적, 사적 관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많지 않았음.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연고형 전문인력팀 노동시장과 주산지 계절 이주형 전문작업단의 공공 개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김정섭 외(2016)의 연구는 언급함

---

## ■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을 위한 과제

-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관련 연구들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며,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 진행으로 가족노동력, 품앗이에서 고용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E-9)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으로 농업인력 부족을 완화시키며, 이들의 정착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을 통해 인력공급의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근로자 친화적인 근로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들 연구들은 농업인력 노동시장의 단면을 살펴봄으로서 인력난의 실태와 외국인근로자를 통한 해소방안을 찾는 연구임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입국금지와 내국인 이동 제한은 공공부문의 농업인력 공급시장의 변화와 공급체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들 변화는 다시금 농촌 사회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일부 연구에서 강조함
- 계절성 작물에 대한 농업 고용 노동력의 규모와 공급체계의 실태와 코로나19에 따른 변화 파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현재 내국인 근로자를 농업 인력시장에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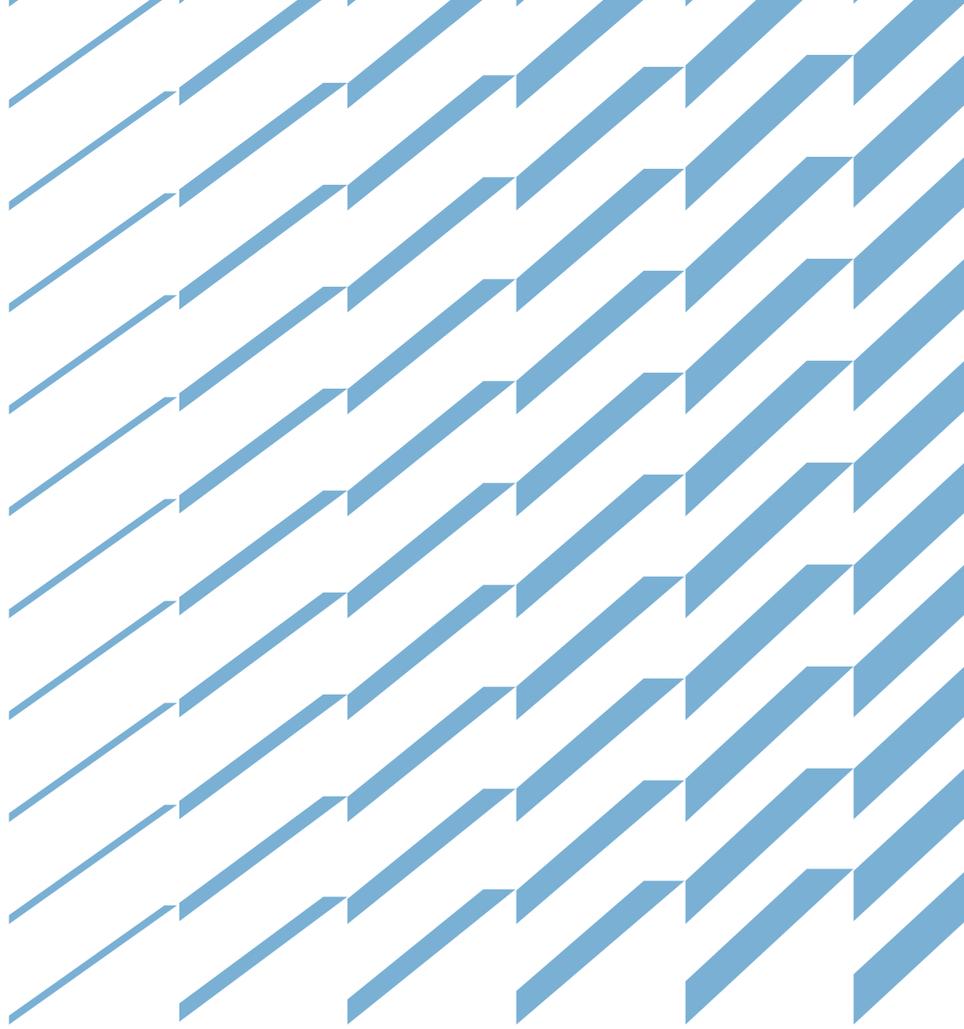
### 3. 연구내용과 구성

- 이 연구는 공공부문의 관점에서 농업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① 선행연구 고찰, ② 농업 노동력 수급 정책 현황, ③ 전북 농업 고용노동력 투입량 추정, ④ 전북 농업 노동력 공급 경로, ⑤ 국내외 사례, ⑥ 대응전략’ 순으로 구성하여 진행함
- 첫째, 공급자 관점에서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정책적으로 이해, 논의하기 위해 농업 고용 노동력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개념과 관련 제도 및 공급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함
- 둘째, 노동력 공급시장에 대한 정책적 관점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농업 노동력 공급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고용 관련 법률 :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2)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서비스 관련 법률 : 1) 직업안정법, 2)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농업인력 관련 사업 : 1)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2)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3)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 근로 지원사업, 도시형인력중개센터
- 셋째, 전북 농업 노동력 공급시장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산출하고자 함
  - 전북 농업 고용력 산출은 2019년과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
  - 재배면적에 따른 고용 노동시간은 농촌진흥청 2019년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활용하고, 품목당 연중 월별 노동시간은 농진청이 제공하는 농작업 부담 분석틀을 활용
  -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확인 할 수 없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함
  - 2019년과 2020년 지역 및 작물별 농업 노동력 투입량 추정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공공부문 농업인력 공급시장의 변화를 살펴봄

- 넷째, 농촌인력증개센터, 지자체, 공공기관, 계절근로자제 등을 통해 전북 공공부문에  
서 농업 노동력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전북 내 공공부문의 노동력 공급기관 현황, 공급 체계를 살펴보았으며, 공급시장의 공급기관, 농작업자, 행정기관 등 관점에서 애로사항과 개선안을 파악
- 다섯째, 국내외 공공부문의 농업 노동력 공급 사례를 통해 전북 농촌 인력난 경감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점을 살펴보고자 함
-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 공공부문에 서 농  
업 노동력 수급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표1-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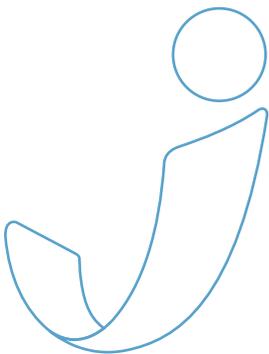
연구구성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1장 (문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배경 및 목적</li> <li>• 선행연구 검토</li> <li>• 연구내용 및 방법</li> </ul>	문헌검토
2장 (내용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노동력 관련 정책 및 사업</li> </ul>	문헌검토
3장 (주요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농업 고용 노동력 투입량 산출</li> <li>• 전북 농업 노동력 공급경로(공공부문)</li> <li>• 국내외 사례</li> </ul>	자료검토 자문회의 간담회
4장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방향</li> <li>• 추진방향</li> <li>①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li> <li>② 다양한 농업인력 유형 발굴 및 근로여건 개선</li> <li>③ 농업인력 공급·지원체계 개선</li> </ul>	자료검토 자문회의
5장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론</li> </ul>	



## 제 2 장

### 전북 농업 고용 노동력 및 정책 현황

1. 농업 노동시장 및 고용 노동력 구조 변화
2. 전북 주요 품목별 노동투입량
3. 농업 고용 노동력 관련 정책 및 제도





---

## 제2장 전북 농업 고용 노동력 및 정책 현황

### 1. 농업 노동시장 및 고용 노동력 구조 변화

-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규모는 전국적으로 2019년 기준 감소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1,068,274가구에서 2019년 62,116가구가 감소한 1,007,518가구로 집계됨
- 전라북도 농가가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가구는 지난 4년 동안 4,195가구가 감소하여 총 94,735가구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농가인구는 2016년 2,494,406명에서 2019년은 2,244,78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북의 경우, 2019년 농가가구는 2016년 224,661명에서 20,537명 감소된 204,124명이었음
- 성별 농가인구를 살펴보면, 전국 및 전북 남녀 모두 감소하여, 전국 남성 농가인구는 2016년 1,221,825명에서 2019년 1,099,942명으로, 여성은 1,274,581명에서 1,144,841명으로 감소함
- 전북의 경우, 2016년, 2019년 남성 농가인구는 각각 110,612명, 101,376명으로 2019년은 2016년보다 9,236명이 감소하였으며, 여성은 각각 114,049명, 103,748명이었음

[표 2-1] 전국 및 전북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가구,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농가	전국	1,068,274	1,042,017	1,020,838	1,007,158
	전북	98,930	96,780	94,935	94,735
농가인구	전국	2,496,406	2,422,256	2,314,982	2,244,783
	전북	224,661	214,548	208,600	204,124
농가인구(남)	전국	1,221,825	1,184,279	1,130,435	1,099,942
	전북	110,612	105,488	102,385	101,376
농가인구(여)	전국	1,274,581	1,237,977	1,184,548	1,144,841
	전북	114,049	109,061	106,215	103,748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16~2019)

-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전국과 전북 모두 생산가능인구인 15세~64세가 각각 1,353,755명, 115,840명으로 절반이상(54.2%, 51.6%)을 차지함
- 2019년은 15세~64세 농가인구가 전국과 전북은 각각 1,101,645명, 95,23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규모는 2016년보다 252,110명, 20,610명이 감소한 수치임
-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2016년에서 2019년의 비율은 전국과 전북이 각각 54.2%에서 49.1%, 51.6%에서 46.7%로 감소하였으며, 모두 절반 이하로 나타남
-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전국과 전북은 각각 1,006,166명, 95,080명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은 각각 1,045,708명, 98,050명으로 집계됨
-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전국과 전북이 40.3%, 42.3%에서 2019년은 46.6%, 48.0%로 증가함

[표 2-2] 연령별 농가인구분포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합계	전국	2,496,406 (100.0)	2,422,456 (100.0)	2,314,982 (100.0)	2,244,783 (100.0)
	전북	224,661 (100.0)	214,548 (100.0)	208,600 (100.0)	204,124 (100.0)
0~14세	전국	136,483 (5.5)	123,848 (5.1)	108,859 (4.7)	97,429 (4.3)
	전북	13,740 (6.1)	11,103 (5.2)	11,212 (5.4)	10,842 (5.3)
15~64세	전국	1,353,755 (54.2)	1,288,217 (52.4)	1,171,404 (50.6)	1,101,645 (49.1)
	전북	115,840 (51.6)	106,687 (49.7)	100,481 (48.2)	95,230 (46.7)
65세 이상	전국	1,006,166 (40.3)	1,030,190 (42.5)	1,034,718 (44.7)	1,045,708 (46.6)
	전북	95,080 (42.3)	96,757 (45.1)	98,908 (46.5)	98,050 (48.0)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16~2019)

- 2019년 농가인구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국의 경우, 전체 2,244,783명 중 33.5%에 해당하는 752,649명이 70세 이상 농가인구이었으며, 다음으로 60대가 607,250명(27.1%), 50대 378,668명(16.9%) 등 순으로 나타남
- 전국 전체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인 60.6%를 60세 이상이 차지하며 농가인구의 고령화를 보여주었음
- 남녀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남녀 전체 1,099,943명과 1,144,840명 중 각각 32.8%와 34.3%에 해당하는 360,666명, 391,984명으로 집계되었음
- 다음으로, 60대가 남녀 각각 290,292명(26.4%), 316,957명(27.7%), 50대 175,922명(16.0%), 292,746명(17.7%) 등 순으로 나타나 60세 이상인 남녀는 전체 인구 중 각각 59.2%, 61.9%인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전북의 경우, 70세 이상 농가인구는 70,262명으로 전체 인구 204,122명 중 34.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0대가 53,723명(26.3%), 50대가 33,754명(16.5%) 등 순으로 집계됨
- 남성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100,378명 중 70세 이상이 25,260명(43.1%), 60대 25,260명(25.2%), 50대 16,174명(16.1%) 등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전체 103,749명 중 70세 이상이 36,083명으로 34.8%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0대가 28,363명(27.4%), 50대 17,851명(16.9%) 등 순으로 집계됨
- 전북 농가인구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농가인구의 60% 가량이 60세 이상으로 나타나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비중은 전체 여성 농가인구 중 62.2%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정도가 심화됨

[표 2-3] 성별·연령대별 농가인구분포

(단위: 명)

구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농가인구	전국	151,739	106,968	95,440	152,068	378,668	607,250	752,649
	전북	15,911	8,028	7,200	15,224	33,754	53,723	70,282
농가인구(남)	전국	79,796	59,246	53,436	80,585	175,922	290,292	360,666
	전북	8,789	4,390	3,658	7,907	16,174	25,260	34,200
농가인구(여)	전국	71,943	47,722	42,006	71,482	202,746	316,957	391,984
	전북	7,124	3,637	3,543	7,318	17,581	28,463	36,083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16~2019)

- 2019년 전국 농가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007,158가구 중 절반 이상이 2인가구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561,776가구(55.8%)로 집계됨
- 전북은 2인가구가 57,538가구로 전체 94,734가구 중 57.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인가구 20,489가구로 21.6%의 비중을 보였음

[표 2-4] 농가 가구원수

(단위: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전국	198,189	561,776	132,789	114,404
전북	20,489	54,538	10,016	9,691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19)

- 지난 10년 간 농업부문 노동력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영농형태별 농업 노동력 구성과 투입량을 살펴보았음
- 과수의 경우, 2010년 기준 가족농업종사자 2.19명, 상시종사자 2.01명, 임시종사자 0.18명이었으나, 10년 간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 기준 각각 2.01명, 1.94명, 0.07명으로 나타남
- 품앗이를 포함한 가족노동은 2010년 1,384.5시간에서 2020년 1,370.9시간으로, 일손돕기를 포함한 고용노동은 348.9시간에서 331.4시간으로 17.5시간 감소함
- 채소에 노동투입량을 살펴보면, 상시종사자를 제외한 가족농업종사자와 임시종사자 모두 2010년 2.12명, 0.14명에서 2020년 2.01명, 0.0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족노동시간과 고용노동시간 또한 1,375.7시간, 336.6시간에서 1,145.4시간, 297.7시간으로 감소함
- 특용작물의 노동력은 지난 10년 간 감소세를 보이며, 가족농업종사자, 상시종사자, 임시종사자 각각 2010년 2.37명, 2.08명, 0.29명에서 2020년 2.06명, 1.90명, 0.16명으로 감소함
- 노동투입량은 가족노동과 고용노동은 2010년 1,417.2시간, 500.3시간에서 2020년 910.4시간, 460.6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화훼농가의 경우, 상시종사자를 제외한 가족농업종사자와 임시종사자의 노동투입량은 지난 10년 간 감소하여 2010년 2.26명 가족농업종사자와 0.19명 임시종사자가 2020

---

년 각각 2.10명, 0.02명으로 감소함

- 가족노동시간과 고용노동시간은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 가족노동시간과 고용노동시간은 1,383.8시간과 512.8시간에서 10년이 지난 2020년 2,390.5시간, 910.8시간으로 증가함
- 일반 발작물의 투입노동력은 2010년 평균 가족농업종사자 2.06명, 상시노동자 1.96명, 임시종사자 0.10명에서 2020년 각각 1.97명, 1.83명, 0.14명으로 변화됨
- 노동투입량은 가족노동은 2010년 860.1시간에서 2020년 762.5시간으로 감소하였으나, 고용시간은 163.2시간에서 182.0시간으로 증가하여 고용노동의 의존도가 높아짐

[표 2-5] 영농형태별 농가당 농업 노동력 구성<sup>2)</sup>

(단위: 명, 시간)

구 분		가족농업 종사자	상시 종사자	임시 종사자	가족노동	품앗이	고용	일손돕기
논벼	2010	2.05	1.92	0.13	792.6	27.2	31.3	45.5
	2016	2.00	1.92	0.08	617.4	23.5	25.1	33.5
	2018	1.97	1.90	0.07	834.4		65.5	
	2020	2.00	1.96	0.04	740.7		53.5	
과수	2010	2.19	2.01	0.18	1,375.2	9.3	253.4	95.5
	2016	2.07	2.00	0.08	1,333.4	8.7	212.5	74.3
	2018	2.00	1.91	0.09	1,419.0		347.9	
	2020	2.01	1.94	0.07	1,370.9		331.4	
채소	2010	2.12	1.98	0.14	1,338.6	37.1	290.8	45.8
	2016	2.04	1.99	0.06	1,055.7	18.4	211.8	37.2
	2018	1.98	1.91	0.07	1,312.9		382.6	
	2020	2.01	1.94	0.07	1,135.4		297.7	
특용 작물	2010	2.37	2.08	0.29	1,400.4	16.8	435.8	64.5
	2016	2.16	1.97	0.19	654.4	8.0	86.9	28.8
	2018	2.05	1.98	0.07	803.1		259.6	
	2020	2.06	1.90	0.16	910.4		460.6	
화훼	2010	2.26	2.07	0.19	1,374.7	9.1	471.8	41.0
	2016	2.12	2.05	0.06	2,174.5	8.6	626.1	137.2
	2018	2.11	2.09	0.02	2,365.8		648.3	
	2020	2.10	2.09	0.02	2,390.5		910.8	
일반 밭작물	2010	2.06	1.96	0.10	831.7	28.4	122.3	40.9
	2016	2.01	1.96	0.04	599.5	18.9	186.5	36.3
	2018	1.89	1.82	0.07	697.1		227.0	
	2020	1.97	1.83	0.14	752.5		182.0	
축산	2010	2.04	1.96	0.08	1,262.8	22.3	191.6	24.4
	2016	2.14	2.06	0.08	1,505.7	10.2	372.5	30.9
	2018	2.05	1.96	0.09	1,773.9		448.6	
	2020	2.02	1.97	0.06	1,801.5		414.5	
기타	2010	2.04	1.96	0.08	780.3	18.4	96.1	28.6
	2016	2.09	2.01	0.08	937.9	28.1	680.5	38.1
	2018	1.94	1.89	0.05	1,044.6		633.2	
	2020	2.01	1.93	0.08	1,190.6		586.4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2) 농가가계조사는 2018년도 농업노동 조사방식의 변경에 따라 노동투입량을 '가족노동', '품앗이', '고용노동', '일손돕기'에서 '품앗이 포함 가족노동'과 '일손돕기 포함 고용노동'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 경지규모별 농업 노동력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 간 평균 가족농업종사자의 변화가 큰 경지규모는 7.0ha~10.0ha 미만으로 0.51명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3.0ha~5.0ha미만이 0.34명, 0.5ha미만 0.18명, 1.0ha~1.5ha미만 0.16명 등 순으로 나타남
- 상시종사자의 경우, 10.0ha이상이 0.24명, 7.0ha~10.0ha미만 0.20명 등 순으로 나타남 반면, 임시종사자는 3.0ha~5.0ha미만이 0.28명, 10.0ha이상 0.26명, 7.0ha~10.0ha미만 0.17명 등 순으로 나타남
- 10.0ha이상 경지규모를 가진 농가는 임시종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3.0ha~5.0ha미만, 7.0ha~10.0ha미만은 임시종사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음
- 경지규모별 노동투입량을 살펴보면, 가족노동시간의 변화가 가장 큰 경지규모는 7.0ha~10.0ha미만(300.3시간), 5.0ha~7.0ha미만(189.7시간), 10.0ha이상(124.9시간), 3.0ha~5.0ha미만(104.3시간) 등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3.0ha~5.0ha미만, 5.0ha~7.0ha미만, 7.0ha~10.0ha미만을 제외한 경지규모를 가진 농가의 가족노동시간은 증가함
- 고용노동 투입시간을 살펴보면, 10.0ha이상이 513.8시간, 5.0ha~7.0ha미만 164.3시간, 2.0ha~3.0ha미만 63.0시간 등 순으로 10년 간 변화폭이 큼
- 경지규모가 0.5ha미만과 0.5ha~1.0ha미만을 제외한 농가의 고용노동시간이 증가하며, 고용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짐

[표 2-6] 경지규모별 농가당 농업 노동력 구성<sup>3)</sup>

(단위: 명, 시간)

구 분	가족농업 종사자	상시 종사자	임시 종사자	가족노동	품앗이	고용	일손돕기	
0.5ha 미만	2010	2.09	1.62	0.47	459.8	2.0	28.7	15.1
	2016	1.99	1.64	0.34	471.6	2.0	22.7	14.9
	2018	1.89	1.59	0.32	574.6		52.1	
	2020	1.91	1.64	0.27	585.7		36.9	
1.0ha 미만	2010	2.11	1.75	0.36	694.6	7.6	103.1	25.0
	2016	2.05	1.81	0.24	669.3	6.4	135.0	26.0
	2018	1.97	1.72	0.26	839.9		115.0	
	2020	2.00	1.75	0.25	829.1		91.3	
1.5ha 미만	2010	2.17	1.88	0.29	985.9	19.1	99.3	37.1
	2016	2.10	1.93	0.17	932.3	8.9	127.8	31.6
	2018	2.00	1.83	0.17	1,135.9		211.8	
	2020	2.01	1.84	0.18	1,063.0		179.9	
2.0ha 미만	2010	2.17	1.87	0.29	1,105.4	20.0	135.8	42.1
	2016	2.14	1.98	0.16	940.8	19.5	158.7	49.6
	2018	2.09	1.86	0.23	1,355.3		362.0	
	2020	2.08	1.91	0.17	1,239.5		240.9	
3.0ha 미만	2010	2.21	1.97	0.24	1,146.9	32.1	164.1	73.2
	2016	2.15	2.00	0.15	1,110.8	18.6	162.3	43.6
	2018	2.09	1.92	0.17	1,415.4		365.7	
	2020	2.09	1.98	0.11	1,198.6		306.3	
5.0ha 미만	2010	2.40	2.01	0.39	1,371.1	40.0	318.1	81.1
	2016	2.10	1.97	0.13	1,158.6	28.0	346.6	58.2
	2018	2.06	1.95	0.11	1,386.8		480.3	
	2020	2.06	1.95	0.11	1,306.8		402.1	
7.0ha 미만	2010	2.33	2.03	0.31	1,708.6	88.3	399.6	78.2
	2016	2.34	2.02	0.32	1,129.6	71.2	216.7	56.4
	2018	2.23	2.06	0.16	1,704.3		555.6	
	2020	2.19	2.05	0.14	1,637.2		672.1	
10.0ha 미만	2010	2.54	2.23	0.31	1,803.4	58.7	407.5	93.5
	2016	2.22	2.11	0.11	1,322.8	73.5	316.4	131.7
	2018	2.04	1.91	0.12	1,819.2		435.1	
	2020	2.03	1.93	0.10	1,570.8		549.1	
10.0ha 이상	2010	2.22	2.03	0.19	1,825.8	150.3	679.8	255.7
	2016	2.14	1.95	0.19	1,682.1	104.1	539.1	68.1
	2018	2.20	1.79	0.41	1,626.0		1,507.5	
	2020	2.24	1.79	0.45	1,510.2		1,449.3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3) 농가가계조사는 2018년도 농업노동 조사방식의 변경에 따라 노동투입량을 '가족노동', '품앗이', '고용노동', '일손돕기'에서 '품앗이 포함 가족노동'과 '일손돕기 포함 고용노동'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 전북의 농업 노동력 유형과 노동투입량의 지난 10년 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가족농업종사자, 상시종사자, 임시종사자는 2010년 각각 2.15명, 1.86명, 0.29명에서 2020년 1.99명, 1.81명, 0.18명으로 모두 감소함
- 농업 노동력 투입량을 살펴보면, 가족노동시간은 2010년 903.2시간에서 2020년 72.6시간이 감소한 830.6시간이었으며, 고용노동시간은 205.1시간에서 22.2시간이 감소한 182.9시간이었음

[표 2-7] 경지규모별 농가당 농업 노동력 구성<sup>4)</sup>

(단위: 명, 시간)

구 분	가족농업 종사자	상시 종사자	임시 종사자	가족노동	품앗이	고용	일손돕기
전국	2010	2.18	1.82	0.35	905.6	19.7	41.9
	2016	2.07	1.84	0.24	786.7	13.4	32.4
	2018	1.99	1.74	0.24	967.9		203.9
	2020	1.99	1.74	0.25	831.4		198.8
전북	2010	2.15	1.86	0.29	875.9	27.3	46.1
	2016	1.98	1.74	0.24	673.6	10.1	19.9
	2018	2.00	1.79	0.21	926.9		181.0
	2020	1.99	1.81	0.18	830.6		182.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4) 농가가계조사는 2018년도 농업노동 조사방식의 변경에 따라 노동투입량을 '가족노동', '품앗이', '고용노동', '일손돕기'에서 '품앗이 포함 가족노동'과 '일손돕기 포함 고용노동'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 2. 전북 주요 품목별 노동투입량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서비스를 근거로 계절성 작물 중 전라북도의 2020년 대표적인 식량작물은 고구마와 감자로, 재배면적은 각각 3,323.54ha와 1,597.81ha로 나타남
- 과일, 채소작물을 살펴보면, 건고추는 6,191.01ha, 양파가 1,067.45ha으로 재배면적을 보였으며, 딸기는 677.81ha, 마늘은 525.31ha으로 측정됨
- 과수의 경우, 사과는 2,169.38ha, 복숭아 1,391.51ha, 포도 809.88ha, 배 571.12ha로 나타남

[표 2-8] 2020년 전북 계절성 작물 재배면적<sup>5)</sup>

(기준: ha)

구분	작목	재배면적
식량작물	고구마	3,323.54
	감자	1,597.81
과일, 채소작물	딸기	677.81
	건고추	6,191.01
	양파	1,067.45
	마늘	525.31
	사과	2,169.38
과수	복숭아	1,391.51
	배	571.12
	포도	809.88

출처: 2020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인감

- 계절성 작목별 노동투입을 10a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식량 작물 고구마는 고용노동시간과 자가노동시간이 각각 45.7시간, 31.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봄감자는 고용노동이 26.1시간, 자가노동이 47.8시간으로 가족노동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과일 딸기의 고용 노동비는 226.8시간, 자가 노동비는 530.7시간으로 나타남

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biOlap/dbdEqptOudor.do>

- 과수의 경우, 사과와 고용 노동비는 45.6시간인 반면, 자가 노동비는 88.9시간이었으며, 복숭아는 고용 노동비가 26.5시간, 자가 노동비 106.1시간이었음
- 배의 고용 노동비는 40.5시간, 자가 노동은 104.1시간이었으며, 포도의 경우, 고용 노동비는 35.7시간, 자가 노동비는 244.7시간으로 나타남

[표 2-9] 2020년 전라북도 계절성 작목별 소득 및 노동투입 총괄표

(기준: 년 1기작/10a)

구분	작목	수량(kg)	총수입(원)	고용노동(hr)	자가노동(hr)
식량작물	고구마	1,610	3,394,683	45.7	31.6
	봄감자	2,738	3,029,929	26.1	47.8
과일	딸기	3,962	27,688,923	226.8	530.7
과수	사과	1,825	5,377,903	45.6	88.9
	복숭아	917	3,908,846	26.5	106.1
	배	1,886	4,382,710	40.5	104.1
	포도	1,887	7,808,043	35.7	244.7

출처: 농촌진흥청(2021). 2020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전라북도).

- 계절성이 큰 작물 재배순기에 따른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에 따른 지난 4년간 도입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본 결과, [표2-10]과 같음
- 배정 인원은 2019년 84명, 2020년 348명, 2021년 681명, 2022년 상반기 1,74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49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됐던 2020년과 2021년의 입국한 인원은 각각 14명과 125명이었음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규모는 11,550명에서 전북은 1,741명으로 배정됨

[표 2-10] 전북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현황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배정	도입	배정	도입 <sup>6)</sup>	배정	도입	배정	도입
계	84	49	348	14	681	125	1,741	0
전주								
군산			2		2	1	2	
익산	22	17	38	1	62	14	167	
정읍			33		61	31	74	
남원							50	
김제					42	3	66	
완주							96	
진안			130	13	93	15	149	
무주	62	32	100		181	9	329	
장수			32				56	
임실							40	
순창					33	6	8	
고창			13		205	45	645	
부안					2	1	59	

출처: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농촌 인력지원 대응 방안(2022.3). 내부자료.

6) 코로나19에 따른 출국유예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고용허가제(E-9) 등 외국인을 한시적으로 활용

---

### 3. 농업 고용 노동력 관련 정책 및 제도

#### 가. 고용 관련 법률

- 농업인력 고용 관련 법률과 정책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과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를 살펴보고, 농업부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제정한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법률을 소개하고자 함

#####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인상은 농업 인력난을 가중시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추진되었음
- 1993년 11월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처음 시행되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문제, 불  
법채류 등의 문제로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  
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관리하여 원활하  
게 인력을 공급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제2조)
-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짐
  -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국내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 사업 또는 사업장은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되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내국인을 채  
용하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  
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제8조)
- 「직업안정법」 제2조의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채용  
등을 관할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됨(제9조)
-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에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한 취업교육을 받게 됨(제11조)

- 그 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제4장)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 고용허가제<sup>7)</sup>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2004년 3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79천명(고용허가제 25천명, 취업관리제 16천명, 산업연수제 38천명)을 도입하기 위해 ‘2004년 외국인수급계획’이 발표되었으며, 8월 단순기능인력 도입을 위해 고용허가제가 시행됨
- 2015년 10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함께 표준근로계약 개정으로 ‘농업, 축산업 표준근로계약제’가 신설됨
- 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sup>8)</sup>로 구분되면, 2020년 외국인인력 도입 허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이 포함되어 농축산업은 작물재배업,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이 해당되며, 작물재배업은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콩나물·종묘재배 등이 해당됨

### ■ 계절근로자제<sup>9)</sup>

- 농·어번기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 계절근로자제는 2015년 법무부가 농어업부문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함

7) EPS(Employment Permit System)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tabGb=01>

8) 특례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자격의 사증을 발급받은 입국 외국국적동포(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홈페이지,

<https://eps.hrdkorea.or.kr/h2/h2empl/whatH2empl.do>)

9) 법무정책서비스-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

<https://www.moj.go.kr/moj/194/subview.do>

- 농어업 부문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가구당 연간 최대 6명이 가능하며, 지자체 배정인원은 지자체의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을 고려하여 도입인원이 선정됨
- 계절근로자제는 계절성이 있는 농업과 어업에 한해 3~5개월 이내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업종에 한해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함
- 법무부는 선별된 지자체에 해당되는 신청 외국인에게 90일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하며, 입국, 근무, 출국, 인권침해 발생 및 불법체류 방지 등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가 관리함
- 2019년 12월부터 국내에서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인 계절근로(E-8)가 신설되었으며, 국내 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체결로 입국하는 농업 계절근로자는 E-8-1자격이 부여됨



[그림 2-1] 계절근로자 입국절차

---

## 2)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와 태안군은 농어촌지역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제1조)을 위해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2017년 11월, 2021년 4월에 제정함
-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어업인력’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과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인력’으로 정의함
-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어업인력지원센터<sup>10)</sup> 설치·운영’,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이 포함됨

---

10) ‘농어업인력지원센터’는 ‘농어업인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로 정의한다(제2조제3호).

---

## 나. 고용서비스 관련 법률

- 농촌의 농번기 인력부족에 따른 고용 노동력 증개·알선하는 등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들이 농촌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의 기관에 의해 추진되어 왔음
- 농업인력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관련 법률과 함께 일부 지자체의 공공부문의 농촌인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있음

### ■ 직업안정법

- 1967년 3월에 제정된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하는 목적을 제1조에서 제시하고 있음
- 「직업안정법」은 취업 기회제공과 노동력 수급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의미하며(제2조의2제1호), ‘직업소개’를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자 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로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음
- 직업소개사업은 ‘무료직업소개사업(제4호)’와 ‘유료직업소개사업(제5호)’로 구분되며,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수수료, 회비 등을 받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의미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의미함
  - 제18조에 따르면,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함
  - 제19조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희망 사업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으나 사업소별 직업소개 또는 직업 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소양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 경우에는 가능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이외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요금은 「고용

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가 필요함

- 제33조는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구인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제7호)을 의미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sup>11)</sup>을 제외함

#### ■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북도 영동군, 경상북도 예산군, 경상북도 울진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도 화산군은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센터인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
-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해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로 정의함
-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센터의 지정·지원,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지도·감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영동군 조례는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의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정의(제2조제2호)를 제시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기능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운용을 명시(제4조)하였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 ‘고용농가 산업재해 가입’, ‘입·출국 경비 및 항공료’,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농작업 안전물품’ 등에게 지원할 수 있음을 제시함(제6조)

1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파견’은 제1호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함

---

## 다. 농업인력 관련 사업

###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sup>12)</sup>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원(이하 농정원)에서 농산업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도 농업법인 등에 실무연수를 통해 유능한 농업인력 확보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제2항<sup>13)</sup>에 근거하여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법인 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함함
- 지원 농업법인 중 선정된 법인이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청년을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청년 1인당 월 급여의 80% 이내에 한함
- 사업추진절차 상 담당기관의 역할은 ‘사업신청 단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년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정원에 전달하게 되면, 농정원은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세부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후 공모계획 공고와 사업홍보가 진행됨
- 해당년도 4월부터 사업 참여 희망 청년과 농업법인 등은 신청하게 되며,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농정원은 ‘법인 심사와 채용 가능한 법인 POOL’을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POOL’을 확보함
- ‘법인·청년 매칭 단계’에서 추천과 매칭의 주체는 농정원이 되어 청년의 희망품목, 직무분야, 기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법인 3순위까지 매칭하고 매칭된 법인에 청년을 추천하게 됨

---

12) 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2021.4.)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법인은 1개월 내 추천된 인턴 대상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고용계약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며, 법인이 급여제공을 농정원은 사업교육을 하게 됨

###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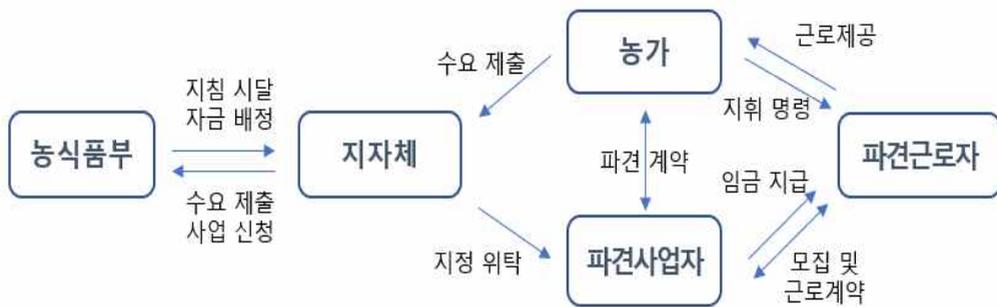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시군별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인력 배치,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 근로인력 증개 등을 지원함
- 농촌인력증개센터는 2020년 92개소에서 2021년 130개소로 증가하여 현재 관련 예산은 52억 원으로 개소당 사업비는 8천만원에 해당함
- 전라북도는 2022년 기준 3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운영주체는 시·도, 시·군, 농어업회의소, 생산자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민간기업 등이 가능함
- 농촌인력증개센터는 농작업 경험이 없는 최초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현장실습교육,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농작업 참여자 교통비, 집중영농기간 인력수송에 따른 관광버스 이용차료, 농작업자 숙박비, 작업반장 수당 등을 지원하게 됨

### ■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

-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의 대응방안으로 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견근로자 고용하는 농가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함
- 지난 3월 2021년 추경예산에서 1,728백만원을 확보하여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000명을 고용하는데, 근로자 1인당 월 36만원(파견수수료 16만원, 4대보험료 20만원)을 지원함
- 운영기관은 파견법에 근거해 파견사업주로 등록이 완료된 사업체로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관내 사업자 및 전국 단위 파견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파견사업주는 업무

관련 상시고용 5인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함

- 지난 3월 1차 선정 지자체는 17개 시군으로 4,406명이 신청하였으며, 전북은 김제(26명), 무주(346명), 고창(56명)이 해당됨



[그림 2-2]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 추진체계<sup>14)</sup>

### ■ 도시형인력증개센터<sup>15)</sup>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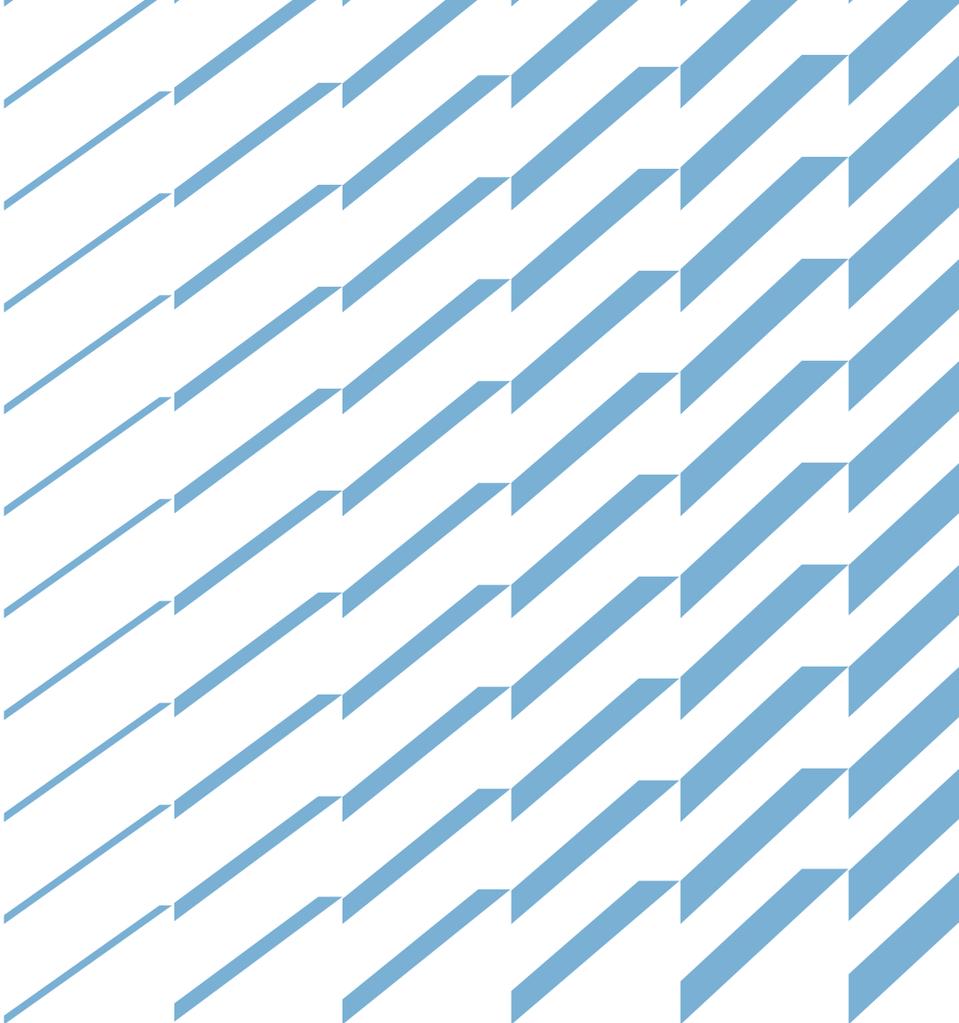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서울시·농협 협력사업으로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구직자와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를 증개해주기 위해 도시형인력증개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도시형인력증개센터는 도시민을 모집하여 농작업 실습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증개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함
  - (도시형) 품목별 농작업 특성(정식, 수확, 선별, 전지 등)에 맞는 근로자를 선발하여 10~15명으로 그룹 화하고 팜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현장 농작업 교육 및 애로사항 해소

1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4.28.). 농번기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사업 신규 도입.

1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4.13.). 도시구직자에게 일자리 제공, 농촌에는 인력공급을!

- 
- (농촌형) 도시민이 2주 이상 안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농작업 수요를 파악, 도시형인력중개센터와 연계
  - 2020년에 시범운영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농협과 협력하여 1,800여명의 도시민을 일손이 부족한 지역인 경기 여주, 강원 양구, 인제, 전북 고창 등에 중개함
  - 기초생활보호대상농가,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비(2만원, 최대 3일)지원과 우선으로 농작업을 중개함





## 제 3장

# 전북 농업 고용 노동력 실태 및 공급경로

1. 시·군별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2.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경로
3. 국내외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사례
4. 시사점





## 제3장 전북 농업 고용 노동력 실태 및 공급경로

### 1. 시·군별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 시·군별 주요 품목당 영농순기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농업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추정함
- 농업 고용 노동력 투입량의 추정을 위해 ‘2019년과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sup>16)</sup>에서 각 시·군별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보이는 품목들을 선정하여 지역별로 농업 고용노동량을 산출하였음

#### ■ 전북 농업 고용 노동력 산출 방법

- 농업 고용노동력 분석에 있어 각 시·군별 재배면적은 2019년과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함
  - 재배면적에 따른 고용 노동시간은 2019년과 2020년 농촌진흥청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이용하였음<sup>17)</sup>
  - 품목당 연중 월별 노동시간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농작업 부담 분석 툴<sup>18)</sup>과 설문조사(부록 참조)<sup>19)</sup>를 통해 구성된 농작업 부담분석 툴을 활용하여 도출하였음
  - ‘농작업별 노동시간’의 설문지는 편의상 농작업별 노동시간의 면적 단위를 ‘평’으로 하여 노동시간을 측정하였으며, 고용노동력 투입량 산출과정에서 농작업별 노동시간 단위를 ‘시간/평’에서 ‘시간/10a’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음

16) <https://uni.agrix.go.kr/docs7/biOlap/dbdEqptOudor.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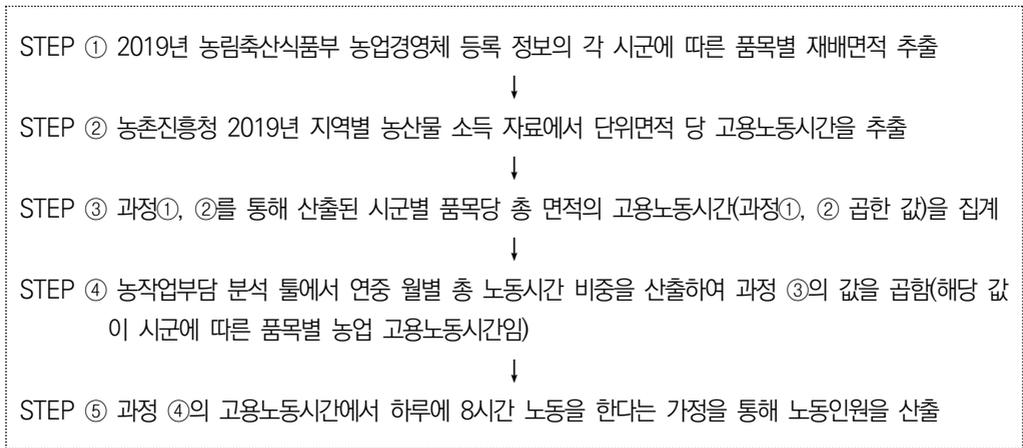
17) 마늘, 양파, 고추에 대한 전라북도 10a당 고용 노동비가 확인되지 않아, 전국 평균 10a 고용 노동비를 활용함

18) 농작업부담 분석 툴은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하는 농업인 안전보건 정보 통계(농업인 DB)에 따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1평 당 연중 필요한 노동시간을 기계적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임 ([http://farmer.rda.go.kr/portal/menu1/WorkPlan.do?m\\_id=9000\\_42\\_4817&menuId=PS03451](http://farmer.rda.go.kr/portal/menu1/WorkPlan.do?m_id=9000_42_4817&menuId=PS03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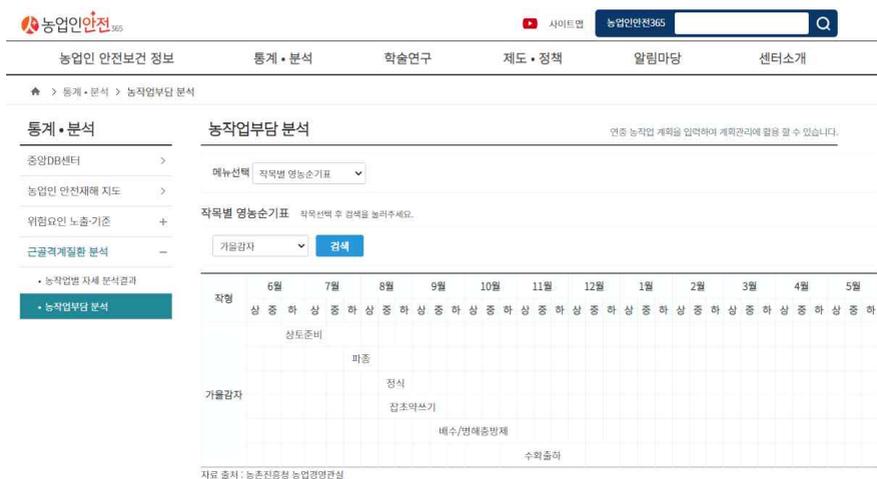
19) 양파, 마늘, 복숭아, 고추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농순기표와 농작업별 노동시간을 산출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농업 고용 노동력 추산과정은 <표 3-1>과 같음

[표 3-1] 전북 농업 노동력 산출단계



- 연중 월별 총 노동시간 비중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작업부담 분석 사이트 ([http://farmer.rda.go.kr/portal/menu1/WorkPlan.do?m\\_id=9000\\_42\\_4817&menuId=PS03451](http://farmer.rda.go.kr/portal/menu1/WorkPlan.do?m_id=9000_42_4817&menuId=PS03451))를 통해 도출된 값임



[그림 3-1] 농촌진흥청 농작업 부담 분석틀

○ 분석에 사용된 시군구 품목별 재배면적은 [표 3-2]와 같음

[표 3-2] 전북 시·군 주요 품목별 재배면적

(단위: ha)

시군구	품목	2019년	2020년	시군구	품목	2019년	2020년
전주	복숭아	212.91	204.09	진안	고추	471.27	508.19
	배	134.24	136.32		사과	131.37	122.69
익산	고구마	756.69	787.68	무주	고구마	109.43	106.90
	고추	331.83	327.13		사과	746.66	764.43
	딸기	191.15	187.31		고추	405.56	387.10
	양파	105.87	110.74		복숭아	109.60	117.31
정읍	양파	884.86	889.26	장수	사과	871.11	823.30
	고추	840.02	849.54		고추	304.11	303.56
	고구마	246.99	268.56		고추	476.14	474.35
남원	고추	476.14	474.35	임실	복숭아	265.15	269.56
	포도	405.11	407.78		고구마	120.84	117.79
	복숭아	370.45	379.93	순창	고추	423.39	420.88
	감자	362.18	344.38	고창	고추	1,018.25	1,035.21
	사과	182.60	184.52		고구마	787.68	806.02
	고구마	130.78	137.21		양파	309.07	276.70
	김제	감자	595.84	592.65	부안	고추	401.62
고구마		558.99	574.03	양파		192.99	194.10
고추		464.24	454.98	마늘		127.96	123.29
포도		193.63	188.00				
완주	고추	301.22	302.29	주: 분석에 있어 고추의 경우 건고추 재배면적을 활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양파	280.96	267.05				
	딸기	203.90	201.87				
	마늘	137.45	14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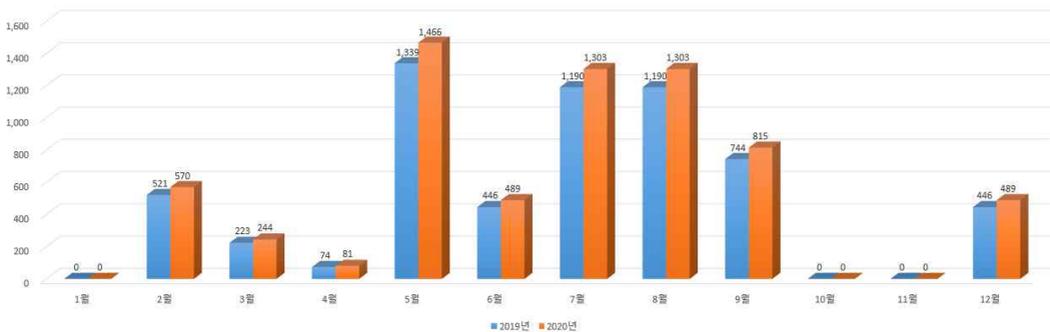
○ 상기의 산출과정을 통한 농업 고용노동력은 사용자 입장에서 비교적 산출이 간단함

-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농작업 안전 관련 DB 분석을 통해 얻어진 노동시간의 값을 사용하는 점에서 비교적 정밀도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가짐

## ■ 전주시

- 전주시 내 생산되는 농산물 중 재배면적이 넓은 품목은 복숭아와 배로, 복숭아의 2019년과 2020년 면적은 각각 212.91ha, 204.09ha이었으며, 배는 134.24ha와 136.32ha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된 2019년 복숭아의 전라북도 노동비는 1ha당 232시간, 2020년은 26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총 재배면적에 대한 노동비는 각각 49395.12시간, 54,083.85시간으로, 하루 1인당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매월 투입된 고용 노동량은 [그림 3-2]와 같음
- 복숭아 영농순기별 투입되는 인력은 복숭아열매 수확하기가 진행되는 5월에 투입된 인원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1,339명, 1,466명으로 산출되었음
- 수확이 시작되는 7월부터 만생종을 수확하는 9월까지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의 경우, 7월 1,190명, 8월 1,190명, 9월 744명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각각 1,303명, 1,303명, 815명으로 추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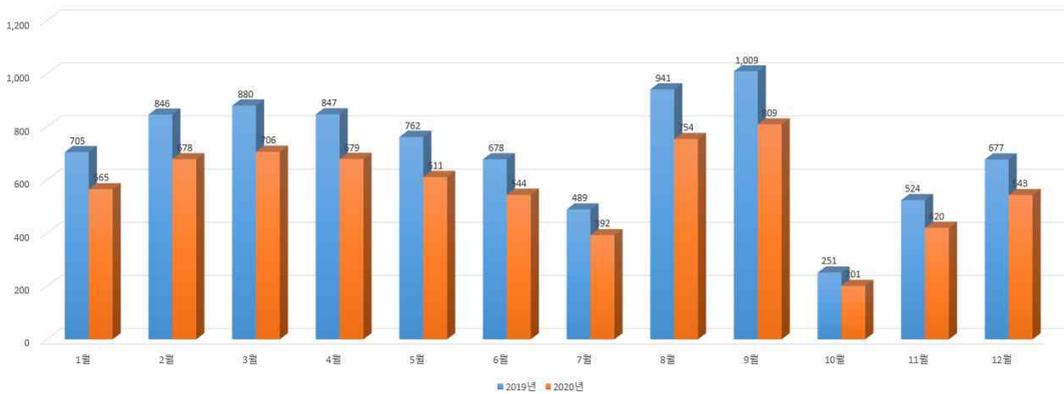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2] 시기별 전주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복숭아

- 배의 경우, 1ha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의 고용 노동비는 각각 513시간, 405시간<sup>20)</sup>이었으며, 전주의 배 재배면적은 134.24ha, 136.32ha로 나타났음
- 총 노동설계에서 월별 비중에 따라 투입되었던 고용 노동비를 계산 후, 1인당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매월 투입되었던 고용 노동량은 [그림 3-3]과 같음
- 영농순기상 배의 정지-전정이 진행되는 1월부터 3월, 묘목심기와 고접갱신 3월과 4월, 적화·인공수분 4월과 5월, 눈파기·적과시기 5월과 6월, 봉지 씌우기 6월, 여름 전정기 6월과 7월, 수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8월과 9월, 밑거름과 묘목심기 11월과 12월로 진행됨<sup>21)</sup>
- 수확이 진행되는 8월과 9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 각각 941명과 1,009명으로 추정되었으며, 2020년은 754명, 809명으로 나타남

(단위: 명)



[그림 3-3] 시기별 전주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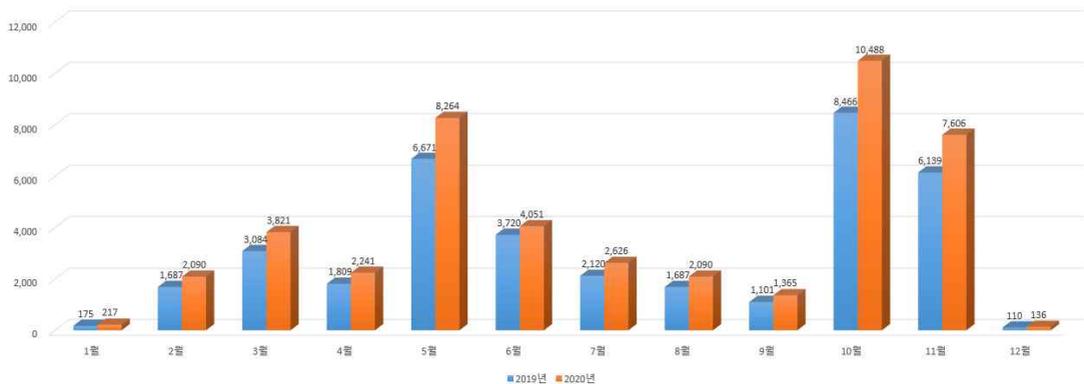
20) 농촌진흥청(2020). 2019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2021). 2020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농촌진흥청.

21) 농촌진흥청 '농사로'에 게시된 작목별 영농순기표를 참고함

## ■ 익산시

- 익산시 농지 중 재배면적이 큰 작물들은 고구마, 고추, 딸기, 양파 등으로 나타남
- 익산시 고구마 재배면적은 2019년 756.69ha, 2020년 787.68ha으로 측정되었으며, 전라북도 고구마 노동비는 2019년 1ha당 384시간, 2020년 457시간으로 나타남
- 고구마의 영농순기를 살펴보면, 2월 상토준비를 시작으로 3월 묘판설치, 5월과 6월 정식과 잡초 약쓰기, 10월 수확, 11월 수매 및 저장 등 순으로 5월, 10월, 11월은 상대적으로 고용 노동력 투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임
- 월별 영농작업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비율에 맞춰 추산한 결과,<sup>22)</sup> 산출된 고용 노동량은 [그림 3-4]와 같음
- 5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6,671명과 8,264명이었으며, 10월과 11월은 2019년 8,466명과 6,139명, 2020년 10,488명, 7,606명으로 추산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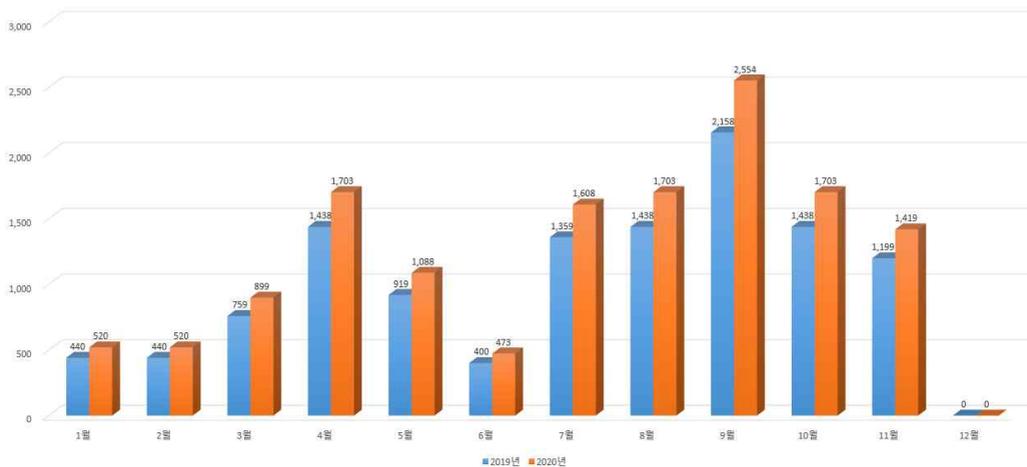


[그림 3-4] 시기별 익산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고구마

22) '농업인안전365'의 농작업부담분석을 통해 월별 투입되는 노동량의 비율을 살펴보았음  
[http://farmer.rda.go.kr/portal/menu1/checkpoint.do?m\\_id=9000\\_42\\_4817&menuId=PS03451](http://farmer.rda.go.kr/portal/menu1/checkpoint.do?m_id=9000_42_4817&menuId=PS03451)

- 익산시 고추 재배면적은 2019년, 2020년 각각 331.83ha, 889.26ha으로, 고추의 노동비는 1ha당 289시간, 347시간으로 나타남<sup>23)</sup>)
- 고추 재배순기표에 따르면 2월 발아·유묘기, 파종·이식을 시작으로, 4월과 5월 정식, 5월과 6월 지주설치 및 유인, 7월부터 11월 고추 수확 등 순으로 진행됨
- 정식기인 4월과 5월에 투입되는 고용 노동력은 2019년 각각 1,438명과 1,703명, 2020년은 919명, 1,088명으로 추정됨
- 수확기인 8월부터 10월을 살펴보면, 2019년은 8월, 9월, 10월이 각각 1,438명, 2,158명, 1,438명으로 파악되었으며, 2020년은 1,703명, 2,554명, 1,703명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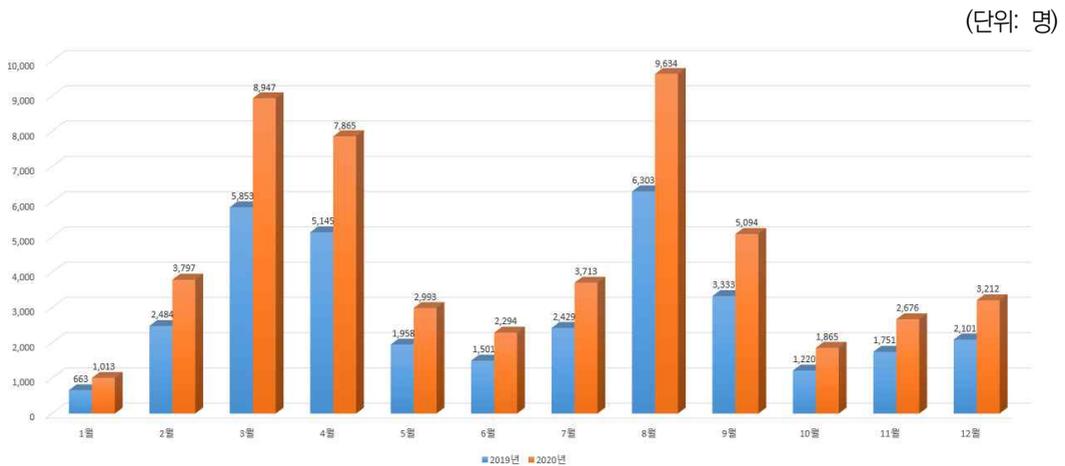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5] 시기별 익산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 고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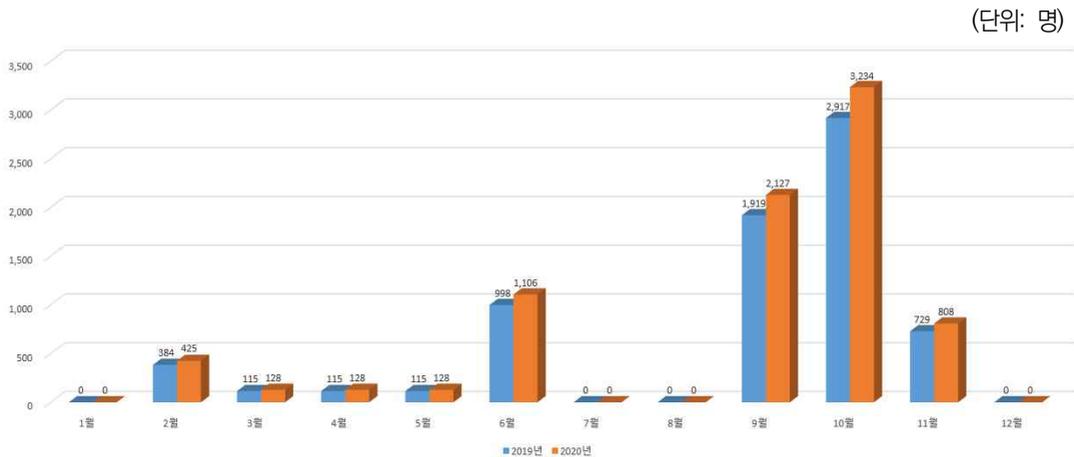
23) 전북 고추 노동비는 확인되지 않아 전국 평균 노동비를 활용함

- 딸기는 1ha기준으로 년 1기작 시 고용 노동비는 2019년 1,454시간, 2020년 2,268시간으로 나타남
- 익산시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의 면적은 2019년 191.15ha, 2020년 187.31ha으로 나타남
- 총 노동설계에서 월별 비중에 따라 투입되는 고용 노동비를 바탕으로 8시간 노동시간을 고려하여 산출된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가식 기간인 8월에 2019년 6,303명, 2020년 9,634명으로 산출됨
- 수확기인 3월과 4월의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 5,853명과 5,145명, 2020년 8,947명, 7,865명으로 추정됨



[그림 3-6] 시기별 익산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딸기

- 양파<sup>24)</sup>는 2019년과 2020년의 고용 노동비는 각각 551시간, 584시간이었으며,<sup>25)</sup> 재배면적은 105.87ha와 110.74ha로 나타남
- 영농순기표에 따르면, 양파의 파종은 8월과 9월에 진행되고, 정식은 10월과 11월, 비닐·짚 덮기는 11월과 12월, 수확은 6월에 이루어짐
- 양파의 파종과 정식기인 9월과 10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 1,919명과 2,917명으로 추산되었으며, 2020년은 2,127명, 3,234명으로 나타남
- 수확기인 6월은 2019년에는 998명, 2020년 1,106명이 고용되어 투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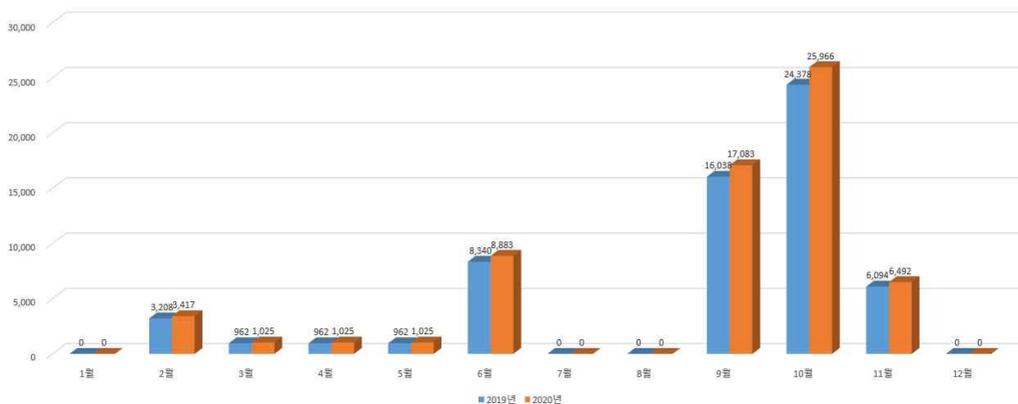
[그림 3-7] 시기별 익산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양파

24)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농작업 부담 분석표를 활용함  
 25) 전라북도 노동비가 확인되지 않아 전국 평균 노동비를 활용함

## ■ 정읍시

- 정읍시의 주요 농작물은 양파, 고추, 고구마로, 2019년 재배면적은 각각 884.86ha, 840.02ha, 246.99ha이었으며, 2020년은 889.26ha, 849.54ha, 268.56ha으로 측정됨
- 가장 넓은 재배면적을 가진 양파의 월별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살펴보면 [그림 3-8]와 같음
- 양파의 노동비는 2019년 551시간, 2020년 584시간으로, 총 재배면적에 대한 노동비는 2019년 487,557.9시간, 2020년 519,327.8시간으로 나타남
- 양파 영농순기표상 파종과 정식기인 9월과 10월에는 2019년에는 각각 16,038명, 24,378명이 고용 노동력으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20년은 17,083명과 25,966명이 2019년과 2020년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양파 수확이 이루지는 6월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8,340명과 8,883명이 투입된 고용 노동력으로 추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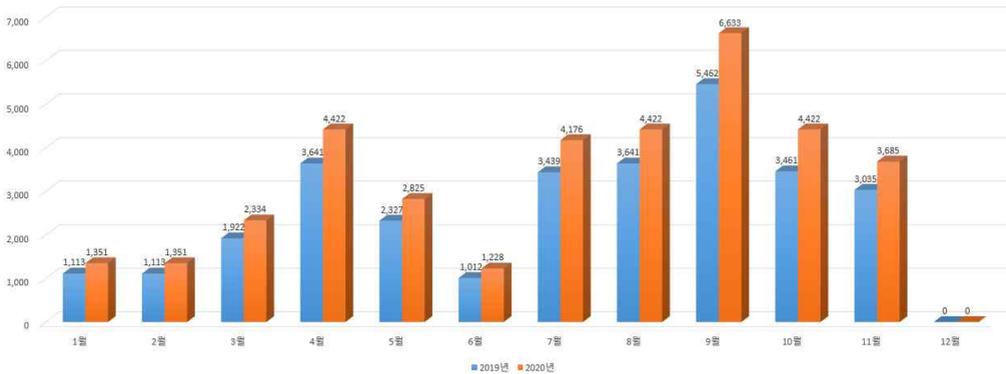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8] 시기별 정읍시 노동 투입량 추정 : 양파

- 노동비가 2019년 1ha당 289시간, 2020년 1ha당 347시간인 고추<sup>26)</sup>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월별로 추산한 결과는 [표 3-9]과 같음
- 고추의 재배면적은 2019년 840.02ha, 2020년 849.54ha으로, 총 면적 노동비는 2019년과 2020년이 각각 242,765.8시간, 293,790.4시간이었으며, 월별로 투입된 고용 노동력을 산출하기 위해 1인당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함
- 정식이 진행되는 4월과 5월의 고용 노동력을 추산한 결과, 2019년에는 3,641명과 2,327명이 투입되었으며, 2020년은 4,422명과 2,825명으로 나타남
- 수확기인 8월부터 10월의 월별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 경우 3,641명(8월), 5,462명(9월), 3,461명(10월)이었으며, 2020년은 4,422명(8월), 6,633명(9월), 4,422명(10월)으로 산출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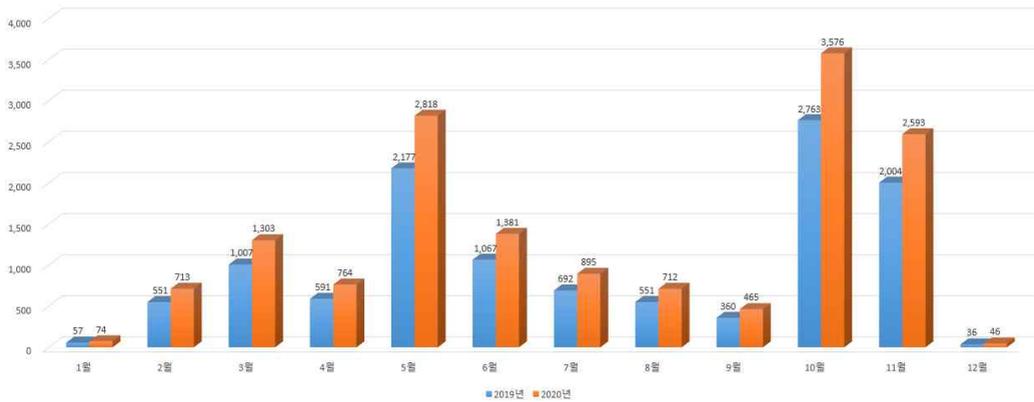


[그림 3-9] 시기별 정읍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26) 전북 고추 노동비는 확인되지 않아 전국 평균 노동비를 활용함

- 고구마의 2019년과 2020년 노동비는 1ha당 384시간, 45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재배면적은 각각 246.99ha, 268.56ha로 측정되었음
- 고구마 재배순기별 투입된 고용 노동력을 추산하기 위해 총 노동설계에서 월별 비중에 따라 투입된 고용 노동비를 활용하여 월별 노동비를 산출하였으며, 1인당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 하에 추정된 월별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표 3-10]과 같음
- 정식기인 5월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 2,177명, 2020년 2,818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수확이 진행되는 10월과 11월은 2019년 2,763명과 2,004명, 2020년 3,576명과 2,593명으로 산출되었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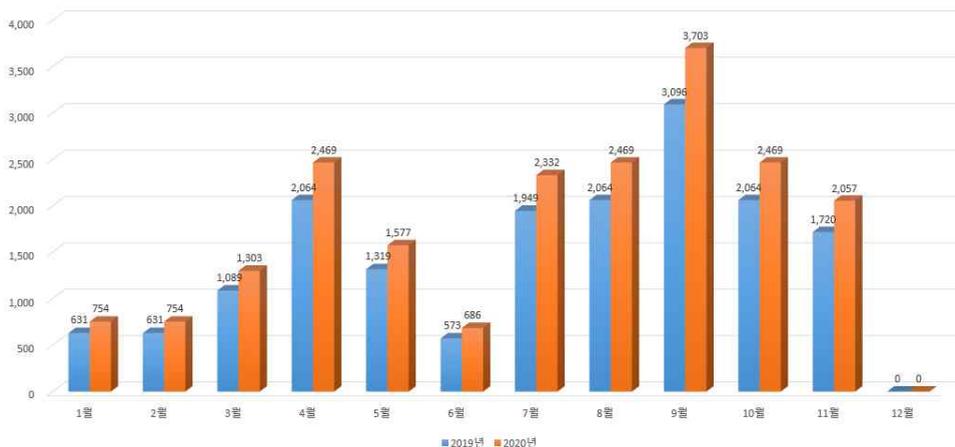


[그림 3-10] 시기별 정식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 고구마

## ■ 남원시

- 남원의 농산물 중 재배면적인 큰 품목은 고추, 포도, 복숭아, 감자, 사과 등으로, 각 농산물 재배에 투입되는 월별 고용 노동력을 추산함
- 고추의 재배면적은 2019년 476.14ha, 2020년 474.35ha으로 고용 노동비는 1ha당 2019년 289시간, 2020년 347시간으로 나타남
- 총 면적 노동비는 2019년 137,604.5시간, 2020년 164,599.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월별로 산출된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표 3-12]와 같음
- 정식기인 4월과 5월의 고용된 노동력은 2019년 2,064명, 1,319명으로 추산되었으며, 2020년은 2,469명, 1,577명으로 나타남
- 영농순기 상 8월부터 10월 수확기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을 산출한 결과, 2019년 2,064명, 3,096명, 2,064명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2,469명, 3,703명, 2,469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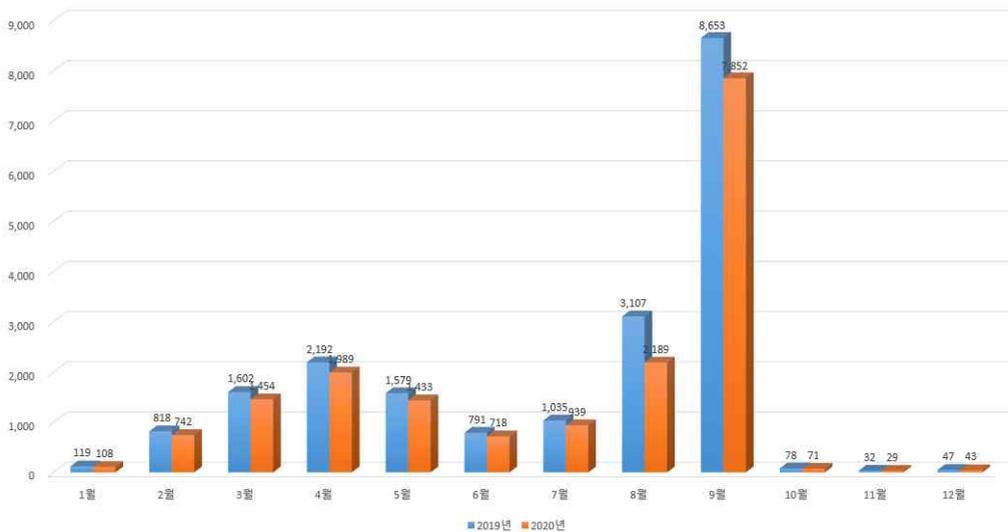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11] 시기별 남원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 고추

- 남원의 포도 재배면적은 2019년 405.11ha, 407.78ha으로, 1ha당 노동비는 2019년 396시간, 2020년 357시간이었음
- 포도 총 면적 노동비는 2019년 160,423.6시간, 2020년 145,577.5시간이었으며, 1인 당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 하에 산출된 매월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그림 3-12]과 같음
- 포도의 재배순기표에 따르면, 2월과 3월은 전정, 3월 묘목심기, 4월과 5월 눈따기, 6월과 7월 송이숙기, 8월과 9월에 수확이 진행됨
- 전정과 묘목 심기가 이루어지는 3월에 투입되는 고용 노동력은 2019년 1,602명, 2020년 1,454명이었으며, 눈따기가 이루어지는 4월과 5월에는 고용 노동력이 2019년 2,192명과 1,579명, 2020년 1,989명과 1,433명이 투입된 것으로 산출되었음
- 수확이 이루어지는 8월과 9월은 2019년 3,107명과 8,653명, 2020년 2,189명과 7,852명이 고용되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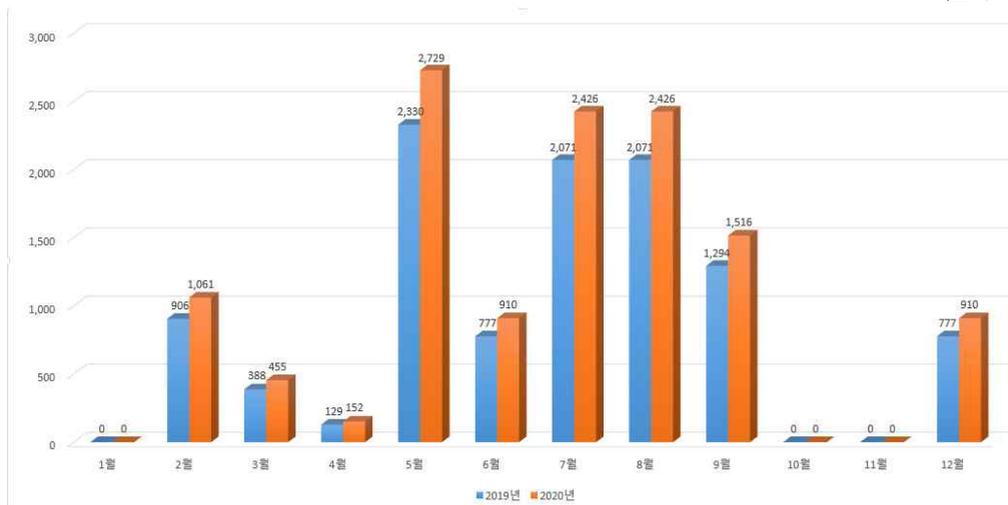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12] 시기별 남원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포도

- 2019년, 2020년 재배면적이 370.45ha, 379.93ha인 복숭아에 투입된 월별 고용 노동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13]과 같음
- 전라북도 복숭아의 평균 노동비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1ha당 232시간, 265시간으로, 총 면적 노동비는 각각 85,944.4시간, 100,681.5시간이었음
- 하루 1인당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여 월별 투입된 고용 노동력을 추산한 결과, 복숭아 열매를 수확하는 5월에 고용되어 투입된 노동력은 2019년, 2020년 각각 2,330명, 2,729명으로 나타남
- 수확기인 7월과 8월은 2019년 2,071명과 2,071명, 2020년 2,426명과 2,426명으로 추정되었으며, 만생종 수확기 9월은 2019년 1,294명, 2020년 1,516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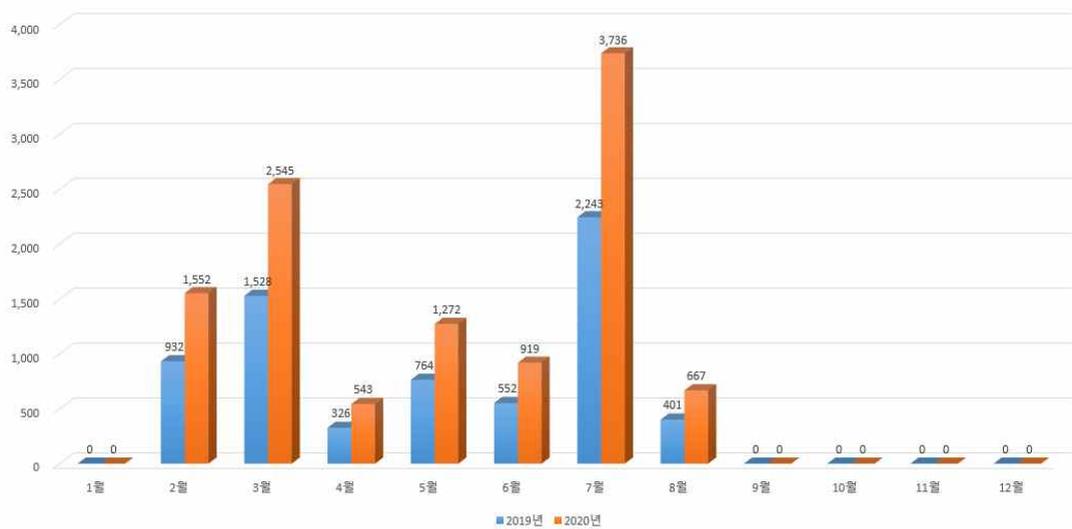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13] 시기별 남원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복숭아

- 감자<sup>27)</sup>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남원시의 재배면적은 362.18ha, 344.38ha이었으며, 1ha당 고용 노동비는 2019년 149시간, 2020년 261시간으로 나타남
- 영농순기 상 파종과 정식기인 3월의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 1,528명, 2020년 2,545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수확하는 7월은 2019년 2,243명, 2020년 3,736명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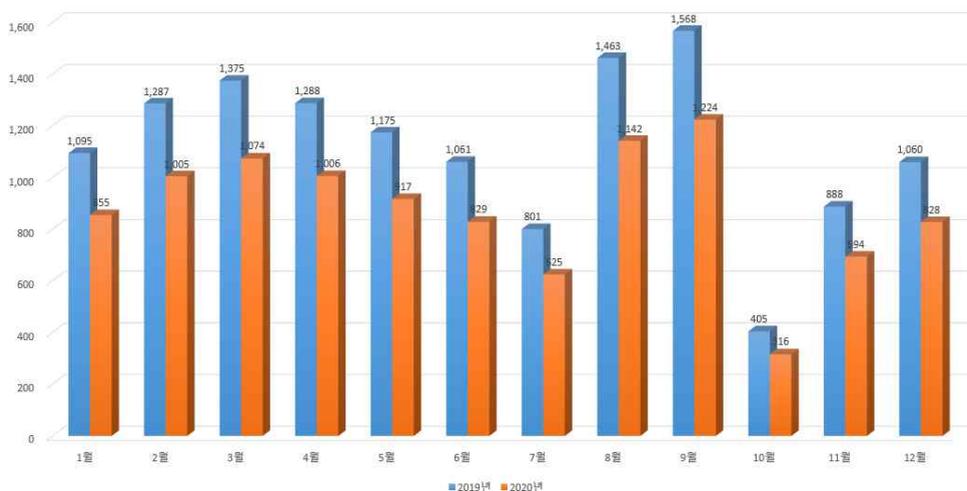


[그림 3-14] 시기별 남원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감자

27) 봄감자를 기준으로 함

- 사과 재배에 투입된 월별 고용 노동력을 살펴본 결과, [그림 3-15]과 같음
- 남원의 사과 재배면적은 2019년 182.60ha, 2020년 184.52ha으로, 1ha당 전복 평균 고용 노동비는 2019년 590시간, 2020년 456시간이었음
- 사과의 영농순기표를 살펴보면, 1월부터 3월은 정지 전정, 3월과 4월은 묘목심기, 고 접갱신, 4월과 5월은 적화·인공수분, 6월 적과, 봉지씌우기, 6월부터 8월 여름 전정, 8월과 9월 수확, 11월과 12월 밑거름과 묘목심기 순으로 농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지 전정, 묘목심기, 고접갱신 작업을 하는 2월부터 4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 1,287명, 1,375명, 1,288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1,005명, 1,074명, 1,006 명으로 추산됨
- 수확기인 8월과 9월은 2019년 1,463명과 1,568명이 각각 고용되었으며, 2020년의 고용 노동력은 1,142명, 1,224명으로 나타남
- 밑거름과 묘목심기작업이 진행되는 11월과 12월의 투입되는 고용 노동력은 2019년 888명과 1,060명, 2020년 694명과 828명으로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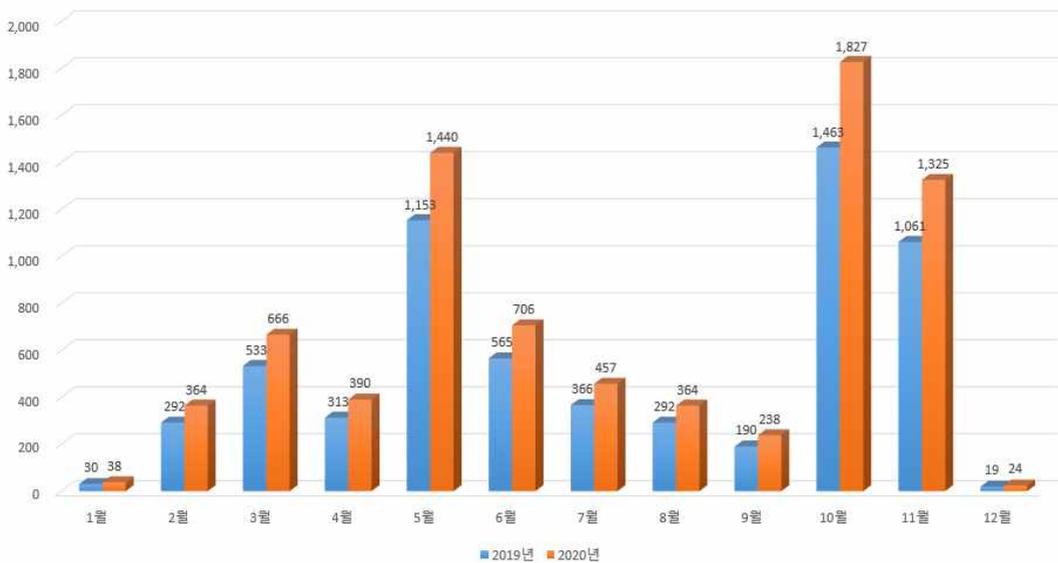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15] 시기별 남원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사과

- 고구마 재배면적은 2019년 130.78ha, 2020년 137.21ha으로 1ha당 고용 노동비는 2019년 384시간, 2020년 457시간임
- 5월 정식을 위해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 1,153명, 2020년 1,440명으로 산출되었으며, 고구마가 수확되는 10월과 11월 작업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 1,463명과 1,061명, 2020년 1,827명과 1,325명이었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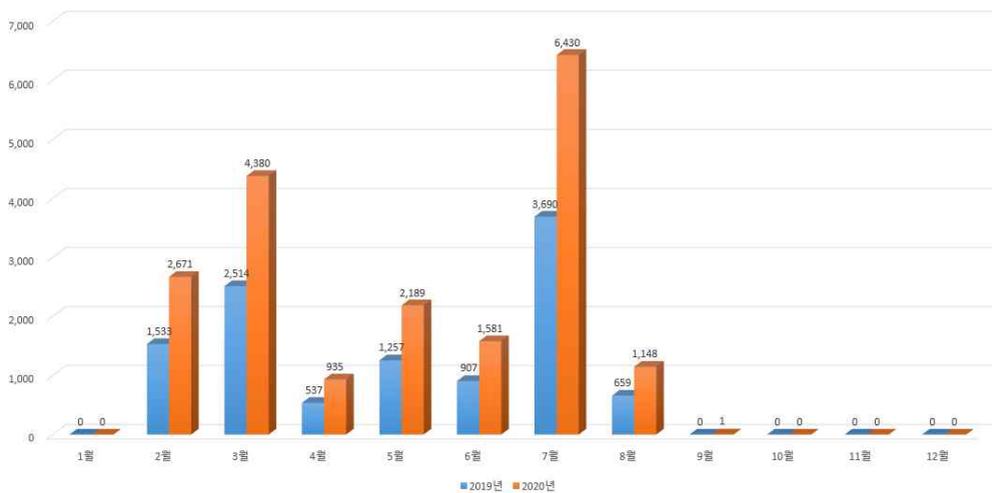


[그림 3-16] 시기별 남원시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고구마

## ■ 김제시

- 김제시 농산물 중 재배면적이 넓은 작물에 대한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산출하였으며, 감자, 고구마, 고추, 포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 감자<sup>28)</sup>의 경우, 재배면적은 2019년 595.84ha, 2020년 592.65ha이었으며, 감자의 1ha당 전북 평균 고용 노동비는 2019년 149시간, 2020년 261시간으로 나타남
- 총 면적 고용 노동비는 2019년 88,780.16시간, 2020년 154,681.70시간으로 1인당 하루 8시간 일한다는 가정 하에 농작업 노동비를 활용하여 월별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산출함
- 상토준비, 파종, 정식기인 2월과 3월에 투입되는 고용 노동력은 2019년 1,533명과 2,514명, 2020년 2,671명과 4,380명으로, 감자 수확기 7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 3,690명, 2020년 6,430명으로 산출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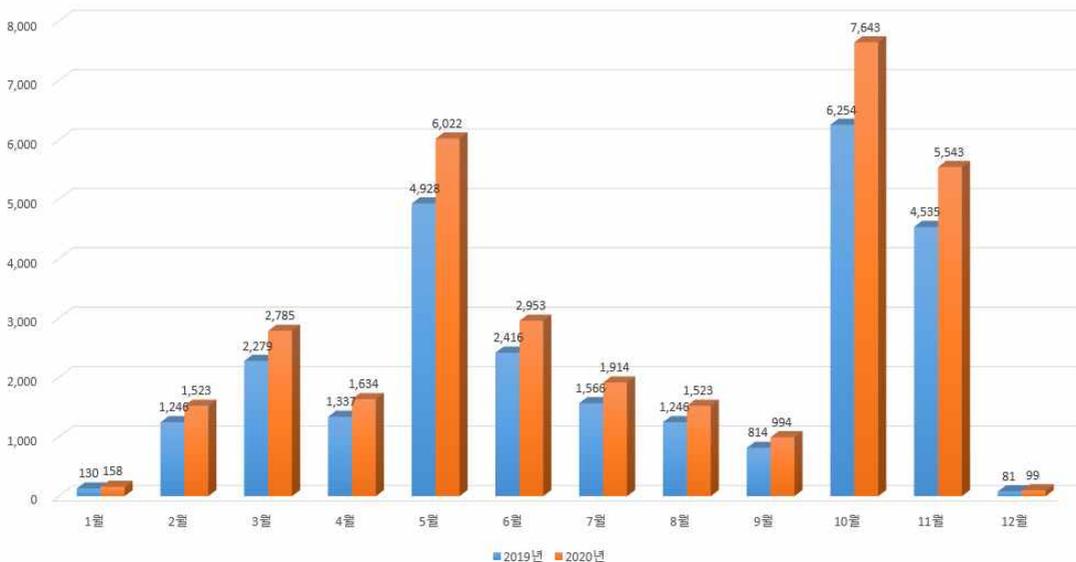


[그림 3-17] 시기별 김제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감자

28) 봄감자를 기준으로 함

- 다음으로, 고구마를 살펴보았으며, 월별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그림 3-18]와 같음
- 김제에서 수확되는 고구마의 재배면적은 2019년 558.99ha, 2020년 574.03ha으로 측정되었으며, 1ha당 고용 노동비는 2019년 384시간, 2020년 457시간으로 나타남
- 총 면적 노동비는 2019년 214,652.0시간, 2020년 262,332.0시간으로, 1인당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가정하고 농작업별 노동비를 활용하여 월별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산출하였음
- 정식기인 5월은 2019년 4,928명, 2020년 6,022명으로 고용되었으며, 수확기인 10월과 11월은 2019년의 경우 6,254명, 4,535명, 2020년에는 7,643명, 5,543명이 투입된 고용 노동력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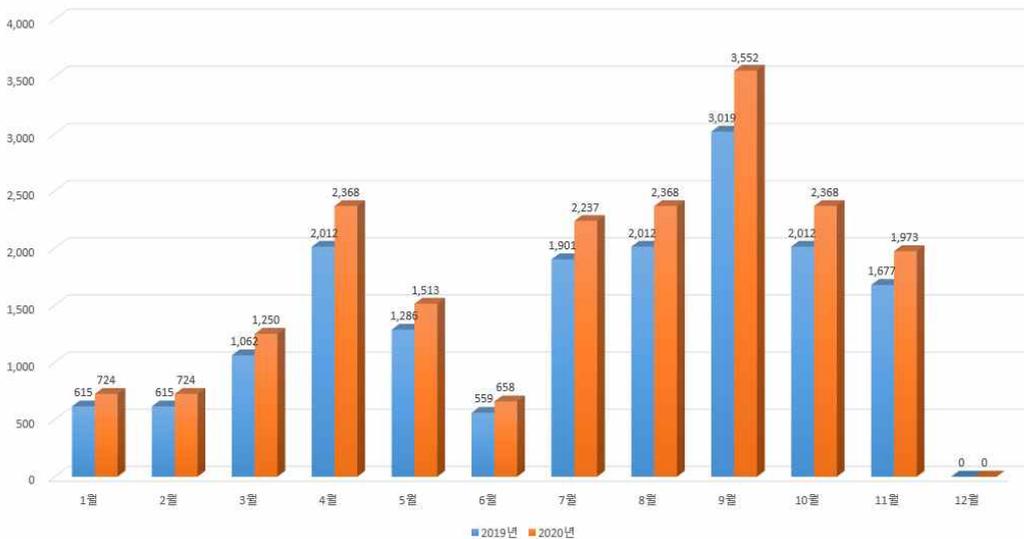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18] 시기별 김제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구마

- 고추의 재배면적은 2019년 464.24ha, 2020년 454.98ha이며, 1ha당 고용 노동비는 2019년 289시간, 2020년 347시간으로 나타남
- 총 면적 노동비는 2019년 134,165.4시간, 2020년 157,878.1시간으로 농작업별 노동비를 산출한 후, 1인당 1일 8시간 노동시간을 가정하여 월별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산출함
- 정식기인 4월과 5월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 2,012명과 1,286명, 2020년 2,368명과 1,513명으로 산출되었음
- 고추 수확기인 8월부터 10월의 고용된 노동력을 추정한 결과, 2019년의 경우, 월별 고용 노동력은 2,012명, 3,019명, 2,012명으로 나타남
- 2020년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368명, 3,552명, 2,368명으로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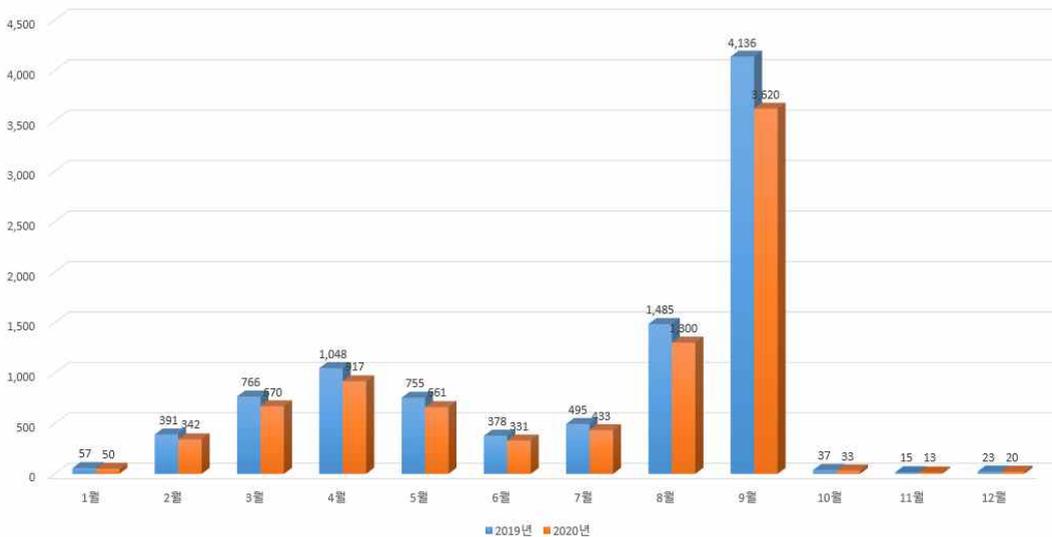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19] 시기별 김제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 포도 재배면적은 2019년 193.63ha, 2020년 184.52ha으로, 1ha당 고용 노동비가 2019년 396시간, 2020년 357시간인 포도의 총 면적 노동비는 2019년 76,677.48시간, 2020년 67,116.00시간임
- 1인당 하루 8시간 노동시간 가정 하에, 월별·작업별 노동비를 살펴보면, 전정과 묘목 심기가 이루어지는 3월에 투입되는 고용 노동력은 2019년 766명, 2020년 670명이었으며, 눈따기 작업시기인 4월과 5일은 2019년 1,048명과 755명, 2020년 917명과 661명으로 산출됨
- 수확 작업이 필요한 8월과 9월은 2019년 1,485명과 4,136명, 2020년 1,300명과 3,620명이 고용 노동력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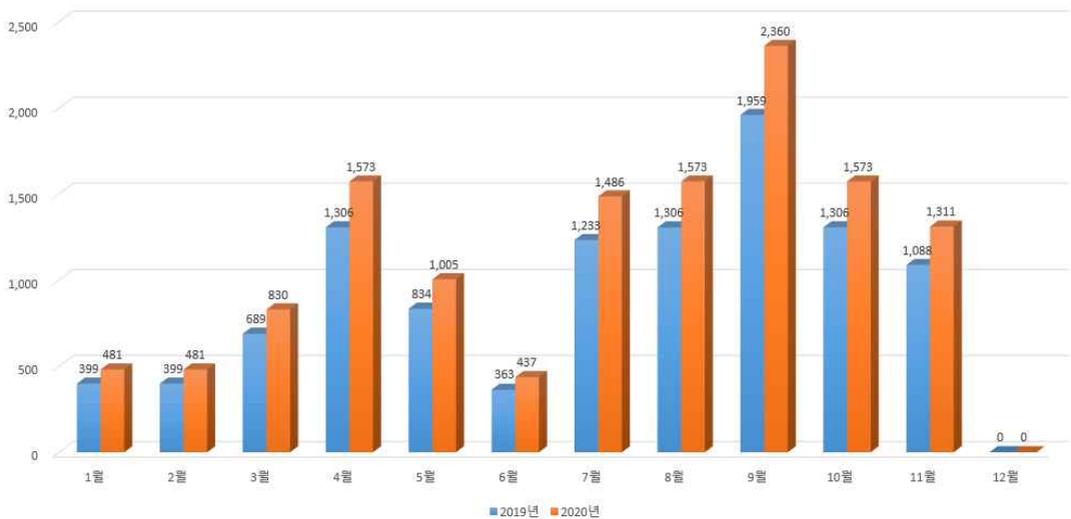


[그림 3-20] 시기별 김제시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포도

## ■ 완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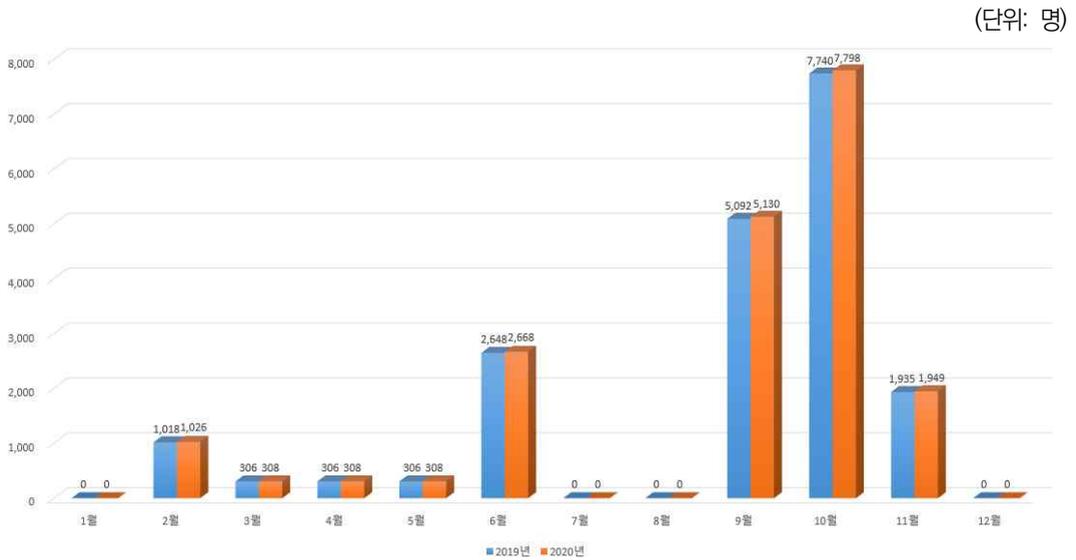
- 완주군의 주요 농작물은 고추, 양파, 딸기, 마늘로, 이들 작물 재배과정에서 작업별로 투입된 고용 노동력을 추정하였음
- 2019년 301.22ha와 2020년 302.29ha의 재배면적을 가진 고추의 1ha당 고용 노동비는 2019년 289시간, 2020년 347시간임
- 정식기인 4월과 5월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 1,306명과 834명, 2020년 1,573명과 1,005명이었음
- 수확기인 8월부터 10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살펴본 결과, 2019년의 경우, 1,306명, 1,959명, 1,306명이 수확작업에 고용되었으며, 2020년에는 1,573명, 2,360명, 1,573명의 고용 노동력이 투입되었음

(단위: 명)



[그림 3-21] 시기별 완주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 고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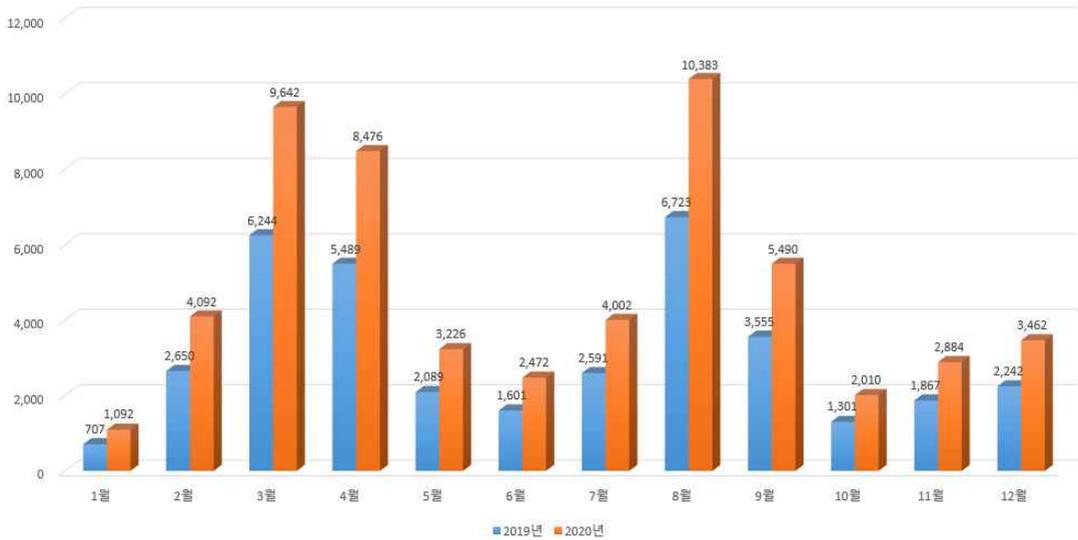
- 양파의 경우, 완주군의 재배면적은 2019년 280.96ha, 2020년 267.05ha으로, 1ha당 고용 노동비는 2019년 551시간, 2020년 584시간임
- 양파 파종작업이 진행되는 8월과 9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살펴보면, 2019년은 5,092명과 7,740명이었으며, 2020년은 5,130명, 7,798명으로 산출됨
- 6월 양파 수확기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 2,648명, 2020년 2,668명으로 나 타남



[그림 3-22] 시기별 완주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양파

- 완주 딸기의 재배면적은 2019년 203.90ha, 2020년 201.87ha으로, 1ha당 고용 노동비는 년 1기작 시 2019년 1,454시간, 2020년 2,268시간임
- 총 노동설계에서 작업별 투입되는 노동비를 바탕으로 산출된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8월 가식 작업의 경우, 2019년 6,273명, 2020년 10,383명이었음
- 3월과 4월에 딸기를 수확하기 위해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의 경우 6,244명과 5,489명이었으며, 2020년은 9,642명, 8,476명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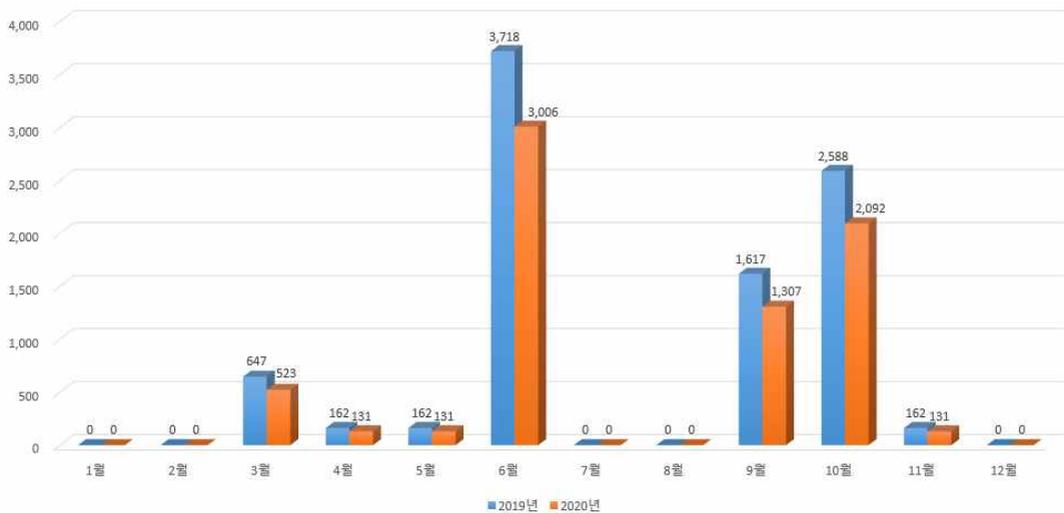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23] 시기별 완주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딸기

- 마늘의 재배면적은 2019년 137.45ha, 2020년은 142.25ha으로, 1ha당 고용 노동비는 2019년 527시간, 2020년 475시간이었음
- 영농순기표에 따르면, 마늘은 9월 파종을 시작으로 10월과 11월 짚/비닐덮기, 2월과 3월 짚걷기, 5월과 6월 쫓제거, 6월 수확 과정으로 재배됨
- 파종과 짚/비닐덮기 작업을 하는 10월과 11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의 경우 1,617명, 2,588명이었으며, 2020년은 1,307명, 2,092명으로 산출됨
- 마늘을 수확하는 6월에 고용된 노동력은 2019년 3,718명, 2020년 3,006명으로 추정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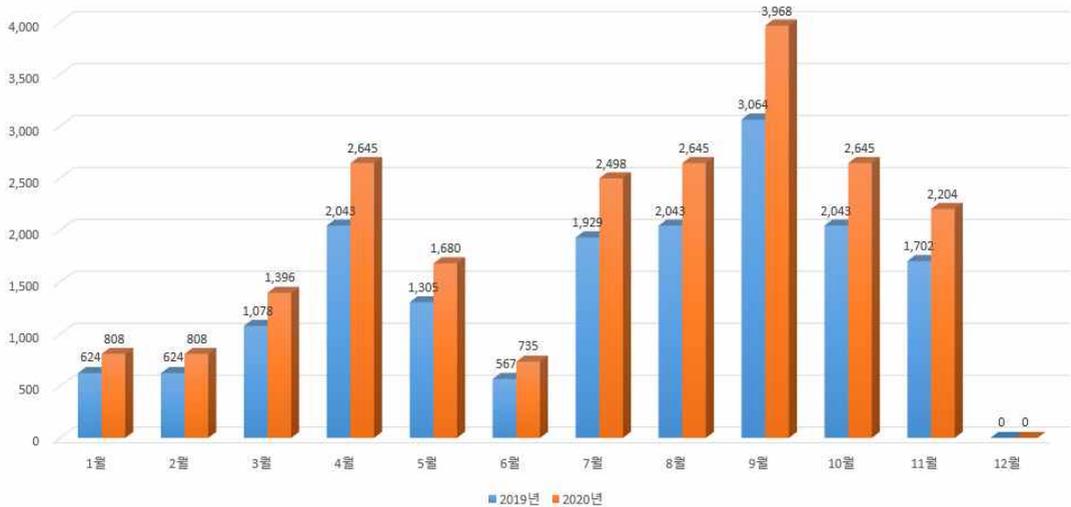


[그림 3-24] 시기별 완주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마늘

## ■ 진안군

- 진안군 고추 재배면적은 2019년 471.27ha, 2020년 508.19ha으로, 2019년 1ha당 고용 노동비는 289시간, 2020년은 347임
- 4월과 5월 정식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 경우, 2,043과 1,305명이었으며, 2020년은 2,645명과 1,680명으로 산출되었음
- 수확이 이루어지는 8월부터 10월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에 2,043명, 3,064명, 2,043명으로 추정되었으며, 2020년은 2,645명, 3,968명, 2,645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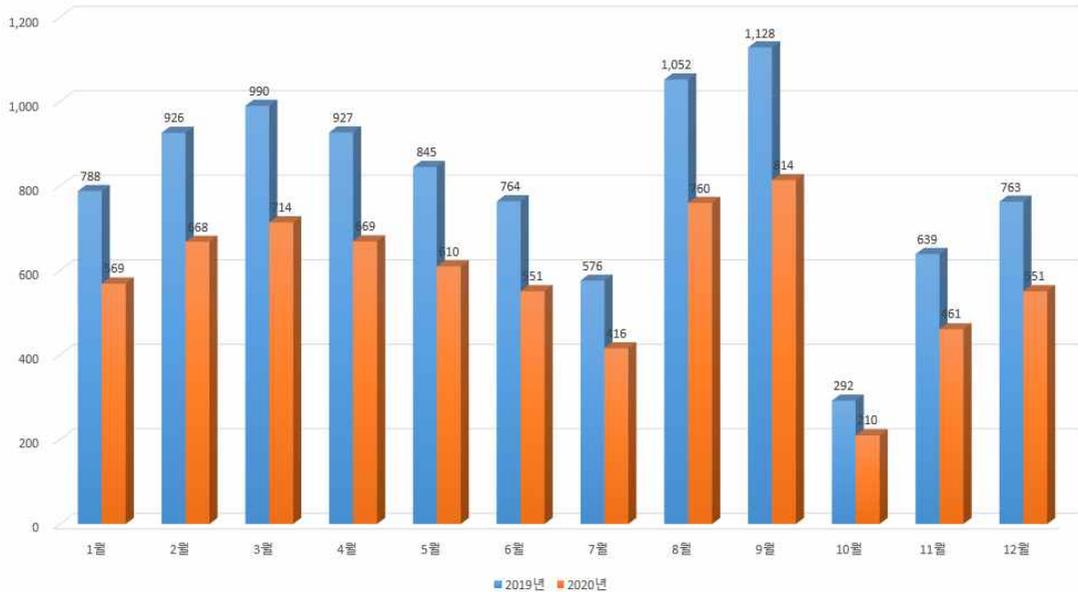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25] 시기별 진안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 진안 사과 2019년 재배면적은 131.37ha이었으며 1ha기준으로 년 1기작 시 고용 노동비는 590시간이며, 2020년 재배면적은 122.69ha, 고용 노동비는 456시간이었음
- 사과의 영농순기표를 살펴보면, 1월부터 3월은 정지 전정, 3월과 4월은 묘목심기, 고 접갱신, 4월과 5월은 적화·인공수분, 6월 적과, 봉지씌우기, 6월부터 8월 여름 전정, 8월과 9월 수확, 11월과 12월 밑거름과 묘목심기 순으로 농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과가 수확되는 8월과 9월에 투입되는 고용 노동력을 살펴보면, 2019년은 1,052명, 1,12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2020년은 760명, 814명으로 추정됨
- 그 외 농작업에 고용된 인원 추정량을 [그림 3-26]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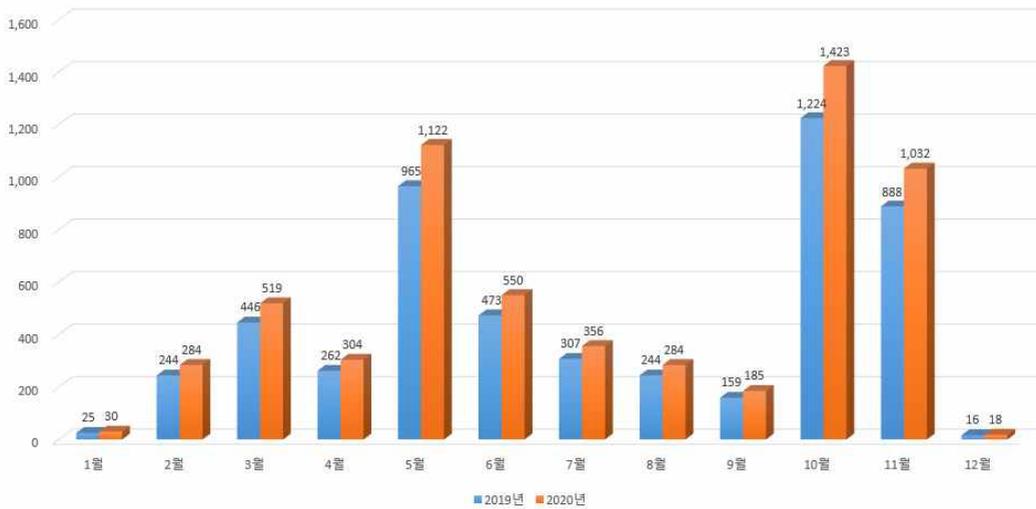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26] 시기별 진안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사과

- 2019년과 2020년 진안군 고구마 재배에 투입된 월별 고용 노동력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3-27]과 같음
- 2019년 재배면적은 109.43ha, 2020년은 109.60ha이었으며, 1ha 기준으로 년 1기 작 시 고용 노동비는 2019년 384시간, 2020년 457시간으로 나타남
- 정식 기간인 5월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 965명, 2020년 1,122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수확기간인 10월과 11월은 2019년 1,224명과 888명, 2020년 1,473명, 1,032명으로 나타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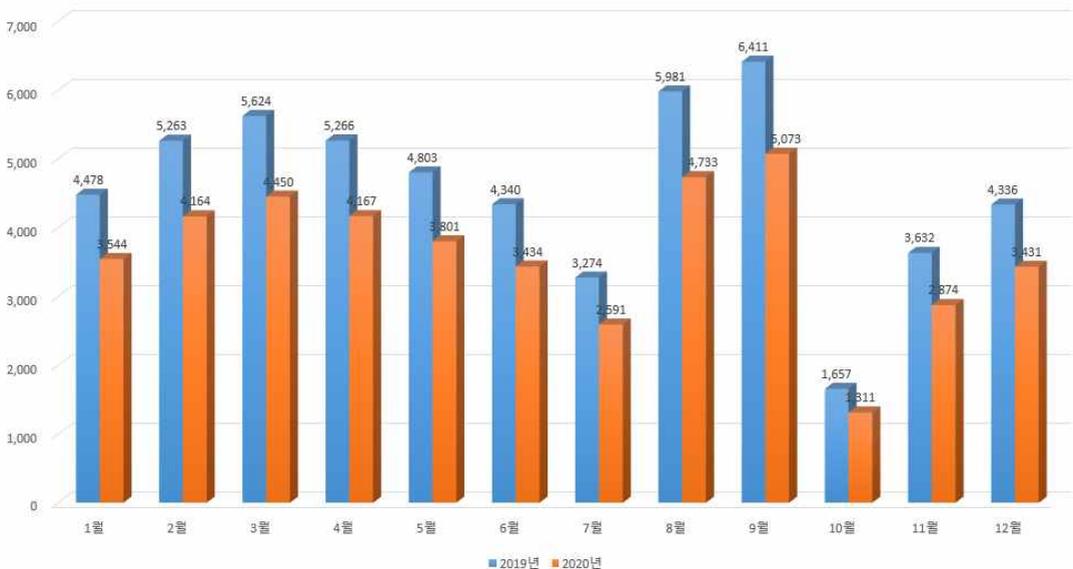


[그림 3-27] 시기별 진안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고구마

## ■ 무주군

- 무주군의 주요 품목은 사과, 고추, 복숭아 등으로 이들 재배과정에서 월별로 투입된 고용 노동력을 총 면적 노동비와 작업별 노동비를 활용하여 추정하였음
- 사과의 재배면적은 2019년 746.66ha, 2020년 764.43ha으로, 1ha 기준으로 년 1기 작 시 2019년 고용 노동비는 590시간이었으며, 2020년은 456시간이었음
- 정지 전정, 묘목심기, 고접갱신 등 작업이 진행되는 2월, 3월, 4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5,263명, 5,624명, 5,266명으로 산출되었으며, 2020년은 4,164명, 4,450명, 4,167명으로 나타남
- 수확기인 8월과 9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에는 5,981명, 6,411명이었으며, 2020년은 4,733명, 5,073명으로 추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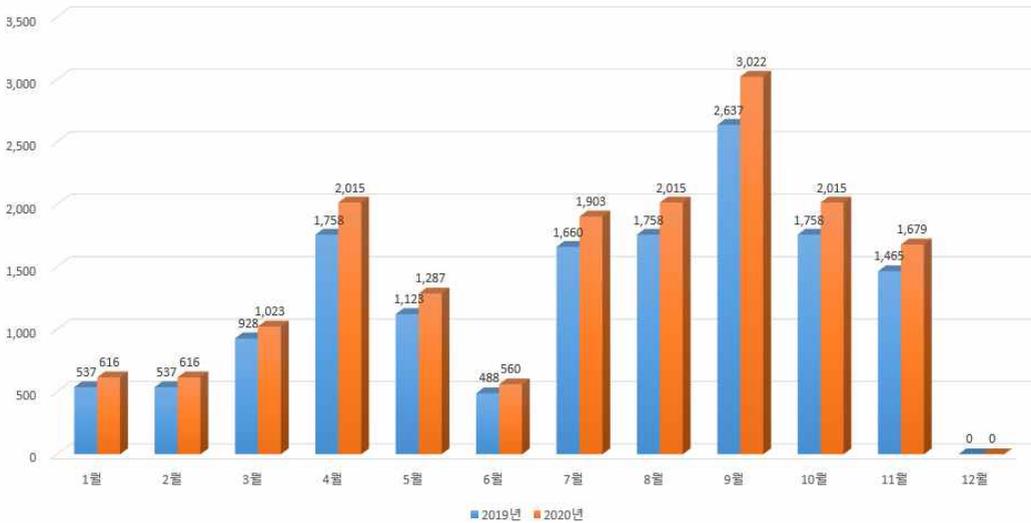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28] 시기별 진안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사과

- 고추의 월별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살펴보면, 무주 재배면적은 2019년 405.56ha, 2020년 387.10ha이었음
- 고추의 고용 노동비는 1ha당 2019년은 289시간, 2020년은 347시간이었으며, 년 1기작 기준임
- 정식기인 4월과 5월을 살펴보면, 2019년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각각 1,758명, 1,123명이었으며, 2020년은 2,015명, 1,287명으로 산출되었음
- 수확기 8월부터 10월까지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의 경우, 1,758명, 2,637명, 1,758명으로 각각 추정되었으며, 2020년은 2,015명, 3,022명, 2,015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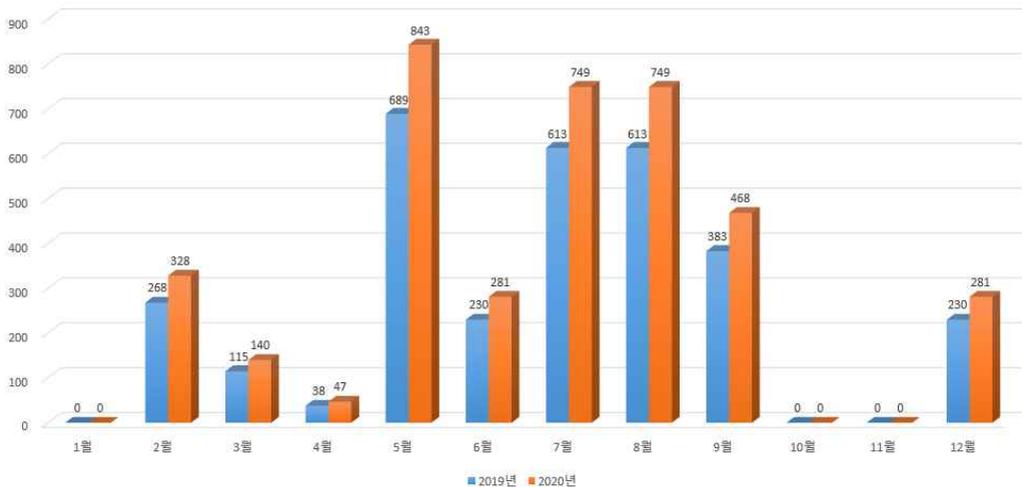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29] 시기별 무주군 고추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 복숭아의 년 1기작 기준으로 고용 노동비는 2019년 232시간, 2020년 265시간이었으며, 무주군의 복숭아 재배면적은 2019년 109.60ha, 2020년 117.31ha로 측정되었음
- 총 면적 노동비는 2019년 25,427.2시간, 2020년 31,087.15시간으로 산출되었으며, 1인이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작업 노동비를 고려한 월별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그림 3-30]과 같음
- 복숭아 열매 수확주기 작업 시기인 5월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 689명, 2020년 843명으로 추정됨
- 수확인 시작되는 7월부터 만생종을 수확하는 9월까지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산출한 결과, 2019년은 7월 613명, 8월 613명, 9월 383명이었으며, 2020년은 각각 749명, 749명, 468명이었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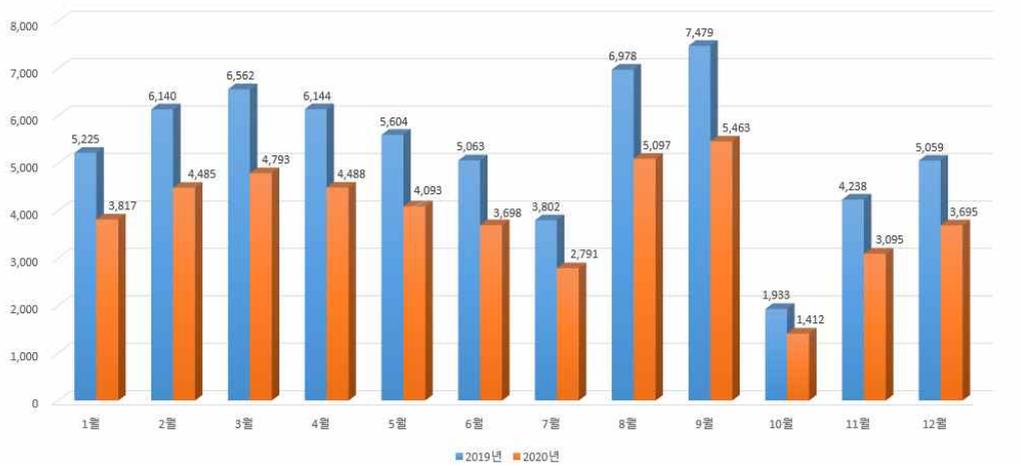


[그림 3-30] 시기별 무주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복숭아

## ■ 장수군

- 년 1기작 기준으로 고용 노동비가 2019년 590시간, 2020년 456시간인 사과와 사과 재배면적은 2019년 871.11ha, 2020년 823.30ha로 추정됨
- 사과 재배기간 동안 투입된 고용 노동력을 계산하는데 1인당 1일 8시간 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 작업별 노동비를 고려하여 월별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그림 3-31]과 같음
- 정지 전정, 묘목심기, 고접갱신 등 작업을 하는 2월부터 4월까지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의 경우, 6,140명, 6,562명, 6,144명이었으며, 2020년은 4,485명, 4,793명, 4,488명으로 추정됨
- 수확기인 8월과 9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에는 6,978명, 7,479명이었으며, 2020년은 5,097명, 5,463명으로 추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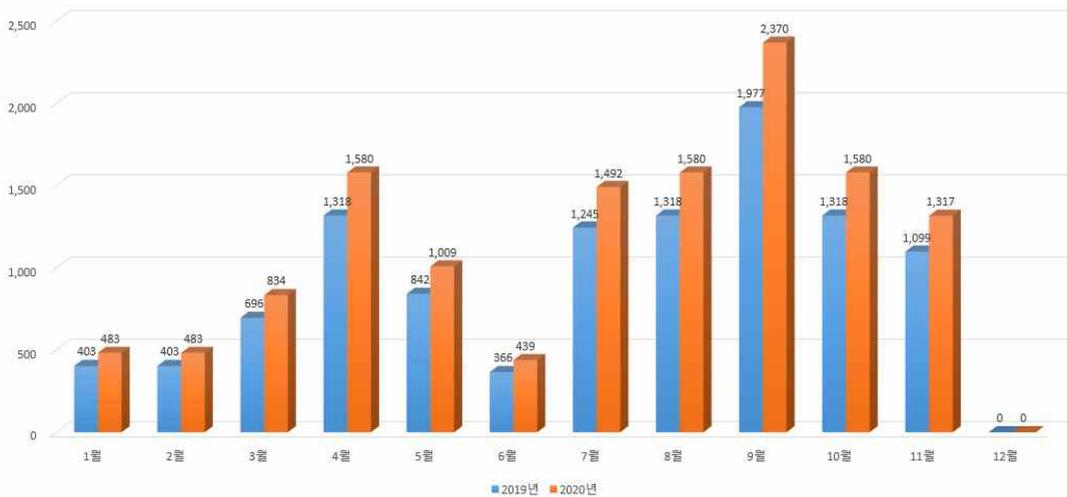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31] 시기별 장수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사과

- 고추의 1ha당 고용 노동비는 2019년 289시간, 2020년 347시간으로, 장수군의 재배 면적은 2019년 304.11ha, 2020년 303.56ha이었음
- 총 면적 노동비는 2019년 87,887.79시간, 2020년 105,335.30시간이었으며, 월별·작업별 노동비를 고려하여 월별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표 3-32]와 같음
- 정식 작업이 진행되는 4월과 5월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의 경우 1,318명과 842명으로 추정되었으며, 2020년은 1,580명과 1,009명이었음
- 수확시기인 8월부터 10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 1,318명, 1,977명, 1,318명이었으며, 2020년은 1,580명, 2,370명, 1,580명으로 산출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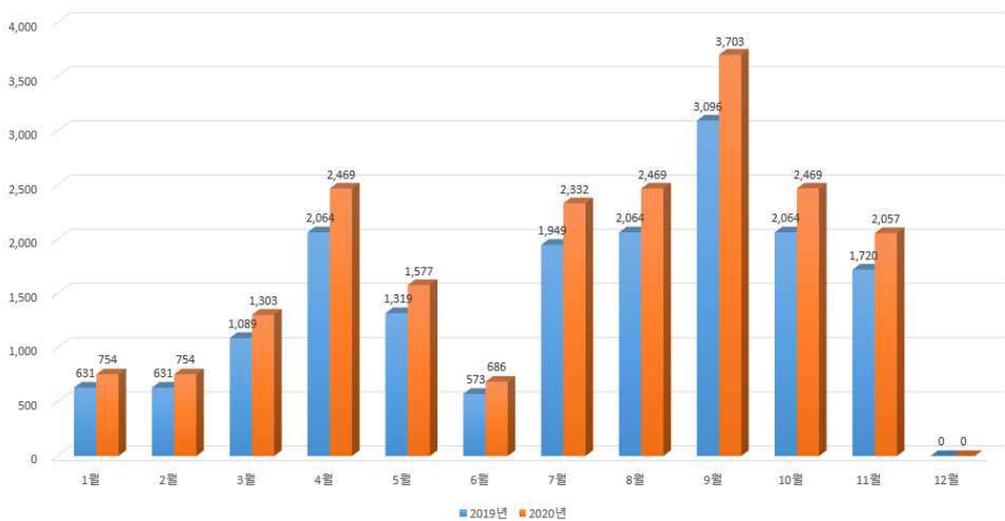


[그림 3-32] 시기별 장수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 ■ 임실군

- 임실군 고추 재배면적은 2019년 476.14ha, 2020년 474.35ha으로 측정되었으며, 1ha당 고용 노동비는 2019년 289시간, 2020년 347시간이었음
- 4월과 5월 정식작업에 투입되는 고용 노동력은 2019년의 경우 2,064명과 1,319명이었으며, 2020년은 2,469명과 1,577명으로 추정됨
- 영농순기표상 수확기인 8월, 9월, 10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 2,064명, 3,096명, 2,064명으로 산출되었으며, 2020년은 2,469명, 3,703명, 2,469명이 고용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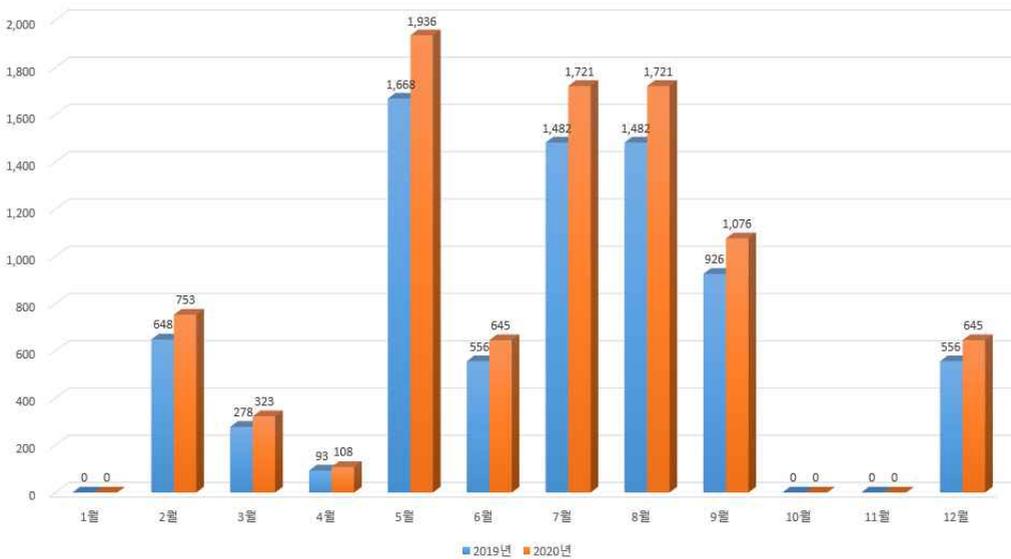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33] 시기별 임실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 임실군의 복숭아의 재배면적은 2019년 265.15ha, 2020년 269.56ha이었으며, 년 1기작 기준 1ha당 고용 노동비는 2019년 232시간, 2020년 265시간으로 나타남
- 복숭아 열매 숙아주기 작업을 하는 5월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 1,668명, 2020년 1,936명으로 산출됨
- 수확작업이 시작되는 7월부터 만생종을 수확하는 9월까지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의 경우 1,482명, 1482명, 926명으로 추정됨
- 2020년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7월 1,721명, 8월 1,721명, 9월 1,076명으로 추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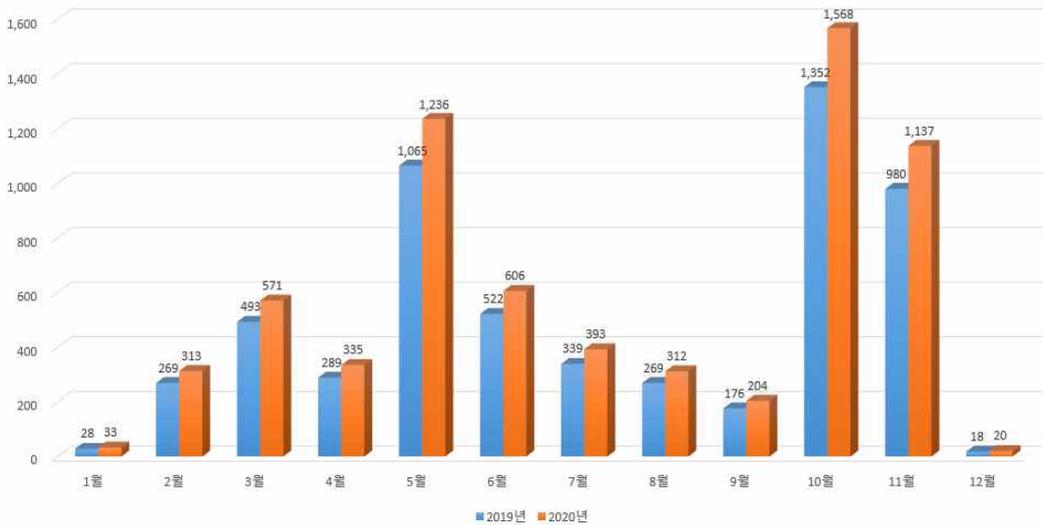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34] 시기별 임실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복숭아

- 고구마의 1ha당 고용 노동비는 2019년 384시간, 2020년 457시간이며, 임실군의 재배면적은 2019년 129.84ha, 2020sus 117.79ha으로 측정됨
- 총 면적 노동비는 2019년 46,043.0시간, 53,830시간이었으며, 작업별 노동비를 추산하는데 1인당 일 8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하였음
- 정식 시기인 5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 1,065명, 2020년 1,236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수확을 하는 10월과 11월은 2019년의 경우 1,352명, 980명으로 추정됨
- 2020년의 경우, 10월과 11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1,568명과 1,137명이었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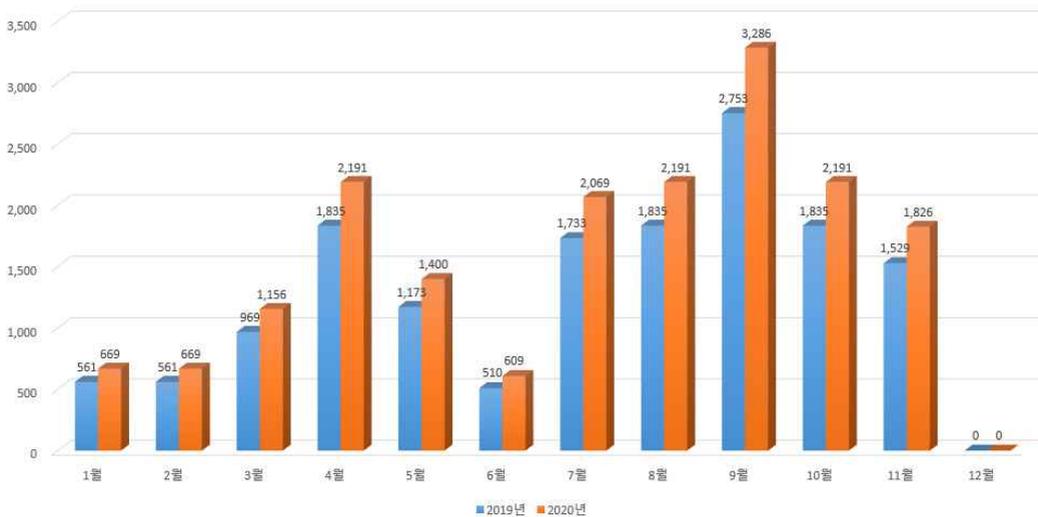
[그림 3-35] 시기별 임실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고구마

○

## ■ 순창군

- 1ha당 고용 노동비가 2019년 289시간, 2020년 347시간인 고추의 재배면적은 2019년 423.39ha, 2020년 420.88ha으로 측정됨
- 재배순기 상 정식시기인 4월과 5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의 경우 1,835명과 1,173명으로 산출되었으며, 2020년은 각각 2,191명과 1,400명이었음
- 수확작업이 이루어지는 8월부터 10월에는 2019년 경우, 1,835명, 2,753명, 1,835명으로 추정되었으며, 2020년은 2,191명, 3,286명, 2,191명으로 나타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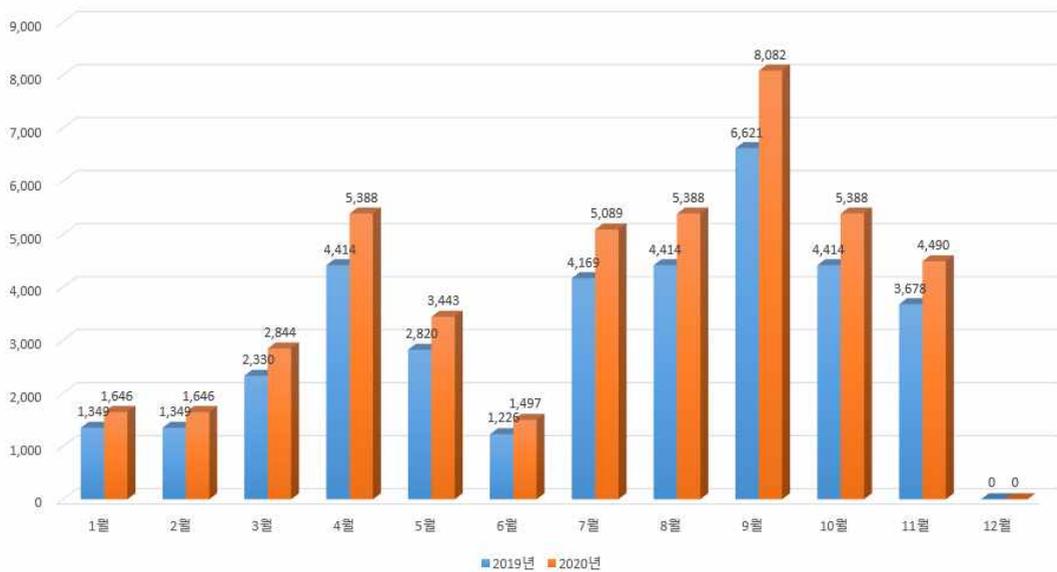


[그림 3-36] 시기별 순창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 ■ 고창군

- 2019년 고추 재배면적은 1,018.25ha이었으며, 2020년은 1,035.21ha으로 추정됨
- 1ha당 고용 노동비는 2019년 289시간, 2020년 347시간임
- 정식기인 4월과 5월의 고용 노동력은 2019년에 4,414명과 2,820명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20년은 5,388명, 3,443명으로 산출되었음
- 수확작업이 진행되는 8월부터 10월까지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표 3-37]과 같이, 2019년은 4,414명, 6,621명, 4,414명이었으며, 2020년은 5,388명, 8,082명, 5,388 명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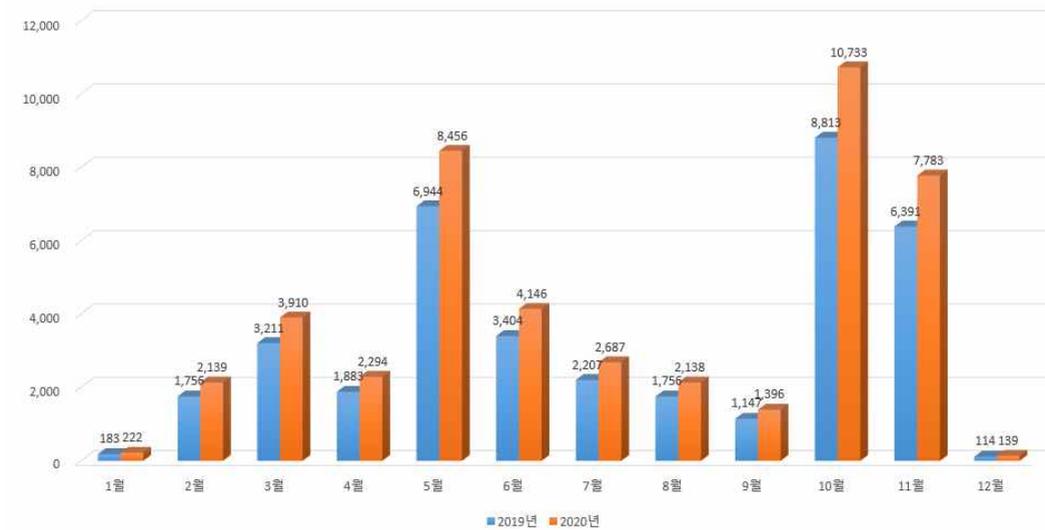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37] 시기별 고창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 고창군 고구마 재배면적은 2019년 787.68ha, 2020년 806.02ha으로 측정되었으며, 고구마의 1ha당 고용 노동비는 2019년 384시간, 2020년 457시간임
- 영농순기에 따르면, 정식 작업을 하는 5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 6,944명, 2020년 8,456명으로 추정됨
- 수확 작업기인 10월과 11월은 2019년의 경우, 8,813명과 6,391명으로 산출되었으며, 2020년은 10,733명과 7,783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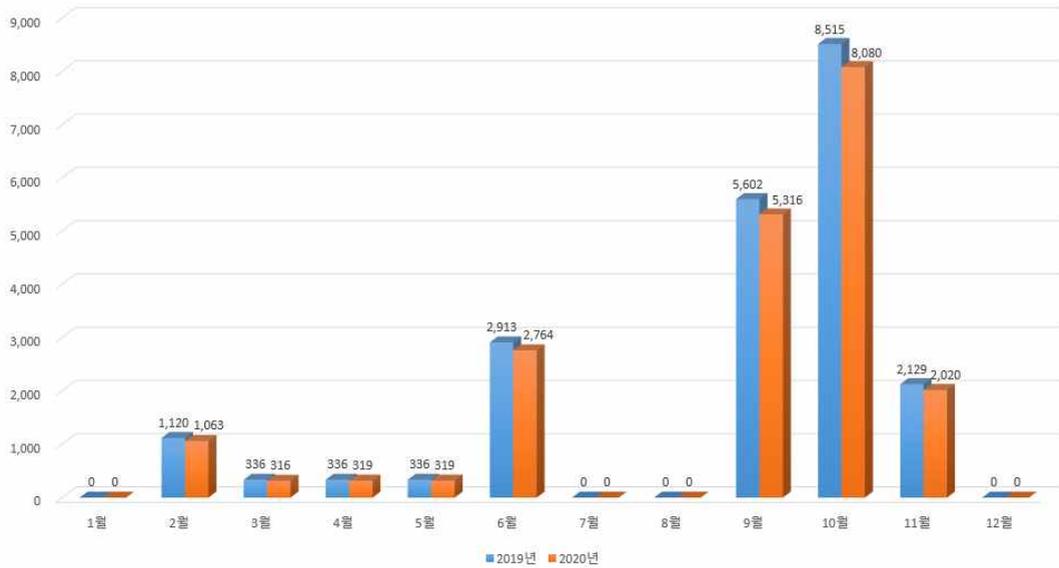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38] 시기별 고창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고구마

- 고창군의 양파 재배면적은 2019년 309.07ha, 2020년 276.70ha이며, 년 1기작 기준으로 1ha당 고용 노동비는 2019년 551시간, 2020년 584시간임
- 영농순기표상 파종과 정식기인 9월과 10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살펴보면, 2019년은 각각 5,602명, 8,515명이었으며, 2020년은 5,316명, 8,080명으로 추정됨
- 수확 작업이 진행되는 6월의 경우, 2019년에는 2,913명이 고용되었으며, 2020년은 2,764명이 고용되어 투입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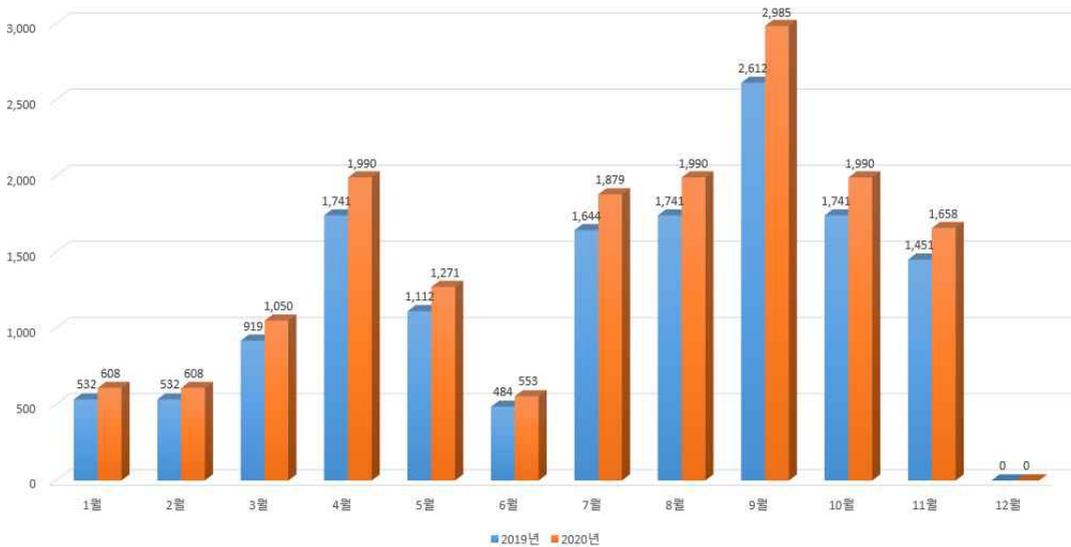


[그림 3-39] 시기별 고창군 노동 투입량 추정 : 양파

## ■ 부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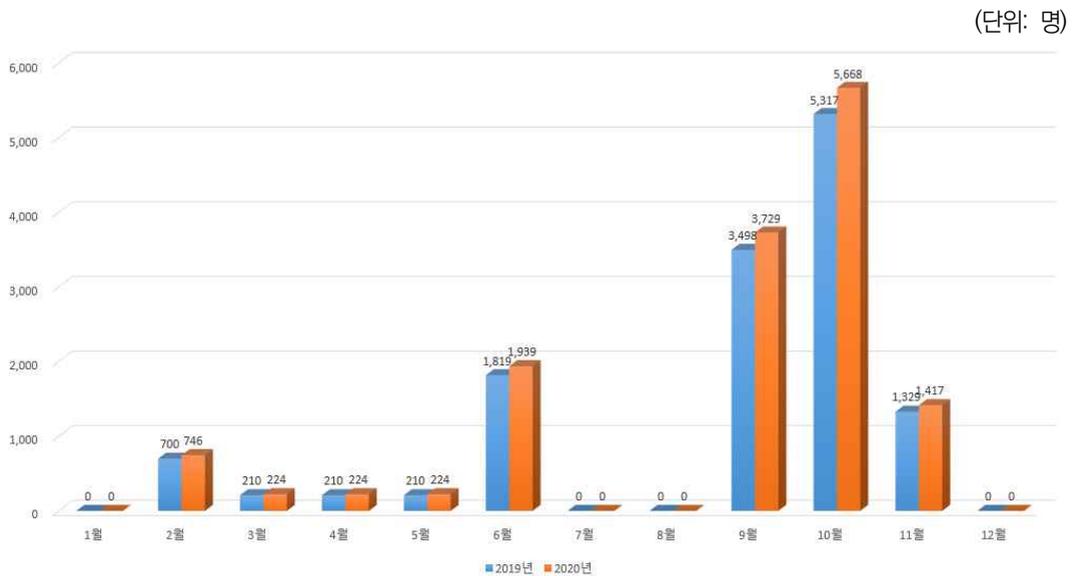
- 부안군의 고추 재배면적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401.62ha와 382.32ha이었으며, 년 1기작 기준 1ha 고용 노동비는 2019년 289시간, 2020년 347시간이었음
- 정식 기간인 4월과 5월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을 살펴보면, 2019년은 1,741명과 1,112명이었으며, 2020년은 1,990명, 1,271명으로 추정됨
- 수확기인 8월에서 10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 1,741명, 2,612명, 1,741명으로 산출되었으며, 2020년은 1,990명, 2,985명, 1,990명이었음

(단위: 명)



[그림 3-40] 시기별 부안군 고용 노동력 투입량 추정 : 고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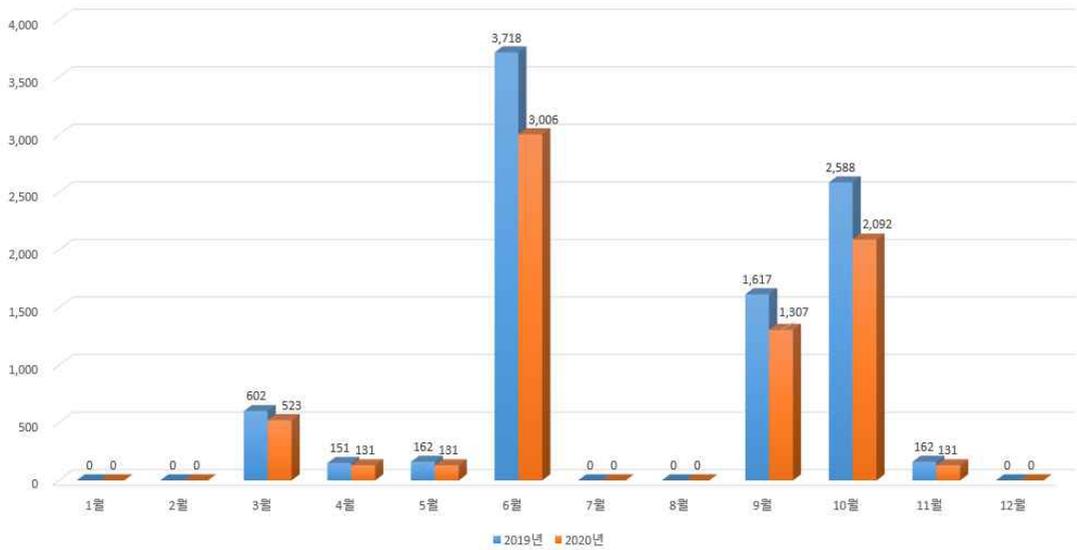
- 양파의 1ha 고용 노동비는 2019년 551시간, 2020년 584시간이며, 부안군의 재배면적은 192.99ha, 2020년 194.10ha이었음
- 10월과 11월 정식기에 투입된 고용 노동력은 2019년 3,498명과 5,317명이었으며, 2020년은 3,279명, 5,668명으로 추정됨
- 양파를 수확하는 6월은 2019년에 1,819명, 2020년에 1,939명이 고용 노동력이 투입된 것으로 산출되었음



[그림 3-41] 시기별 부안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양파

- 년 1기작 기준으로 1ha당 마늘의 고용 노동비는 2019년 527시간, 2020년 475시간이었으며, 2019년과 2020년 재배면적은 각각 127.96ha, 123.29ha로 측정됨
- 파종기인 9월과 10월에 투입되는 고용 노동력은 2019년의 경우, 1,617명과 2,588명으로 추정되었으며, 2020년은 1,307명, 2,092명이었음
- 수확기인 6월의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 3,718명, 2020년 3,006명으로 산출되었음

(단위: 명)



[그림 3-42] 시기별 부안군 고용 노동 투입량 추정 : 마늘

[표 3-3] 월별 고용 노동력 투입량(지역 및 작물)

시·군	작목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주	복숭아	'19	0	521	233	74	1,339	446	1,190	1,190	744	0	0	446
		'20	0	570	244	81	1,466	489	1,303	1,303	815	0	0	489
	배	'19	705	846	880	847	762	678	489	941	1,009	251	534	677
		'20	565	678	706	679	611	544	392	754	809	201	420	543
익산	고구마	'19	175	1,687	3,084	1,809	6,671	3,720	2,120	1,687	1,101	8,466	6,139	110
		'20	217	2,090	3,821	2,241	8,264	4,051	2,626	2,090	1,365	10,488	7,606	136
	고추	'19	440	440	759	1,438	919	400	1,359	1,438	2,158	1,438	1,199	0
		'20	520	520	899	1,703	1,088	473	1,608	1,703	2,554	1,703	1,419	0
	딸기	'19	663	2,484	5,853	5,145	1,958	1,501	2,429	6,303	3,333	1,220	1,751	2,101
		'20	1,013	3,797	8,947	7,865	2,993	2,294	3,713	9,634	5,094	1,865	2,676	3,212
	양파	'19	0	384	115	115	115	998	0	0	1,919	2,917	729	0
		'20	0	425	128	128	128	1,106	0	0	2,127	3,234	808	0
정읍	양파	'19	0	3,208	962	962	962	8,340	0	0	16,038	24,378	6,094	0
		'20	0	3,417	1,025	1,025	1,025	8,883	0	0	17,083	25,966	6,492	0
	고추	'19	1,113	1,113	1,922	3,641	2,327	1,012	3,439	3,641	5,462	3,461	3,035	0
		'20	1,351	1,351	2,334	4,422	2,825	1,228	4,176	4,422	6,633	4,422	3,685	0
	고구마	'19	57	551	1,007	591	2,177	1,067	692	551	360	2,763	2,004	36
		'20	74	713	1,303	764	2,818	1,381	895	712	465	3,576	2,593	46

시·군	작목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원	고추	'19	631	631	1,089	2,064	1,319	573	1,949	2,064	3,096	2,064	1,720	0
		'20	754	754	1,303	2,469	1,577	686	2,332	2,469	3,703	2,469	2,057	0
	포도	'19	119	818	1,602	2,192	1,579	791	1,035	3,107	8,653	78	32	47
		'20	108	742	1,454	1,989	1,433	718	939	2,189	7,852	71	29	43
	복숭아	'19	0	906	388	129	2,330	777	2,071	2,071	1,294	0	0	777
		'20	0	1,061	455	152	2,729	910	2,426	2,426	1,516	0	0	910
	감자	'19	0	932	1,528	326	764	552	2,243	401	0	0	0	0
		'20	0	1,552	2,545	543	1,272	919	3,736	667	0	0	0	0
	사과	'19	1,095	1,287	1,375	1,288	1,175	1,061	801	1,463	1,568	405	888	1,060
		'20	855	1,005	1,074	1,006	917	829	625	1,142	1,224	316	694	828
고구마	'19	30	292	533	313	1,153	565	366	292	190	1,463	1,061	19	
	'20	38	364	666	390	1,440	706	457	364	238	1,827	1,325	24	
김제	감자	'19	0	1,533	2,514	537	1,257	907	3,690	659	0	0	0	0
		'20	0	2,671	4,380	935	2,189	1,581	6,430	1,148	1	0	0	0
	고구마	'19	130	1,246	2,279	1,337	4,928	2,416	1,566	1,246	814	6,254	4,535	81
		'20	158	1,523	2,785	1,634	6,022	2,953	1,914	1,523	994	7,643	5,543	99
	고추	'19	615	615	1,062	2,012	1,286	559	1,901	2,012	3,019	2,012	1,677	0
		'20	724	724	1,250	2,368	1,513	658	2,237	2,368	3,552	2,368	1,973	0
	포도	'19	57	391	766	1,048	755	378	495	1,485	4,136	37	15	23
		'20	50	342	670	917	661	331	433	1,300	3,620	33	13	20

시·군	작목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완주	고추	'19	399	399	689	1,306	834	363	1,233	1,306	1,959	1,306	1,088	0
		'20	481	481	830	1,573	1,005	437	1,486	1,573	2,360	1,573	1,311	0
	양파	'19	0	1,018	306	306	306	2,648	0	0	5,092	7,740	1,935	0
		'20	0	1,026	308	308	308	2,668	0	0	5,130	7,798	1,949	0
	딸기	'19	707	2,650	6,244	5,489	2,089	1,601	2,591	6,723	3,555	1,301	1,867	2,242
		'20	1,092	4,092	9,642	8,476	3,226	2,472	4,002	10,383	5,490	2,010	2,884	3,462
	마늘	'19	0	0	647	162	162	3,718	0	0	1,617	2,588	162	0
		'20	0	0	523	131	131	3,006	0	0	1,307	2,092	131	0
진안	고추	'19	624	624	1,078	2,043	1,305	567	1,929	2,043	3,064	2,043	1,702	0
		'20	808	808	1,396	2,645	1,680	735	2,498	2,645	3,968	2,645	2,204	0
	사과	'19	788	926	990	927	845	764	576	1,052	1,128	292	639	763
		'20	569	668	714	669	610	551	416	760	814	210	461	551
	고구마	'19	25	244	446	262	965	473	307	244	159	1,224	888	16
		'20	30	284	519	304	1,122	550	356	284	185	1,423	1,032	18
무주	사과	'19	4,478	5,263	5,624	5,266	4,803	4,340	3,274	5,981	6,411	1,657	3,632	4,336
		'20	3,544	4,164	4,450	4,167	3,801	3,434	2,591	4,733	5,073	1,311	2,874	3,431
	고추	'19	537	537	928	1,758	1,123	488	1,660	1,758	2,637	1,758	1,465	0
		'20	616	616	1,023	2,015	1,287	560	1,903	2,015	3,022	2,015	1,679	0
	복숭아	'19	0	268	115	38	689	230	613	613	383	0	0	230
		'20	0	328	140	47	843	281	749	749	468	0	0	281

시·군	작목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수	사과	'19	5,225	6,140	6,562	6,144	5,604	5,063	3,802	6,978	7,479	1,933	4,238	5,059
		'20	3,817	4,485	4,793	4,488	4,093	3,698	2,791	5,097	5,463	1,412	3,095	3,695
	고추	'19	403	403	696	1,318	842	366	1,245	1,318	1,977	1,318	1,099	0
		'20	483	483	834	1,580	1,009	439	1,492	1,580	2,370	1,580	1,317	0
임실	고추	'19	631	631	1,089	2,064	1,319	573	1,949	2,064	3,096	2,064	1,720	0
		'20	754	754	1,303	2,469	1,577	686	2,332	2,469	3,703	2,469	2,057	0
	복숭아	'19	0	648	278	93	1,668	556	1,482	1,482	926	0	0	556
		'20	0	753	323	108	1,936	645	1,721	1,721	1,076	0	0	645
	고구마	'19	28	269	493	289	1,065	522	339	269	176	1,352	980	18
		'20	33	313	571	335	1,236	606	393	312	204	1,568	1,137	20
순창	고추	'19	561	561	969	1,835	1,173	510	1,733	1,835	2,753	1,835	1,529	0
		'20	669	669	1,156	2,191	1,400	609	2,069	2,191	3,286	2,191	1,826	0
고창	고추	'19	1,349	1,349	2,330	4,414	2,820	1,226	4,169	4,414	6,621	4,414	3,678	0
		'20	1,646	1,646	2,844	5,388	3,443	1,497	5,089	5,388	8,082	5,388	4,490	0
	고구마	'19	183	1,756	3,211	1,883	6,944	3,404	2,207	1,756	1,147	8,813	6,391	114
		'20	222	2,139	3,910	2,294	8,456	4,146	2,687	2,138	1,396	10,733	7,783	139
	양파	'19	0	1,120	336	336	336	2,913	0	0	5,602	8,515	2,219	0
		'20	0	1,063	316	319	319	2,764	0	0	5,316	8,080	2,020	0
부안	고추	'19	532	532	919	1,741	1,112	484	1,644	1,741	2,612	1,741	1,451	0
		'20	608	608	1,050	1,990	1,271	553	1,879	1,990	2,985	1,990	1,658	0
	양파	'19	0	700	210	210	210	1,819	0	0	3,498	5,317	1,329	0
		'20	0	746	224	224	224	1,939	0	0	3,729	5,668	1,417	0
	마늘	'19	0	0	602	151	162	3,718	0	0	1,617	2,588	162	0
		'20	0	0	523	131	131	3,006	0	0	1,307	2,092	131	0

## 2.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경로

### 가.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경로 및 운용

#### ■ 사적 관계망과 전문작업단

- 개인의 사적 사회관계망에서 고용 노동력은 농번기의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여 공동체의 사적 관계를 통해 지역주민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음
- 인구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농촌에서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일용 노동력 확보가 인근 마을에서 어려워지면서 읍·면을 넘어 시·군에서 인력을 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전라북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일손돕기 평균 시간의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2010년 46.1시간에서 2017년 23.1시간으로, 절반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 전라북도 일손돕기 시간 변화

(단위: 시간)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7
일손돕기	46.1	27.9	18.2	19.9	23.1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각년도)

- 농번기 농업 노동 수요에 따라 이동하는 농업 노동력 집단인 '전문작업단'은 노지 채소 주산지에서 주로 활동하며, 전문작업단의 고용 노동력은 비공식적인 계약관계를 기초로 공급됨(김정섭 외, 2014)<sup>29)</sup>
- 수요자와 농업 노동력의 연결과정에서 알선·소개자를 통해 작업단 팀장과 전문 인력이 해당 농가에서 일하는 비공식적인 농업 고용 공급경로는 농업 노동력 공급 경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 작업량과 유형에 따라 반장 또는 팀장, 5명에서 20여명 반·팀원으로 구성된 전문작업

29) 김정섭·오내원·허주녕(2014). 농업 고용 노동력 수급 실태와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단은 반·팀원의 이동과 모집, 현장의 작업 관리가 반·팀장의 주 역할이 됨(농정연구센터, 2016)<sup>30)</sup>

## ■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위탁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 고용센터 중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됨
- 일부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농촌 농업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sup>31)</sup>’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함
  - 경북 울진(2017), 충남 보령시(2019), 충북 영동군(2019), 경북 예천군(2019), 경북 문경시(2020), 전북 익산시(2020), 전남 화천군(2021), 충북 제천(2021), 충남 괴산군(2021), 경기도 양주시(2021), 강원도 정선군(2021), 충북 옥천군(2021), 충남 서산시(2021), 충남 부여군(2021), 전남 순천시(2022)
  -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 취약계층의 연결을 통한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일손 취약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2021년 3월 기준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020년 219개소보다 20개소가 확대 설치되어 239개소로, 정부지원 센터는 130개소, 지자체지원 센터는 109개소임
- 농협중앙회가 주도하여 전국 농협 지부에 설치된 ‘농협농촌인력중개센터’는 유·무상 인력을 중개해주고 있음

## ■ 외국인근로자 공식 공급경로

- 1993년 11월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에 제정되면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단순기능인력을 고용하게 됨(김정섭 외, 2014)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부문에 취업이 가능한 비전문취업비자(E-9)

30) 농정연구센터(2016). 농업 분야 인력용역회사 활성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1) 농업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으로 쓰임

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하며, 사업주 요청 시 재고용이 가능함

- 2009년부터 1년 10개월 범위에서 사용자가 재고용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재고용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재입국을 위해 6개월에서 3개월로 재입국 제한기간을 단축시키며, 특별 한국어시험을 통해 입국할 수 있게 됨(엄진영 외, 2017)<sup>32)</sup>
- 농·어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제는 2015년 충북 괴산군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2019년 12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격(E-8)이 신설되었으며, 농·어가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90일에서 5개월까지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과 계절근로(E-8)를 선택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이성순, 2021)<sup>33)</sup>
- 계절근로자제는 「출입국관리법」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20조, 제21조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5조, 제26조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내지 18조의 2등을 법적근거로 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해당국가와의 MOU체결 또는 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이루어지며, 1가구 당 연간 최대 6명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관리능력 등에 따라 도입인원이 산정되기도 함
- 2020년 상반기 기준 농업분야에서 지자체 4,802명이 신청하여, 46개 시군에 4,532명이 결정되었으며, 2015년 19명에서, 2017년 2,936명, 2019년 3,612명으로 증가함<sup>34)</sup>
- 전북의 경우, 고창은 13명, 군산 2명, 무주 69명, 익산 30명, 장수 32명, 진안 109명이 6개 시·군에 총 255명이 배정됨<sup>35)</sup>

32) 엄진영 외(2017).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3) 이성순(2021).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 다문화콘텐츠연구, 36(4), 151-185.

34)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https://www.returnfarm.com:444/cmn/sym/mnu/mpm/1070101/htmlMenuView.do>

35)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https://www.returnfarm.com:444/cmn/sym/mnu/mpm/1070101/htmlMenuView.do>

## ■ 외국인 근로자의 비공식 공급경로

- 엄진영 외(2020) 연구에서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경로를 살펴보면, 미등록 외국인 고용은 전체 중 8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급방식은 다양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sup>36)</sup>
- 비공식 공급경로는 내국인 운영 인력소개소, 외국인 운영 인력소개소, 고용된 미등록 외국인 알선 등을 통해 이루어짐(엄진영 외, 2020)
  - 내국이 운영하는 '대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는 80~200여명의 미등록 외국인을 농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의 일용직에 소개, 알선, 파견 등을 하고 있음
  - 대규모 체류형 인력소개소의 경우, 농가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가 많거나 지역이 먼 경우, 인력소개소의 차량을 이용하여 수송하고,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일당으로 농가가 인력소개소에 지불하면, 중개수수료(1만원~2만 5천원)를 제외하고 제공함
  - 중·소규모 장기체류형 인력소개소 또는 농작업팀은 10~30여명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보유하고 지역 농가에 알선, 소개, 파견을 하며, 농작업팀은 같은 출신국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음
  - 외국인이 운영하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파견, 소개, 알선되는 경우가 있으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또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운영하는 농작업팀이 있음
  -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농가에 알선, 중개해 주었으나, 이주여성 자신이 구성하는 농작업팀이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유형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팀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경우로, 이들은 대부분 장기간 체류한 외국인이 해당되며, 팀원은 숙련도를 검증받아 신뢰관계가 있는 농가나 기존에 속해 있던 인력중개소와 협력하여 작업팀이 운영됨

36) 엄진영 외(2020).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나. 전북 고용 농업 노동력 공급 경로(공공부문)

### 1) 농촌인력증개센터<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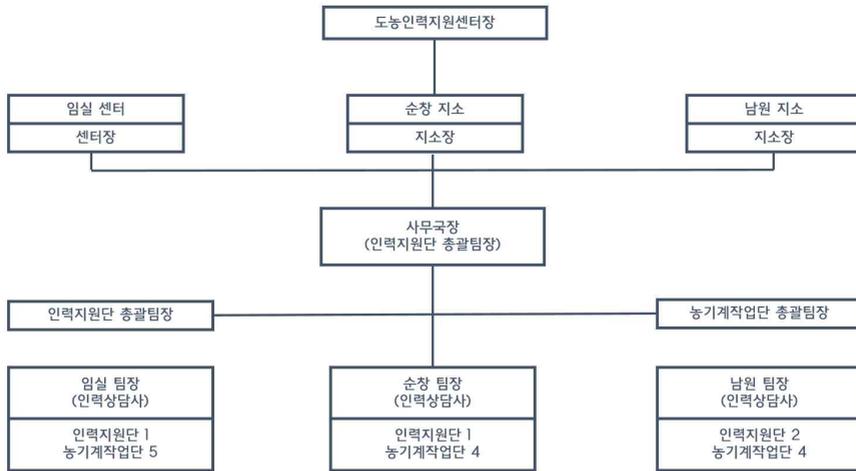
- 2022년 기준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농촌인력증개센터는 32개소로, 국비로 운영되는 센터는 29개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3개소임
- 농촌인력증개센터 중 농협을 제외한 센터는 익산시 (사)익산시농업회의소, 남원시 (사)인순남 남원지소, 완주군 완주군농어업회의소, 진안군 부귀임농업 영농조합법인, 순창군 (사)임순남 순창지소가 있음
- 농협과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시형인력증개센터는 2020년 기준 도시민 1,848명을 경기 여주, 강원 양구, 전북 고창 등 지역과 중개해주었으며, 2021년 농식품부·서울시·농협 협업으로 운영된 도시형인력증개센터는 서울시(농촌일자리)와 민간 운영기관 홈페이지(www.poomasy.com)를 통해 도시민과 농가를 중개하고 있음
- 전북 익산시는 농촌인력증개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2020년 11월 13일에 제정하였음
  -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르면,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로 정의하고 있음

### ■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순창지소

- 2014년 7월 남원, 임실, 순창 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되면서 농번기동안 원활한 농업노동력 공급을 위해 농촌일자리 DB구축, 안전교육, 안전보험료와 수송비 지원 등 인력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도농협력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됨
- 2015년 2월 (사)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은 후 2015년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함

37) 각 도농인력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2021). 농촌인력증개센터 우수사례집.'을 재정리함

- 2015년 6월 5개 권역 도농인력센터(거창·함양·산청, 단양·제천, 임실·순창·남원, 담양·구례·곡성) 중 '농기계 작업단'이 결합되면서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는 유지하게 됨(임실은 해산되어 임실 농협으로 업무가 이관됨)



[그림 3-43]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조직도

#### ○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순창지소

- 2017년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심층평가 최우수상, 2019년 전북 농촌자원복합사업화 우수사례 선정, 2020년 전국 농촌인력지원센터 우수사례로 선정됨
- 구인·구직자는 전화로 인력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센터는 농가-작업단을 매칭하여 농작업단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등록된 작업반장은 16명이(2020년 10월말 기준) 등록되어 있음
- 농가가 지급하던 교통비와 반장수당을 인력지원센터가 지원하면서 1일 평균 5~10만원 이상 농가 부담이 경감됨
-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1,500평 이하 영세 농업인,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에게 시중가 50%의 수수료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농기계 작업단이 운영되었으며, 2018년도는 21개 농가, 2019년 146농가, 2020년 181농가가 이용하였음

[표 3-5]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순창지소(2020.10.기준)

구분	주요내용
사업비	• 2020년 예산액: 106,980천원(도비 15,750천원, 군비: 81,000천원, 기타: 10,230천원)
인력	• 1명
중개실적	• 2017년: 유상중개(533명), 일손돕기(5,272명) • 2018년: 유상중개(371명), 일손돕기(3,717명) • 2019년: 유상중개(827명), 일손돕기(4,342명) • 2020년(10월말): 유상중개(624명), 일손돕기(3,813명)
추진과정	• 일손이 필요한 농가 ↔ 인력지원센터 ↔ 구직자
추진내용	• 농가 인력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교통비 지원

### ■ 고산농협인력중개센터(완주군 고산농협)

- 작업반 투입 전 농가 포전별 데이터를 확보하여 농가별 포전 면적, 동선 등을 파악하고 투입 예상인원을 결정함
- 관내 청년회 및 농민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작업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 현황 : 퇴비살포(8명), 드론방제(6명), 두둑성형(12명, 4월~11월), 기계정식(9명, 4월~11월), 양파수확(8명, 6월), 차조 및 콩수확(4명, 9월~11월)

[표 3-6] 완주군 고산농협(2020년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사업비	• 총 60백만원(국고 42백만원, 농협중앙회 18백만원)
인력	• 2명(전담인력 1명, 농협계원 1명)
중개실적	• 2017년: 유상중개(6,140명) • 2018년: 유상중개(5,197명) • 2019년: 유상중개(5,386명) • 2020년: 유상중개(3,030명)
추진과정	• 영농작업반 운영 • 농작업대행 영농작업단 운영(관내 청년회 및 농민회 등 회원들로 구성)
추진내용	• 영농철 영농작업단 집중 운영(양파·마늘 정식 및 수확시기) • 농작업 대행과 연계한 영농작업단 연중 운영(퇴비살포, 드론방제, 양파기계수확, 양파 두둑성형, 양파기계정식 등)

### ■ 금마농협인력중개센터(익산시 금마농협)

[표 3-7] 익산시 금마농협(2020년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사업비	• 총 60백만원(국고 42백만원, 농협중앙회 18백만원)
인력	• 1명
중개실적	• 2018년: 유상중개(3,856명) • 2019년: 유상중개(7,986명) • 2020년: 유상중개(6,317명)
추진과정	• 중개시스템 운영: 농가는 5일전까지 품목, 작업종류, 필요 인원 등을 센터에 요청하면 작업반장을 통해 작업반원을 선정하여 중개함 • 29개 작업반 운영
추진내용	• 전담인력: 인력중개와 홍보 • 인력모집은 농민회, 영농작업반 반장,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모집

## ■ 무주반딧불인력중개센터(무주군 농협무주군지부)

[표 3-8] 무주반딧불인력중개센터(2020년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사업비	• 총 123백만원(군비 93백만원, 농협 30백만원)
인력	• 1명
중개실적	• 2017년: 유상중개(13,378명) • 2018년: 유상중개(10,359명) • 2019년: 유상중개(12,387명) • 2020년: 유상중개(14,909명)
추진과정	• 작업반장 모집은 기존 작업반장 및 지역농협 지도계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작업반원은 현수막, JOB센터, 지인소개 등으로 이루어짐 • 일손참여농업인모집
추진내용	• 지자체와 인력중개사업을 협의함 • 일손필요농가 요청 → 센터 → 인근 작업반장 섭외 → 인력 중개 • 농가지원비: 교통비 3,000원(1일 1인당 정액으로 농가에 입금), 간식비 3,000원(1일 1인당 정액으로 농가에 입금), 통신비 1,000원(1일 1인당 정액으로 작업반장에 입금)

## ■ 전주원에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표 3-9] 전주원에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2020년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사업비	• 총 123백만원(군비 93백만원, 농협 30백만원)
인력	• 2명(농협 임직원 1명, 외부인력 1명)
중개실적	• 2017년: 유상중개(1,648명) • 2018년: 유상중개(1,267명) • 2019년: 유상중개(1,565명) • 2020년: 유상중개(678명)
추진과정	•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센터에 요청을 하면, 구직자 중 해당 인력에 맞게 매칭함 • 구직자와 농가는 상호 만족도를 DB화하여 구직자를 관리함 • 5개 작업반별 10~20명의 인원으로 운영
추진내용	• 농협 임직원은 홍보, 총부, 업체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고, 외부인력은 센터장으로 인력중개, 인력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 • 농작업 참여자 교육 운영, 2019년부터 농작업 참여자에게 렌트비를 지원(참여자 대부분이 60~70대로 운전이 미숙하여 출퇴근의 문제 해소)

## 2) 농업 인력지원 상황실

- 농업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3월 완주군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내 상황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완주군 경우, 완주군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농작업대행단,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업축산과가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일손돕기,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인 삼례·고산·화산농협은 인력중개 및 지원, 고산농협은 농작업대행단 등을 운영하고 있음<sup>38)</sup>
- 2021년 6월 기준 완주군 농업 인력지원 상황실에 등록된 인력은 13,520명으로, 농업인력에게 교통비, 숙박비, 현장실습 교육비, 상해보험 등을 지원함<sup>39)</sup>
- 2021년 3월 임실군, 고창군 역시 농촌 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기 시작함
  - 임실군의 농촌인력상황실은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경제교통과, 주민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농촌인력중개센터인 오수관촌농협과 임실농협을 통해 1,400여건의 인력을 중개함<sup>40)</sup>
  - 고창군은 농수축산경제국을 상황실로 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인 고창농협과 흥덕농협을 통해 농가와 농작업단을 중개해주고, 농작업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농작업안전 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고창군 로컬 JOB센터'에 등록된 구직인과 농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임<sup>41)</sup>

38) <https://www.wanjuro.org/post/1203?&page=9>

39) 완주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농촌 일손 부족 해결”(2021.06.14.,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417588213319>

40) 임실군,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가동...“부족 인력 지원”(2021.3.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06610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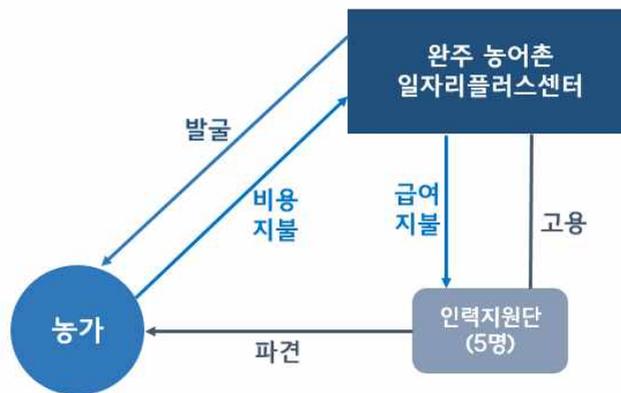
41) 고창군,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운영(전라매일, 2021.3.18.),  
<http://m.e-jlmaeil.com/view.php?idx=205628>

### 3)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 ■ 완주군 농어촌 일자리 플러스센터

##### ○ 인력지원단(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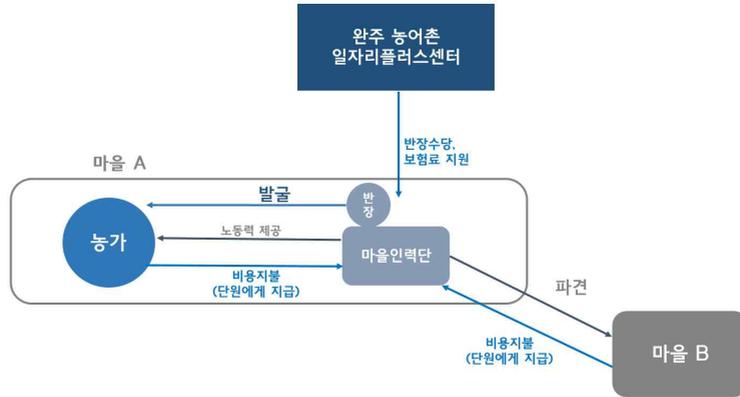
- 센터에서 남녀 5명을 고용하여 센터에서 발굴한 농가에 파견되어 작업을 하면, 농가는 비용을 센터에 지불하고, 고용된 인력은 센터에서 월급을 받는 형식임(수요가 낮아지면서 여성 2~3명만 고용 유지)



[그림 3-44] 완주군 인력지원단

##### ○ 마을인력단(2021)

- 마을 이장들을 통해 추천받은 작업반장이 마을인력단을 구성하면, 작업반장이 일거리를 발굴하고, 농가에서 일한 후 받은 비용을 마을인력단의 단원에게 지불하고, 센터는 마을인력단의 반장수당과 보험료를 지원해 줌
- 마을인력단은 인력이 없는 마을로 파견을 가 일하는 경우도 있음



[그림 3-45] 완주군 마을인력단

####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 ■ 외국인계절근로자제

- 2022년 계절근로자제를 도입하는 시군은 2021년 기준 10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은 2021년에 비해 119명 증가한 1,308명임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2021년 배정된 681명 중 32명이 입국하였음(군산시 1명, 순창군 2명, 고창군 29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지자체별 MOU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8개 시·군(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이 12개 지역과 MOU를 체결함

[표 3-10]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현황<sup>42)</sup>

국가 (7개국)	지자체 (6개)	시군현황				
		2016(1)	2019(3)	2020(2)	2021(6)	2022(1)
베트남	까마오성 썬반타이군				무주군, 고창군	
	붕따우성 쑤엔목현		장수군			
캄보디아				고창군		
필리핀	실랑시		무주군			
	루피시			정읍시		
	이사벨라주				완주군	
우즈베키스탄				무주군		
키르기스스탄	츄이주 으속아타군	진안군				
중국	집안시		익산시			
네팔	네브다하시, 드르콧시				무주군	
	마차푸차레					고창군
몽골	달란자가드군				남원시	

42) 전라북도(2021). 농촌 인력지원 대응 방안.(내부자료)

○ 2022년 7개 지자체가 MOU를 새롭게 체결할 예정임

- 익산시(베트남), 정읍시(베트남, 네팔), 김제시(베트남, 화빈성), 진안군(베트남, 네팔, 필리핀), 임실군(베트남), 부안군(베트남 까마오성), 고창군(네팔 순왈시)

■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 2022년부터 소규모 농가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1주일 단위로 단기고용이 가능해지며, 농가가 직고용하거나, 지자체, 농촌인력증개센터, 농협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전북은 무주와 임실에서 시행될 예정임
- 무주군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추진계획<sup>43)</sup>

[표 3-11] 2022년 무주군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운영계획

구분	주요 내용
외국 국가명(지자체명)	• 베트남(까마오성), 네팔(두르콧시), 필리핀(실랑시)
도입 인원/참여농가	• 100명/1,500가구

- 기대효과: 1) 소규모 고령농, 영세농가에게 인력공급 가능, 2) 과도한 임금인상 억제, 3) 적기영농 추진 가능

43) 2022년 농촌 인력지원 대응 전문가 간담회 자료(2022.1.27.)

## 5) 공공부문의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인식조사

- 공공부문 농업 고용노동력 공급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농인력지원센터 1개소(임순남센터 순창지소 팀장), 도농인력지원센터에 등록된 전문작업단 반장 2명, 농업 고용 노동력 연구자 2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전라북도 2022년 농촌 인력지원 대응 전문가 간담회(전북도, 현장 전문가, 연구자로 구성됨)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음

### ■ 농촌인력증개센터

- 전담인력의 과중 업무 해소 및 고용안정성 필요
  - 대다수의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전담인력 1명으로, 전담인력들은 현장과 사무업무를 병행으로 피로가 누적되며, 낮은 임금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의 운영 중단(임실센터)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언급함
  - 효율적으로 농촌인력증개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농일자리사업 인력관리, 홍보 등 업무, 참여자와 농가 상담 및 일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각각 필요하다는 도농지원센터 실무자들의 의견이 수렴되며, 인력 충원을 강조함
  - 영농철에는 공휴일 또는 주말, 새벽에 출근하여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나 특근비, 시간외 수당, 출장비와 같은 재정적 보상이 없으며,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며 임금이 크게 인상되지 않아 직업적으로 자존감이 높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센터에 등록된 구직자들의 경조사들을 챙기며 친분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농기계작업단의 고용안정성 필요성
  - 농기계작업단은 사무원 1명, 작업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사무원의 경우 10개월, 단원은 9개월로, 매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
  - 또한, 매년 농기계작업단 관리기관 또한 지원, 선정되어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농기계작업단원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음
  - 임순남센터 순창지소의 경우, 농기계작업단의 실적을 보면 2018년 21농가, 2019년 146농가, 2020년 181농가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고용여건으로 인하여 2018년 단원 3명이,

---

2019년 1명, 2020년 2명이 그만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인력증개센터 근무여건 및 전담인력 복지 개선 필요

- 전담인력 1명이 상주하고 있는 센터 및 농기계작업단이 운영되는 센터 모두 물리적 공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임순남센터 순창지소의 경우, 컨테이너를 활용한 사무실로 농기계작업단이 활동하는 시기에 휴게시설과 샤워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함
- 독립적인 공간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센터 역시 농기계작업단 및 전담인력이 휴게시설과 샤워시설의 열악함을 강조함
- 전담인력의 경우, 농번기에는 새벽, 밤, 주말, 휴일과 상관없이 사무실과 현장에서 업무를 봐야 하지만, 출장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원이 없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지역 농촌인력증개센터 통합 필요

- 2022년 전북에 30개의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있으며, 전주, 김제, 순창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는 2개 이상의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지역 내 농촌인력증개센터들 간 상호교류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여건에서 농업 인력 확보에서 경쟁적인 관계로 인력으로 농가-농업인력 간 매칭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권역별로 하나의 농촌인력증개센터가 존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농촌인력증개센터별 농가나 농업인력에게 지원하는 비용(교통비, 간식비, 식비, 인건비 등)의 차이로 센터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인건비 및 지원금의 차이

- 농가 부담을 줄이고자 설립된 센터는 외부에서 경쟁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인건비로 인해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센터나 지자체마다 지원해주는 교통비, 간식비·식비의 차이는 인력 확보 어려움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언급함

■ 농업 고용 노동자

○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지원 필요

- 비숙련 노동자가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비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농작업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 일정기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실습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농가에 교육비를 제공하여 비숙련 노동자가 작업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비숙련 노동자는 실습기간동안 숙련 노동자와 한 팀을 이루어 숙련 노동자에게 농작업 훈련 및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업 고용 노동자의 안전문제
-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농작업 장소까지 익숙하지 않고 비포장도로가 많다보니 크고 작은 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임순남센터 순창지소 팀장은 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업 전에 현장에 가서 도로, 경로 등을 사전 확인한다고 언급함
  - 산재보험의 범위는 입원, 골절 등의 상해가 있을 때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중 작은 사고로 다치는 경우에 일을 못한다는 생각에 아픈 상태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함
  - 작은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치료비 부담에 대한 농장주와 반장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함
  - 농촌인력증가센터에서 영농교육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작업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수시로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사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교육 지원이 필요함(남원의 경우, 밤 농가에서 말벌에 쏘여 의식을 잃은 노동자에게 119구급차가 도착 전 작업반장이 신속하게 응급처리를 통해 목숨의 어려움에 피한 사례가 있었음)
- 농업 고용 노동자의 건강문제
- 고용 노동자의 농작업 업무는 강도가 높은 작업이 많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거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농부병이라고 불리는 근골격계 질환과 소화기·순환기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한 교육과 특수건강검진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함
- 일거리 수요 충족
- 농촌인력증가센터에 등록된 전문작업단 반장 2명 모두 센터 등록 이후 센터에서 소개하는 농가에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거리 발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 점에 만족을 보였음

- 센터에서 신청한 농가의 일정에 맞춰 작업단이 지속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기 때문으로 언급하였음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장주와의 갈등에 대해 센터에서 중재를 해주기 때문에 반장은 자신과 단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센터 이용의 장점으로 강조함
- 센터가 일거리가 들어오면 전문작업단장에게 연락하여 전문작업단이 투입되는 반장 중심의 연락 체계와 센터가 단원을 선택하여 팀을 구성하여 농가에 투입하는 경우 중 전자가 같은 반장 중심의 인력 수급방식이 작업의 효율성과 단원과의 갈등이 적다고 언급함
- 전문작업단은 반장 중심의 인력 수급방식으로 운영하는 센터와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지역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있음
- 농한기(11월~1월)에는 일거리가 없어 쉬거나 요양원 간병인 등과 같은 단기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농업 고용 노동자의 어려움이라고 언급하며, 중간에 비교적 안정적인 일(요양보호사, 식당 등)을 찾으면 작업단을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언급함

## ■ 제도상 한계 및 연계

### ○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의 한계

- 3~5개월 동안 농가에서 단기간 고용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제는 농번기에 인력 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계절근로자격(E-8)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계절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위해 출국했다 재입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현 계절근로자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논의됨

### ○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 계절근로제

- 2022년부터 계절근로자로 유학생<sup>44)</sup>을 1주일 이상 고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30일 이상)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유학생의 활동 가능 기간은 학기 중 공휴일과 방학 기간으로 명시함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없어 유학생이 극히 적으며, 명시된 활동 가능 기간은 공휴일과 같이 단기간이거나 방학은 농번기와 기간이 겹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44) 참여절차는 소속대학 추천서를 받아 체류지 또는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신청하면 됨

---

○ ‘귀농형 농촌에서 살아보기’사업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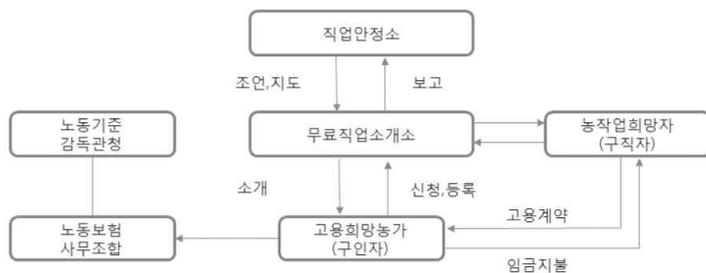
- 현재 도시민을 대상으로 1개월에서 3개월간 농촌에서 살면서 품목 재배기술, 영농실습,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귀농형 농촌에서 살아보기’사업과 지역 대표작목에 대한 장기실습을 하는 ‘귀농형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운영되고 있음
- 사업 참여자들의 영농실습을 전문작업단이 투입되는 농가에 참가자가 파견되어 단원과 일대일로 매칭하여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연계사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됨

### 3. 국내외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사례

#### 1) 일본

##### ■ 농작업자 소개 알선(사이트 농협)<sup>45)</sup>

- 큐슈 미야자키현 북동 내륙과 중앙 산관 지역을 관내로 하는 농협으로 피망, 부추, 가지, 오이 등이 주요 품목임
- 사이트 농협의 농작업 종사자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고용 상담 코너’를 설치하고, 취업 희망자는 전단지, 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하여 구인농가에 노동력을 증개해 주는 사업임
- 무료직업소개소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증개해주면 구직자와 농가 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구직자의 임금은 구인자인 농가가 직접 지불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전담인력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처하는 감정적 업무와 구직자 성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사이트 농협 업무자료

[그림 3-46] 사이트 농협의 무료 직업소개소 업무 프로세스

45) 「이재현 외(2011). 일본의 농업노동력 지원 사례. 농업경영정보.」

## ■ 전국 순환 아르바이트<sup>46)</sup>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본 지역농협들이 협력하여 아르바이트 인력이 농번기 지역을 도는 전국 순환방식으로 연중 영농작업에 참여하는 방식임
- 북단 북해도의 후라노 농협, 애히매현 야하타시 니시우와 농협, 남단 나하시 오끼나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아르바이트 인력은 4~10월 북해도에서 메론과 미니토마토를, 11월~12월은 애히매현에서 감귤, 12월~3월까지 나하시에서 사탕수수농장에서 일을 한 후, 4월에 다시 북해도로 이동하는 방식임
- 농협들은 인터넷 사이트, 대도시 취업 관련 이벤트 등에서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며, 각 지역 농번기에 영농작업을 하는 아르바이트 인력들이 머무를 수 있는 기숙사를 제공함

## 2) 충청북도

### ■ 생산적 일손봉사

- 도시 유휴인력이 농가 또는 기업 현장에서 일정액의 실비를 받고 자발적으로 일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휴인력과 농가·기업 매칭사업으로, 참여자에게 1일 4시간 일손봉사에 실비 2만원 지급,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와 기업은 경제적 부담이 없음
- 매칭사업에 참여 가능한 도 시민은 만 75세 이하 충청도민으로 누구나 가능하며, 농가와 기업은 충청도 내 소재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함
- ‘생산적 일손봉사’의 주관부서는 ‘충북도 일자리정책과’이며, 지자체와 자원봉사센터가 본 사업을 운영함
- ‘생산적 일손봉사’의 추진근거는 2021년 5월 18일에 제정된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

46) 일본농협, 인력난 전국 순환방식으로 해소(축산신문, 2017.5.19.)  
<http://chuksannews.co.kr/mobile/article.html?no=107991>

사 지원 조례」로, ‘생산적 일자리’는 ‘충청북도 소재 농가 및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로, ‘생산적 일손봉사’는 ‘도시지역의 유희인력이 농가 및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일손봉사’로 정의하고 있음

-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은 2016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16년 12월 기준 1,137개 농가·기업, 도시민 33,975명이 참여하였으며, 2021년 기준 총 21,922농가와 도시민 682,665명을 매칭해 주었음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184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임<sup>47)</sup>

**우리농가 우리기업 내손으로 되살리자  
생산적 일손봉사를 소개합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농가와 기업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서 일광역의 실비를 받고**  
**자발적으로 일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참여 자격은?**

**일할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만 75세 이하)  
- 초·중·고·대학생 참여 가능(봉사활동시간 인정)

**일할 곳** 농가: 충북도내 소재 농가(농업법인 등 포함)  
기업: 충북도내 소재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 자원봉사센터 사업은 긴급지원 및 어려운 농가·기업 우선 지원

**● 하시는 일은?**

**농가** 농작물 파종·수확·포장작업 등      **기업** 스티커 부착·포장 분류 등 단순작업  
\* 공장내 환경정비 등 생산활동 후속작업 포함

**● 지원 내용은?**

**일할 사람** | 소정의 실비 지급, 상해보험 혜택 지원

**시군 운영**      4시간 2만원      \* 도비 50%, 시군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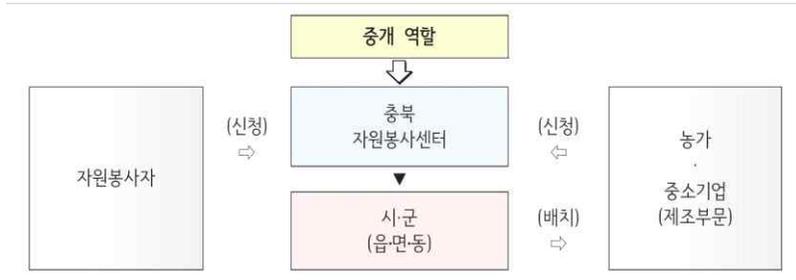
**자원봉사센터 운영**      4시간 2만원      \* 도비 100%

**일할 곳** | 부족한 일손 지원      \* 농가·기업 부담없음

**●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청·군청 일자리부서(읍면동)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

[그림 3-47]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47) 강마야·이도경(2021). 농촌 고령화에 따른 충남의 농업노동력 수급실태와 정책제안 연구. 충남연구원.(미발간)



[그림 3-48]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추진체계<sup>48)</sup>

### ■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제한으로 소농과 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임
-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에 신청 가능한 농가 및 기업은 재난·재해·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일손이 필요한 농가·기업, 여성농, 75세 이상 고령농, 장애인 농가, 소농·소기업, 자연재해로 후속 복구활동 또는 제설작업에 참여한 농가·기업, 공공 활동정비활동에 참여한 농가·기업 등이 해당됨
- 생산적 일손으로 지원 가능한 사람은 만 18세에서 75세 이하 충청도민으로 농가에서 농작물 파종, 수확, 포장작업 등을 하게 되며, 임금은 1일(8시간) 최저임금으로 지급되며, 4대 보험, 주휴수당, 임금보전수당, 간식비가 지원됨
- 조별로 구성된 후, 조장으로 선발되었을 때 기본수당과 조원을 수송하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원함

48) 이기현 외(2018). 건전한 생활공동체 실현을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실패러다임 연구.

### 3) 충청남도

#### ■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사업

- 2019년부터 시행된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사업’은 영세 고령농가, 1ha이하 농가에게 소규모 또는 분산된 농경지의 농기계작업을 지원하는 ‘농기계지원단’과 과수, 시설채소 등 적기에 대규모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인력을 지원하는 ‘인력지원단’이 운영되는 사업임
-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사업규모는 총 78.4억 원이었음
- 영세소농을 위해 지역농협은 전체 작업비의 70%를 지원해 주고, 대규모 전업농가는 중개 인력에 대해 교통비(5천원), 간식비(3천원), 마스크구입비(2천원) 등을 지원함
- 농작업지원단은 시·군, 농협, 작목단, 구인기관, 유관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함
- 전담인력은 인력증개, 인력관리, 구직자 상담, 농작업 교육 및 훈련업무, 농작업지원단 수송 업무 등을 담당함
- 농작업지원단은 전문지원단과 일반지원단으로 구분되며, 전문지원단은 지역 내 유희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일반지원단은 농협 농기계 장기 임대자와 마을 농기계보유 농업인이 활동하게 됨



[그림 3-49] 농작업지원단 운영체계<sup>49)</sup>

충남농작업지원단육성·운영사업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맞춤형 농작업지원단을 보내드립니다.**

**농작업지원단**

- 소규모고령농가를 대상으로 경운, 수확 등 농기계작업을 도와드리고
- 대규모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인력을 지원합니다.

<p><b>농기계 보유이고 농기계 작업이 가능한 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홀농가 2~5명의 농기계 작업자 모집</li> </ul> <p><b>소규모 고령농가 농기계 작업(경운, 수확 등) 지원</b></p>	<p><b>일반지원단 (농기계작업)</b></p>	<p><b>소규모 고령농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고령농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농지규모 0.5ha 미만)</li> <li>- 고령 농가(75세 미만)</li> </ul> </li> <li>• 소규모고령농가중 발착물의 농기계작업이 필요한농가</li> </ul>
<p><b>농작업 구직 희망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녀자, 퇴직자, 귀농자 등</li> <li>- 기존의 농촌인력 참여자</li> </ul> <p><b>과수, 시설재배 등 규모화 농가 농작업 지원</b></p>	<p><b>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역농업) 신청,등록</b></p>	<p><b>과수, 시설재배 재배농가 등 지속적으로 농작업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딸감, 사과, 수박 등 농작업</li> </ul>
	<p><b>전문지원단 (농작업)</b></p>	<p><b>대규모 전업농가</b></p>

**신청자격**

<b>농작업 지원 희망자</b>	일반지원단 농기계를 보유하고 농기계 작업이 가능한 자 (전문지원단) 농업분야 농작업 구직 희망자
<b>일손필요농가</b>	(소규모 고령농가) 0.5ha(1,500평)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농가 (대규모 전업농가) 과수, 시설재배 등 경작규모가 있는 농가

 농작업지원 희망자나 일손필요농가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신청하세요!

[그림 3-50] 충청남도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사업



[그림 3-51] 충청남도 농작업지원단 운영현황(2019)

49) 2019년 농촌인력·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지원계획(충청남도)

---

#### 4) 제주특별자치도

##### ■ 국민수확단

- ‘국민수확단’의 주관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이며,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운영하고 있음
- ‘국민수확단’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추진근거로 하고 있음
-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국민수확단지원사업’의 2022년 총 예산은 167백만 원이며, 본 사업은 5월~6월 마늘, 양파, 11월~12월 감귤 수확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
- 지원내용은 도외 인력에게는 숙박비, 항공료, 교통비, 보험료, 부식비를 제공하며, 도내 인력 중 유상 인력은 교통비, 보험료, 반장수당 등, 무상 인력(대학생봉사단, 국부대, 공공기관 등)은 보험료, 처우개선비, 간식비 포함한 식비 등을 제공함
  - 도외 인력은 주로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농협, 농업인단체, 마을 등), 대학 동아리 등이며, 도내 인력은 노인회, 부녀회 등 단체, 센터 일자리 신청자 등으로 구성됨

#### 5) 경상북도 거창군

##### ■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 2013년 4월 18일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취약 계층의 농작업 일자리 창출과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설립됨<sup>50)</sup>
  - 조합원의 유형은 1) 소비자조합원(인력부족 농가 및 단체), 2) 생산자조합원(1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자가용 소유자), 3) 생산자조합원(농작업 참여자), 4) 지역조합원, 5) 자원봉사조합원, 6) 후원자조합원으로 구분됨

---

50)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2조(목적)

-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구직자와 농가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립되어 농가(조합원)에 필요한 인력(조합원)을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본 사업은 군수공약사업 중 하나였음<sup>51)</sup>
-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와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추진되었음
- ‘상시고용인력센터’는 거창군의 예산지원과 사회구성원인 농업인 참여한 비영리사업단으로, 농가 및 단체, 농작업 희망자 모두 조합원으로서 출자금 및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며, 현물을 출자하는 조합원은 차량 현물을 출자 가능함<sup>52)</sup>
- 농가와 단체는 농업인력을 무료로 알선해주고, 출퇴근수송을 대행해주며, 농번기에는 관외인력을 알선, 지원해줌<sup>53)</sup>
- 농작업 참여자는 일자리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안전용품과 보험을 지원하며, 현물출자자는 차량 종합보험 및 세액, 월 기본급, 운행수당을 지원함<sup>54)</sup>
- 2020년 12월 21일 기준, 조합원 총 457명으로 농가 186가구, 농작업자 265명, 현물출자자 1명, 자원봉사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sup>55)</sup>
- 지난 5년간 농작업 알선 실적을 살펴보면, 참여인원은 2015년 10,023명, 2017년 11,013명, 2019년 10,968명, 2020년 10,54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알선농가는 2018년 309가구, 2019년 31가구, 2020년 299가구로 나타남<sup>56)</sup>

51) 강마야·이도경(2021)의 사례조사자료 참고.

52) 거창 취업·기업 상시고용인력센터  
<https://www.geochang.go.kr/business/Index.do?c=BS0701000000>

53) 거창 취업·기업 상시고용인력센터  
<https://www.geochang.go.kr/business/Index.do?c=BS0701000000>

54) 거창 취업·기업 상시고용인력센터  
<https://www.geochang.go.kr/business/Index.do?c=BS0701000000>

55) 강마야·이도경(2021)의 사례조사자료 참고.

56) 강마야·이도경(2021)의 사례조사자료 참고.



[그림 3-52]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sup>57)</sup>

## 6) 경상남도 남해군

### ■ 남해군·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 ‘남해군·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주관부서는 경상남도 남해군 농업정책과이며, 민간으로 상시운영 되는 농촌인력센터임
- ‘남해군·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독거노인, 장애농가, 기초생활보호대상 농가, 고령농, 여성 단독농가 등을 우선 지원하며, 하루에 신청 가능한 인력 인원은 농가별 3명에서 1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sup>58)</sup>
- 인건비는 농업인이 부담하고 교통비와 간식비를 포함한 식비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와 농협군지부에서 부담함
  - 사업 추진 첫 해였던 2019년의 경우, 농업인이 부담할 인건비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인당 6만원으로, 영농작업 지원범위는 타 사업(마늘재배 영농작업반 지원사업, 농촌희망 영농작업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중)을 제외한 고사리, 두릅 등 지역 특화 임산물물을 포함한 모든 농작물이었음<sup>59)</sup>

57) 강마야·이도경(2021)의 사례조사자료 참고.

58) 남해군·농협 ‘농촌인력 중개센터’ 상시운영(2019.5.17., 남해시대)  
<http://www.n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67>

59) 남해군·농협 ‘농촌인력 중개센터’ 상시운영(2019.5.17., 남해시대)  
<http://www.n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67>

- 
-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농가는 지역농협에 인력을 신청하고 자부담분을 사전입금하면, 지역농협은 필요한 인력을 파악하고 계약을 체결한 민간 용역업체에게 인력을 알선, 파견할 수 있도록 중개하며, 보조사업비를 업체에 지급함<sup>60)</sup>
  - 지역농협은 보조사업비 및 자부담분을 정산하고, 지자체는 보조금 배부, 중간 점검, 사후관리 및 감독의 역할을 수행함<sup>61)</sup>

---

60) 강마야·이도경(2021). 농촌 고령화에 따른 충남의 농업노동력 수급 실태와 정책제안 연구. 충남연구원.

61) 강마야·이도경(2021). 농촌 고령화에 따른 충남의 농업노동력 수급 실태와 정책제안 연구. 충남연구원.

---

## 4. 시사점

- 전라북도 시·군별 재배면적이 큰 계절성 작물을 중심으로 영농순기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투입된 농업 고용 노동력을 추정하였음
- 지역별 계절성 작물마다 2019년과 2020년에 투입된 월별 농업 고용 노동력을 통해 지역 및 작물에 따른 고용 노동력 공급시장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음
- 2019년과 2020년 전라북도 공공부문 농업인력 공급규모를 비교한 결과, 배, 포도, 사과, 마늘, 양파 계절성 작물의 2020년 농업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복숭아, 고구마, 고추, 딸기, 양파, 감자는 2020년 투입량이 2019년보다 적게 나타남
- 2019년과 2020년의 농업 고용 노동력 투입량 간 차이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 배, 마늘, 양파 등 작목의 경우<sup>62)</sup>, 2019년과 2020년 농산물 소득자료를 비교한 결과, 고용 노동비는 감소한 반면, 자가 노동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난을 가족노동력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사과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전북 농산물 소득자료를 살펴보면, 고용 노동비와 자가 노동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 노동비는 59.0시간에서 45.6시간으로, 자가 노동비는 102.7시간에서 88.9시간으로 감소하였음
- 사과의 고용 노동비와 자가 노동비 감소와 함께, 총 수확량 또한 2,234kg에서 1,825kg으로 감소하여, 농촌 인력난에 의해 농가가 사과 재배량을 축소한 것으로 보여짐
- 그 외, 작목들은 자가 노동비는 감소한 반면, 고용 노동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 공백에 대한 공공부문에서 내국인 인력 수요가 증가하였거

---

62) 마늘, 양파의 경우, 전라북도 소득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전국 평균 자료를 활용하였음

나,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요 시장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 이 장에서는 농업 고용 노동력 공급 경로에 대한 사례와 농촌인력증개센터 실무자 및 전문작업단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및 간담회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첫째, 농가의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력 수급 지원사업으로 ‘농촌인력증개센터’ 인력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센터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전담인력의 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로 발생하는 전담인력의 업무스트레스 누적과 자존감 하락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둘째, 계절근로자의 관리·감독 책임의 소재에 대한 논의와 취업기간 동안 성실 계절근로자를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시기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농촌사회에서 지난 2년간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규모는 농촌 인력난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 2022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계절근로자제를 개선하고 입국 계절근로자의 규모를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관리·감독에 대한 지자체(도, 시·군)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계절근로자제 운영의 안정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sup>63)</sup>
- 셋째, 구직자와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비숙련 농업 노동력의 농업활동 참여 전 교육 및 실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작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에 한해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63) 외국인근로자 무단 이탈 막는 대책 세워야(MBC뉴스강원, 2021.10.21.)

<https://mbcnewsgangwon.kr/article/psbTA4rN-OeToPk>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 대책 시급하다(농업인신문, 2021.10.22.)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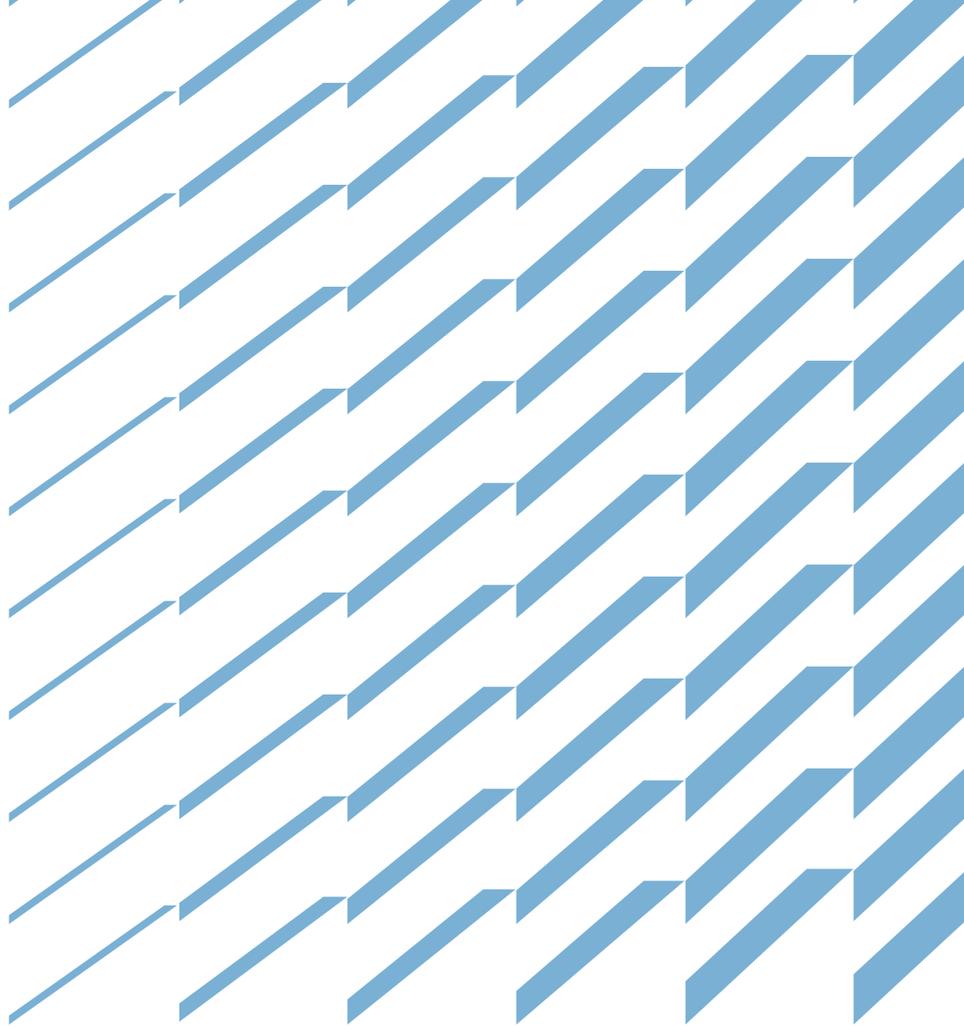
---

비숙련 근로자의 작업량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비숙련 노동자가 농작업 활동 전 교육과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작업단원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도시 유희인력이 전북 농촌에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농촌 자원 이용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필요함
-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농업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시 유희인력 수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서울시 도시형인력중계센터 운영, 충북 생산적 일손봉사, 제주특별자치도 국민수확단 등
- 농촌이 일터이자 쉼터로서 도시 구직자에게 인식시켜 전북 농촌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통해 농업인력 확보와 농촌경제 활성화 증진 가능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함
- 다섯째, 농업 일용근로자를 위한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 피해와 근골격계 질환의 조기 발견에 대한 미흡한 지원을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환경과 강도 높은 농작업으로 크고 작은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원, 사망 등을 제외한 부상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치료비로 인한 농가와의 갈등, 경제적 이유로 농작업 활동 불참에 대한 부담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한 지원이 농업인과 달리 미흡함
- 여섯째, 농촌 인력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력 공급 및 지원체계의 조직화가 필요함

- 
- 시·군별 농업인력지원 상황실과 농촌인력증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시·군별 상황실, 농촌인력증개센터 각각 협력과 연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는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도 차원의 문제로서 각 상황실과 센터별 상호 정보와 경험을 공유, 교류하고, 문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총괄 농업인력지원 상황실과 총괄 농촌인력증개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함
  - 국내외 공공부문에서 농업 고용 노동력을 공급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직자와 농가를 매칭하는 인력증개센터의 체계화와 안정화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 간 인력증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통해 농업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인력난을 도시 유희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으나, 면접조사와 간담회에서 언급된 농가의 숙련 노동력의 선호에 따라 비숙련 노동자의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지역 내 인력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거창군을 통해 지역주민의 상호협력과 연대가 농업 노동력 문제를 완화하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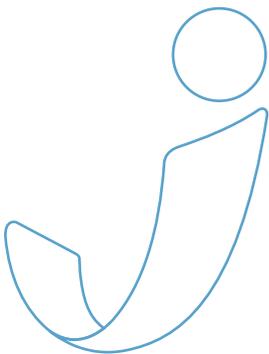




# 제4장

## 농업 노동력 수급 대응 방안

1. 정책방향
2. 추진전략
3. 중점과제





---

## 제4장 농업 노동력 수급 대응 방안

### 1. 정책방향

---

#### 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농촌인력증개센터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 일거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 농기계작업단을 함께 운영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인력지원센터와 농기계작업단의 공동 작업을 통해 농업생산성이 증가되며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 등의 수요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농촌인력지원센터 전담인력의 고용 불안정성, 인력 부족,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전담인력과 농기계작업단의 작업 효율성과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나. 다양한 농업 노동력 발굴

- 고령화와 이농현상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인력난과 인건비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은 심화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농가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공공부문에서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음
- 내국인 근로자 발굴을 위해 도시민, 귀농인 등을 활용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비숙련 노동자를 통한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작업 수준을 갖추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 지역주민이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공동체 단위 인력 공급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함
  - 농업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발생하는 농업인력의 안전 및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 다. 농업인력 공급 제도 개선

-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금지로 농업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가 개선·보완되었음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한시적 계절근로자제의 대상이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동포, 문화예술 등까지 확대됨
- 또한,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C-4)중 국내법 준수와 성실한 근무로 해당 지자체 추천을 받을 경우 재입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
- 외국인유학생 계절근로제의 경우, 체류지 또는 대학 소재지 시군에서 학기 중 공휴일 또는 방학 기간 중에 계절근로자로 참여가능하나, 활동가능기간과 영농순기 간의 일치하지 않아 외국인유학생 계절근로제의 실효성이 낮음
- 성실 계절근로자의 재입국은 본국으로 출국했다 다시 입국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볼 때, 성실 계절근로자의 신속한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유학생 활동기간과 성실 계절근로자의 재입국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라. 농업인력 공급·지원체계 개선

- 기초자치단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체결하고, 계절근로자 입국에서 출국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집단이탈 문제 발생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를 위한 코로나19 격리시설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농번기 농업인력지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군별 농번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과 시·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전북도단위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음
- 농업인력 수급을 위한 시·군단위의 협력 및 연계가 다소 부족하며, 이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단위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이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함
- 2022년 기준 30개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2,3개의 농업인력 중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및 센터별 운영 차이로 등록된 구직자와 농가의 센터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인력지원센터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매뉴얼 개발과 지역의 인력DB구축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 요구됨



[그림 4-1] 전북 농업 노동력 수급 대응방안

## 2. 추진전략

### 가.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

- 일부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전담인력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필요인력 현황 파악 및 인력 상담, 농작업 인력과 농가 매칭, 홍보 등 과도한 업무집중으로 심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인력이 증원되어야 함
- 농촌인력지원센터와 농기계작업단에 대한 농가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센터 전담 인력과 농기계작업단원을 위한 휴식공간,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이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농림축산식품의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을 받고 있음
-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위해 매년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정이 되어야 운영이 유지될 수 있어 전담인력과 농기계작업단의 직업안정성이 낮아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 추진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4-1]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 중점과제

중점과제	주요 내용
농촌인력증개센터 지원사원 개선	우수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사업기간 연장 갱신제에서 신청제로 운영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전담인력 근로여건 개선	전담인력 추가 확보, 전담인력 휴일특근, 시간외 수당 지급
농촌인력증개센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	휴게공간·샤워시설 설치·마련

## 나. 다양한 농업인력 유형 발굴 및 근로여건 개선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농가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이 가중화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농업인력 발굴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현재 도시민 유희인력, 귀농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음
- 비숙련 농업인력인 도시민, 귀농인 등의 농작업 수준과 능률을 높이거나, 지역주민이 함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다양한 농업인력을 양성 가능함
-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력을 위해 근로여건을 향상시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농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4-2] '다양한 농업인력 유형 발굴 및 근로여건 개선' 중점과제

중점과제	주요내용
성실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제 도입	성실 계절근로자 취업기간 1회 연장
도시민 일+사업 운영	일자리 중개 및 농작업 훈련·실습, 숙소, 전복 자유여행비 지원
마을인력단사업 운영	마을인력단 반장수당, 식비, 교통비, 보험료 지원
비숙련인력 멘토-멘티제	비숙련-숙련 멘토-멘티, 농가 및 숙련인력에 교육비 지원
농업 고용 근로자 안전·건강 지원사업 운영	현장 안전교육 참여의무화, 치료비 일부 지원, 특수건강검진 일부 지원(2년 주기)
출퇴근 행복버스 운행	출퇴근 행복콜택시 운행

## 다. 농업인력 공급·지원체계 개선

- 기초자치단체는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지만, 입국부터 출국까지 관리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 있음
-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운영 및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계절근로자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계절근로자제를 운용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가 필요함
- 농업인력 부족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시군별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군별 협력과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농업 인력난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북도의 문제로 인식하여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총괄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상황실이 필요함
- 구직자와 농가 매칭과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자율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해결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과 농촌인력지원센터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여 센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총괄 조직이 필요함

[표 4-3] '농업인력 공급·지원체계 개선' 중점과제

중점과제	주요 내용
계절근로자 중앙관리제도 도입	중앙단위 계절근로자 관리제도 마련, 입국 계절근로자 집합 격리 및 교육, 계절근로자 DB구축 및 관리 등
총괄 농번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강화	농업인력 수급 TF팀 구성, 시·군 상황실과 핫라인 설치 등
총괄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정 운영	총괄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전북 농촌인력지원센터 플랫폼 구축

---

### 3. 중점과제

#### 가.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

##### 1)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개선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계절성 등에 따른 농촌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항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
- 지원사업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 배치, 구인구직수요조사, 인력풀 구축하여 구직자와 농가를 중개할 수 있는 지자체를 지원함
-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매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될 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전담인력의 직업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전담인력의 업무역량과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매년 공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23년~
-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 우수한 운영실적을 가진 농촌인력중개센터에 한해 매년 지원사업 공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을 지속하기 희망하는 경우, 갱신이 아닌 신청제를 통해 운영기간을 연장

## ■ 주요내용

### ○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방식 개선

- 사업명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민간기업 등)

- 사업신청 : 1)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를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10월), 2) (시·도) 시·군이 제출한 사업 신청자료를 기초로 1차 평가 실시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0월), 3) (시·군)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0월)

- 지원대상 선정 : 1) 농식품부의 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2) 선정 결과를 시·도, 시·군에 통보(전년도 10월)

- 사업기간은 '1년 단위 갱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농촌인력증개센터는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관할지역 농업분야 주요현황 첨부)'를 제출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음

-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전담인력의 직업안정성을 위해 매년 공모가 아닌 우수 센터를 선정하여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운영기간 연장을 신청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센터를 선정하기 위한 양적 그리고 질적 평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 치존인력증개센터 전담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공무원 또는 농협 등 직원 제외), 교육비, 교통비(농기계 운송비), 숙박비, 홍보비, 회의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음
- 12,000백만원 총 사업비의 35%이내를 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로 사용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 직원이 인력증개업무 담당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전담하고 있는 전담인력은 1명임
- 전담인력은 농가와 농작업자 간 증개, 구직자 상담 및 농작업 교육, 홍보 등 센터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농번기는 휴일, 새벽 또는 늦은 밤 상관없이 센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커져 이러한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인력 추가 확보와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함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22년~
-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 사업내용 : 전담인력 추가 확보를 통해 농업인력 증개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전담인력의 근로여건과 심신건강을 증진

### ■ 주요내용

- 전담인력 추가 확보 방안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직원 파견 : 1) 업무 : 농업인력 홍보 및 모집, 농가 및 농작업자 DB 구축 및 관

---

리 등, 2) 파견 인센티브 제공 등

- 비상근 인력 채용 지원 : 농업인력 홍보 및 모집, 농가 및 농작업자 DB 구축 및 관리, 현장 점검 등

○ 전담인력의 농번기 휴일 특근, 시간외 수당 지급

- 농번기의 경우, 전담인력은 인력 중개와 현장 점검을 위해 공휴일 및 주말, 새벽과 밤에 일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적 보상이 필요함

### 3) 농촌인력증개센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촌인력증개센터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 독립적인 공간이 없거나,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운영되는 센터의 경우, 물리적인 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 특히, 농기계작업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증개센터의 경우, 센터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작업단원을 위한 휴게공간·샤워시설이 미비한 실정임
- 업무로 인한 피로감,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들이 재충전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필요함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22년~
-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 사업내용 : 열악한 업무공간을 가진 농촌인력증개센터를 대상으로, 전담인력과 농기계 작업단을 위한 휴게공간·샤워시설 등 설치·마련 및 운영 지원

#### ■ 주요내용

- 휴게공간·샤워시설 설치
  -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지원은 총 예산을 '센터(40%)'와 '인력(60%)' 운영비로 구분되며, 센터운영비는 센터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간담회비, 세탁비, 사무비품, 출장비, 공공요금 등), 홍보비를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어 공간에 대한 지원이 없음
  - 지원 예산 중 휴게공간·샤워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비' 항목 추가가 필요함
- 기존 시설 활용한 휴게공간·샤워시설 마련(귀농인의 집 등)

## 나. 다양한 농업인력 유형 발굴 및 근로여건 개선

### 1) 성실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제 도입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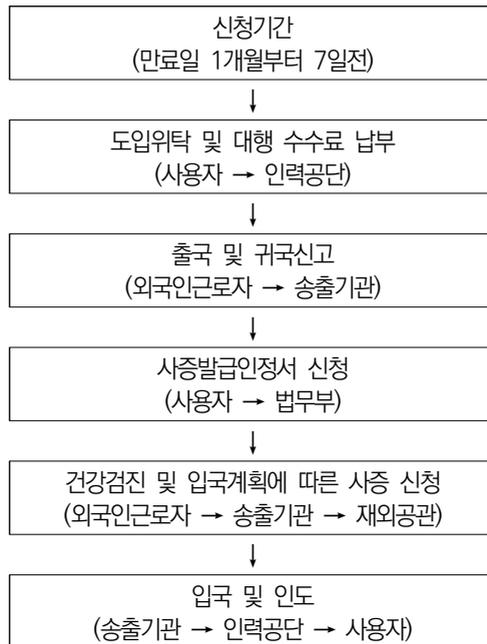
-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취업비자(C-4, E-8)자격으로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임
-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입국금지에 따른 극심한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국내법 준수 및 성실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기회를 보장함
  - 재입국제도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임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은 외국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와 국내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가능함
- 계절근로자제를 연중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나, 비효율적인 재입국 절차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해소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실 계절근로자에 한해, 국내 취업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23년~
-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
-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계절근로자에 한해 취업기간동안 1회 체류기간 연장

## ■ 주요내용

- 단기취업(C-4, E-8) 체류자격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한해 농번기동안 출국 및 재입국 없이 안정적으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제 마련 필요
- 농식품부와 법무부의 협력을 통해 성실 계절근로자가 취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 연장한 성실 계절근로자에 한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안정성 보장



[그림 4-2] 현재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

## 2) 도시민 일+ 사업 운영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별 도시민을 통해 농업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가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시형 인력증개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도시민의 농업노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민에게 전북 농촌에서 농작업을 통한 경제활동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들의 전북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농업 노동력 공급을 기대할 수 있음
- 농작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 구직자를 위해 농작업 교육과 전북 농촌을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함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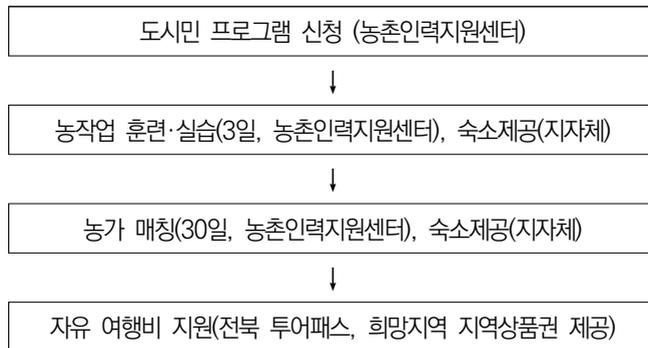
- 사업내용 : 2022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 사업내용 : 전북 농촌에서 농업일자리를 구하는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중개 및 농작업 훈련·실습, 숙소, 전북 자유여행비 지원

### ■ 주요내용

- 사업명 : 도시민 일+사업
  - 사업목적 : 도시민에게 농업분야 일자리 제공과 전북 농촌 자유여행 지원을 통해 농촌 노동력 공급 및 전북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운영주체 : 농촌인력지원센터
  - 지원대상 : 농가에서 최소 30일 일할 수 있는 도시민(훈련 및 실습 3일 미포함)

- 
- 사업내용 : 1)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한 도시민은 3일 간 농작업 실습 및 훈련을 마친 후 농작업에 참여함, 2) 활동기간이 지난 도시민에게 인건비 및 자유여행비를 제공함

- 사업추진과정



### 3) 마을인력단사업 운영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영세농, 고령농 등의 농업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 최근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도들이 증가하며 마을, 지역의 소농, 고령농 등의 농업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인력조직이 생겨나고 있음
  - 완주군 마을인력단, 경북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등
- 지역의 소농, 영세농의 농업인력 수급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인력조직을 구성하여 고용 노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을,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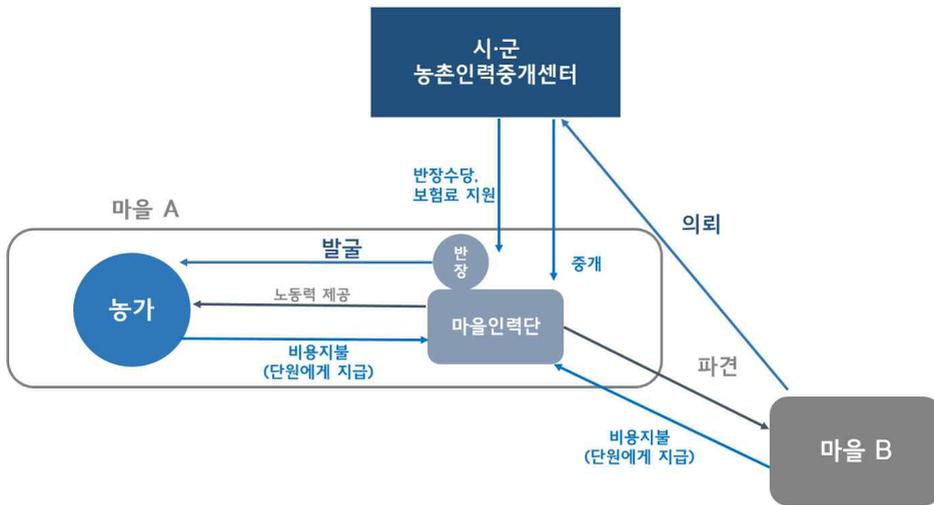
- 사업내용 : 2022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 사업내용 : 지역의 소농, 고령농 등의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구성된 마을인력단의 반장수당, 식비, 교통비, 보험료 지원

#### ■ 주요내용

- 사업명 : 마을인력단 사업
  - 사업목적 : 지역의 소농, 고령농 등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인력난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반장과 5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마을 또는 지역주민
  - 사업추진과정 : 선정된 마을인력단은 해당 지역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등록하고 마을인력단의 활동을 위

해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통해 홍보하고, 마을 또는 지역 내에서 반장이 발굴한 농작업 또는 농가가 의뢰한 농작업을 참여할 경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작업반장비, 식비, 교통비, 보험료를 지원함

- 농한기의 경우, 농작업 및 농업 분야 일자리를 우선 중개해 줌



[그림 4-3] 마을인력단 운영체계

#### 4) 비숙련 인력 멘토-멘티제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도시민, 귀농인 등을 고용하여 농업 인력난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비숙련 도시민, 귀농인 등의 농작업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농작업자와 갈등이 생기기도 함
-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작업 경험이 없는 최초 농작업 참여자에 대해 최대 3일간 현장 실습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작목에 따라 전문적인 영농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존재함
- 농작업 경험이 적은 구직자가 개인 역량에 따라 작목별 필요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는 구직자와 전문작업단의 숙련 인력과 1대1로 팀을 이뤄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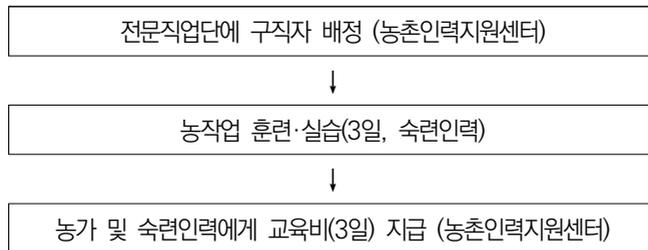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22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 사업내용 : 농작업 경험이 적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전문작업단의 숙련 인력과 매칭하여 3일 간 훈련 및 실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농가와 숙련 인력에게 교육비 지원

##### ■ 주요내용

- 사업명 : 비숙련 인력 멘토-멘티제
- 사업목적 : 농작업 기술이 부족한 노동자(멘티)와 숙련 인력(멘토)과의 매칭을 통해 영농기술을 습득하여 숙련된 노동자로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

- 
- 사업추진과정 : 농촌인력지원센터는 구직자를 전문인력지원단에 최대 2명을 배정하여 숙련된 근로자(멘토)와 구직자(멘티)를 1:1 매칭하여, 구직자는 숙련 근로자에게 3일간 기술을 전수받는 현장교육을 받음. 농가와 숙련 근로자는 3일 간의 교육비를 농촌인력 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음



## 5) 농업 고용 근로자 안전·건강지원사업 운영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업의 열악한 직업환경, 고령화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농업 노동자의 안전사고에 대해 대비하여 농촌인력증개센터에 의해 가입한 농촌일자리 참여 대상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등을 보장하고 있음
-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골절, 염좌, 근육긴장 등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업 관련 질병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병원비로 농기와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
- 또한, 과도한 농작업으로 겪고 있는 허리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농부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이 부재함
-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열악한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필요함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22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 사업내용 : 농업 고용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현장 안전교육 참여의무화, 치료비 일부 지원, 특수건강검진 일부 지원(2년 주기)

---

## ■ 주요내용

### ○ 사업명 : 농업 고용 근로자 안전·건강지원사업

- 사업목적 : 열악한 농작업환경에서 농작업자의 건강 유지와 안전보호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여 농작업자와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
- 사업대상 : 1) 치료비 지원 및 안전교육 :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등록된 구직자, 2) 특수건강보험비 지원 : 농촌인력지원센터에 2년 이상 등록하여 농작업에 참여한 구직자
- 사업내용 : 1)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 중 상해보험 보상에 해당되지 질병에 대해 치료비를 일부 지원, 2) 안전교육 참여의무화(분기별 교육 운영, 교육참여 시 우선 중개), 3) 특수건강비 일부 지원

## 6) 출퇴근 행복버스 운행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작업반장의 역할 중 하나는 농작업장까지 단원 수송으로, 반장수당을 받고 있음
- 농번기의 경우, 단원 수송은 주로 새벽, 밤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익숙하지 않은 작업장까지 경로, 작업장까지 포장되지 않은 농촌도로 등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새벽시간이나 늦은 밤 시간에 택시 운행이 전무하여 고령 농작업자의 경우 작업장까지 가기에는 교통편이 불편함
- 차 사고의 위험과 농작업자의 교통 불편을 고려하여 일부 지자체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셔틀버스 운영, 승합차 렌트 사용(운전기사 채용 가능) 등을 통해 작업단을 수송하고 있음
  - 화천군 농업인력지원센터(셔틀버스 운영), 고흥군 팔영농협인력중개센터(승합차 구입), 김천시도농일자리센터(차량은행기사 중재), 거창군 거창군상시고용인력센터(승합차 4대 운행) 등
- 농업 노동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전북 농촌에서 운영하는 출퇴근버스를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22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시·군
- 사업내용 : 농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수송을 위해 교통이 불편한 농작업자 또는 이 용을 희망하는 전문작업단을 작업장까지 수송할 수 있는 출퇴근 행복버스 운영

---

## ■ 주요내용

### ○ 사업명 : 출퇴근 행복버스 운영

- 사업목적 : 교통이 불편한 농작업자나 이용을 희망하는 전문작업단을 대상으로 한 콜버스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력 수급에 기여
-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농작업자, 고령 농작업자(자차가 없는 경우), 반장의 자동차의 문제로 교통이 불편한 전문작업단 등
- 지원대상 : 1) 승합버스 운영을 희망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농협 등, 2)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 지원내용 : 1) 농촌인력지원센터, 농협 등 : 승합차 렌트비, 운전자 인건비, 승합차 운영비 지원, 2)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 주유비, 운송비

## 다. 농업인력 공급·지원체계 개선

### 1) 계절근로자 중앙관리제도 도입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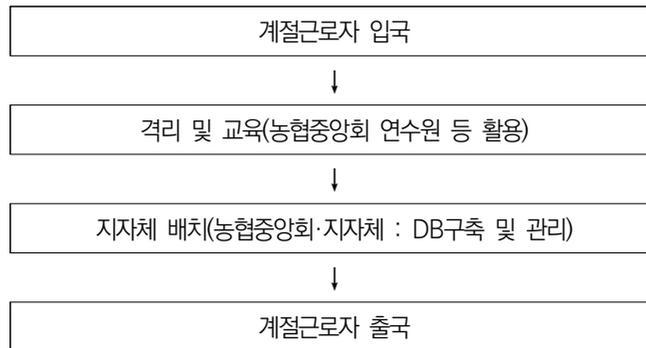
- 코로나19이후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강화하며, 지자체에 배정되는 계절근로자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위한 숙박시설이 미비하며, 관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함
- 또한, 고용허가제(E-9)와 달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지자체(시·군·구)의 역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계절근로자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지자체가 아닌 자가격리해야 하는 계절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초기 입국 계절근로자를 관리가 가능한 중앙단위의 조직이 필요함
-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정보 DB구축 및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23년~
- 사업주관 : 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
- 사업내용 : 중앙단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법제 마련, 입국 계절근로자를 수용과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조직(농협중앙회)을 교육기관으로 운영 및 입국 계절근로자 교육·관리, 계절근로자 인적 사항, 작업장 등 DB구축 및 관리 등

## ■ 주요내용

- 중앙단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의 협력을 통해 계절근로자제 개선 및 보완
  - 입국 계절근로자의 집합 격리·교육 및 관리
  - 중앙단위의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DB 구축 및 관리
- 입국 계절근로자 및 계절근로자 관리 기관 지정 및 운영
  - 농협중앙회 연수원 등 다수 인원의 숙박 및 집합교육이 가능한 공간을 가진 시설 활용
  - 계절근로자 DB 관리 및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 총괄 농번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강화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별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하여 농번기 농업인력 신속하게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농촌인력증개센터, 농촌기술센터, 농촌일손돕기추진단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하여 인력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전북도 또한 3월~10월간 시·군,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협조를 통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전북도가 도/시·군의 농업인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인력수급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군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정부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개선을 해야 함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22년~
-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시·군
- 사업내용 : 도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중심으로 시·군,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와 정부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함

### ■ 주요내용

- 농업인력 수급 TF팀 구성
  - 농축산식품국장을 총괄 상황실장으로 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일자리정책관은 '농업인력 TF' 구성
  - 학계 전문가, 현장전문가, 유관기관 책임자·실무자 등을 참여
- 시·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과의 핫라인(hot-line) 구축

- 
- 도와 시·군과의 정기적인 농업인력 수급현황 보고
  - 도와 시·군과의 정기적인 농업인력 수급 관련 회의 운영
  - 농식품부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 마련

### 3) 전북 총괄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정 운영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촌인력증개센터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2,3개의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순창군은 임순남센터 순창지소만 있음)
- 농촌인력지원센터별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센터의 서비스 질과 구직자·농가의 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함
- 농촌인력지원센터의 목적에 맞게 구직자·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또한, 구직자와 농가가 지역 내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신청이 쉽게 할 수 있는 전북 농촌인력지원센터 플랫폼이 필요함
- 각 지역의 농촌인력지원센터가 구직자와 농가의 DB를 쉽게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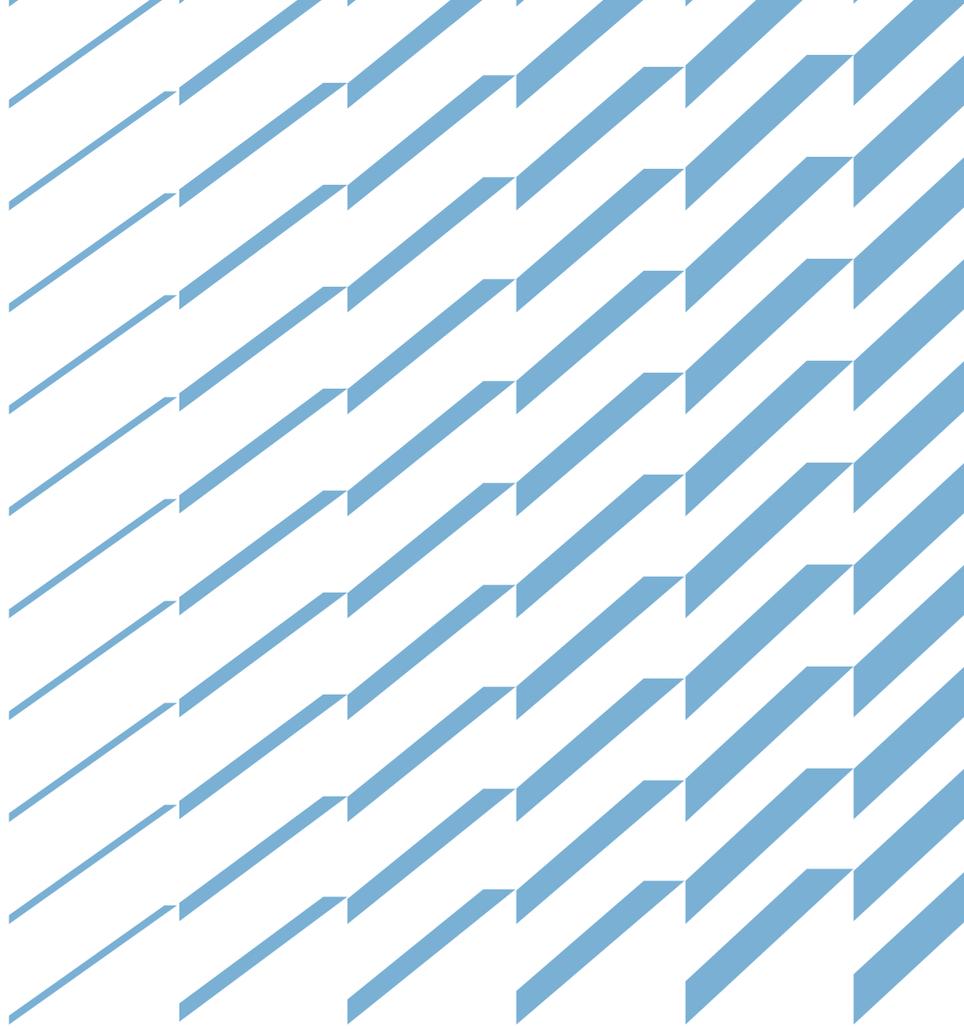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23년~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총괄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리하고, 구직자와 농가에게 지역 내 농촌인력지원센터 정보 제공과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전북 농촌인력지원센터 플랫폼 활성화

####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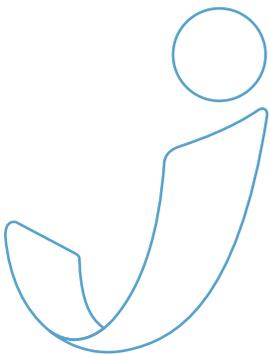
- 총괄 농촌인력증개센터 설치
  - 전라북도 내 농촌인력증개센터 중 총괄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함

- 
-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운영 점검과 컨설팅, 농가·구직자 만족도 조사 등
  - 전북 농촌인력지원센터 플랫폼 활성화
    - 전북도의 플랫폼 구축 및 관리(관리 전담인력 배치)
    - 지역 농촌인력지원센터 정보 제공
    - 구직자와 농가가 지역 내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센터가 신청한 구직자와 농가를 확인할 수 있는 DB의 전산화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제 5 장

## 결론





## 제5장 결론

### ■ 연구개요

- 전북 농촌의 농업 인력난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면서 심화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해결 방안 모색 전 전북 농업 노동력 수급의 규모 및 실태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시기임
- 이는 전북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농업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시도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이 연구는 전북 농업 노동력 부족문제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농업 노동력 수급 관련 정책, 국내외 노동력 공급 경로 사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농업 노동력 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함
- 첫째, 현재 농업 노동력 수급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함. 둘째, 2019년 전북도의 계절성 작물에 대한 농업 고용노동력 투입량을 산출하여 고용 노동력 수요를 살펴보고자 함. 셋째, 공공부문에서 전북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한계를 파악하고자 함. 넷째, 국내외 농업 노동력 수급 사례를 통해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전북 농업 노동력 수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 ■ 전북 시군·작목별 농업 고용 노동력 실태

- 전라북도 시·군별 재배면적이 큰 계절성 작물을 중심으로 영농순기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투입된 월별 농업 고용 노동력을 통해 지역 및 작물에 따른 고용 노동력 공급시장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음
- 2019년과 2020년 전라북도 공공부문 농업인력 공급규모를 비교한 결과, 배, 포도, 사과, 마늘, 양파 계절성 작물의 2020년 농업 고용 노동력 투입량은 2019년보다 적은

---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복숭아, 고구마, 고추, 딸기, 양파, 감자는 2020년 투입량이 2019년보다 적게 나타남

- 배, 마늘, 양파 등 작목의 경우<sup>64</sup>), 2019년과 2020년 농산물 소득자료를 비교한 결과, 고용 노동비는 감소한 반면, 자가 노동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난을 가족노동력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사과와 감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전북 농산물 소득자료를 살펴보면, 고용 노동비와 자가 노동비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농촌 인력난에 의해 농가가 사과 재배량을 축소한 것으로 보여짐
- 그 외, 작목들은 자가 노동비는 감소한 반면, 고용 노동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 공백에 대한 공공부문에서 내국인 인력 수요가 증가하였거나,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요 시장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 ■ 전북 농업 노동력 공급경로의 한계

- 전북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노동력 공급경로를 살펴보았음
  - 고용허가제(E-19)를 제외한 농촌인력증개센터, 지자체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전북 농촌인력증개센터, 전문작업단,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부문에서 농업 노동력 공급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음
  - 농촌인력증개센터의 경우, 전담인력 1명 배치에 따른 과도한 업무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매년 사업기간 갱신에 따른 직업안정성 보장 문제, 열악한 근로여건과 환경 등의 문제가 제기됨
  - 농업 고용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강도가 높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건강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 비숙련 노동자의 교육 확대 필요 등이 대응방안으로 언급되었음
  - 공적 분야의 농업 노동력 지원을 위한 제도의 한계를 계절근로자제,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 계절근로자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귀농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업인력 양성 및 공급의 기회를 엿볼 수 있었음

---

64) 마늘, 양파의 경우, 전라북도 소득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전국 평균 자료를 활용하였음

- 전북 농업 노동력 공급경로 실패와 함께, 국내외 농업인력 공급 사례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원활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의 근로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 지자체 단위의 계절근로자제의 한계와 성실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
  - 구직자와 농가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비숙련 농업노동자의 교육 및 실습 확대 필요
  - 도시 유희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자리제공뿐만 아니라 전북 농촌 자원을 활용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농촌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 열악한 농작업 환경과 강도 높은 농작업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
  - 농촌 인력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력 공급 및 지원체계의 조직화가 필요

## ■ 국내외 농업 노동력 수급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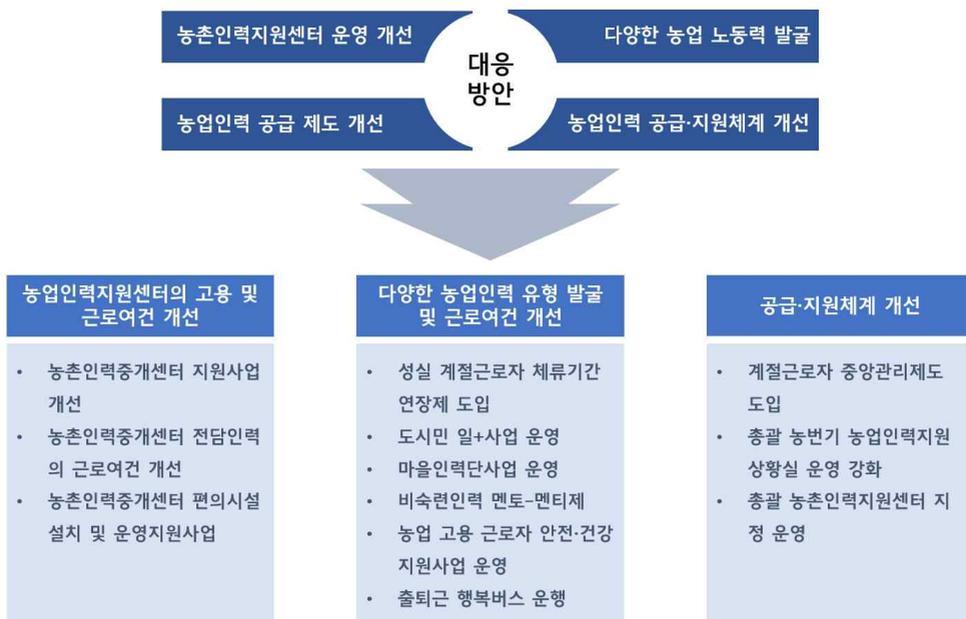
- 국내외 공공부문에서 농업 고용 노동력을 공급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직자와 농가를 매칭하는 인력증개센터의 체계화와 안정화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 간 인력증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통해 농업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인력난을 도시 유희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으나, 면접조사와 간담회에서 언급된 농가의 숙련 노동력의 선호에 따라 비숙련 노동자의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지역 내 인력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거창군을 통해 지역주민의 상호협력과 연대가 농업 노동력 문제를 완화하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됨

## ■ 농업 노동력 수급 대응방안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개선', '다양한 농업 노동력 발굴', '농업인력 공급 제도 개선', '농업인력 공급·지원체계 개선'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추진 전략을 수립함
-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
  - 농촌인력증개센터 지원사업 개선 :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우수한 실적을 가진 농촌인력증개센터에 한해 지원사업 공모 부담 해소를 위한 갱신제에서 신청제로 운영기간 연장
  - 농촌인력증개센터 전담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 전담인력 추가 확보로 업무 분담으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센터 인력의 근로여건 개선과 심신건강 증진
  - 농촌인력증개센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 : 열악한 업무공간을 가진 농촌인력증개센터를 대상으로 전담인력과 농기계작업단을 위한 휴게공간·사위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지원
- 다양한 농촌인력 유형 발굴 및 근로여건 개선
  - 성실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제 도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계절근로자에 한해 취업기간동안 1회 체류기간 연장
  - 도시민 일+ 사업 : 전북 농촌에서 농업일자리를 구하는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중개 및 농작업 훈련·실습, 숙소, 전북 자유여행비 지원
  - 마을인력단사업 : 지역 소농, 고령농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구성된 마을인력단의 반장수당, 식비, 교통비, 보험료 지원
  - 비숙련인력 멘토-멘티제 : 농작업 경험이 적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전문작업단의 숙련인력과 매칭하여 3일 간 훈련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농가와 숙련인력에게 교육비 지원
  - 농업 고용 근로자 안전·건강지원사업 : 농업 고용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현장 안전교육 참여의 무화, 치료비 일부 지원, 특수건강검진 일부 지원(2년 주기)
  - 출퇴근 행복버스 운행 : 농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수송을 위해 교통이 불편한 농작업자 또는 이용을 희망하는 전문작업단을 작업장까지 수송할 수 있는 출퇴근 행복버스 운행

○ 농업인력 공급·지원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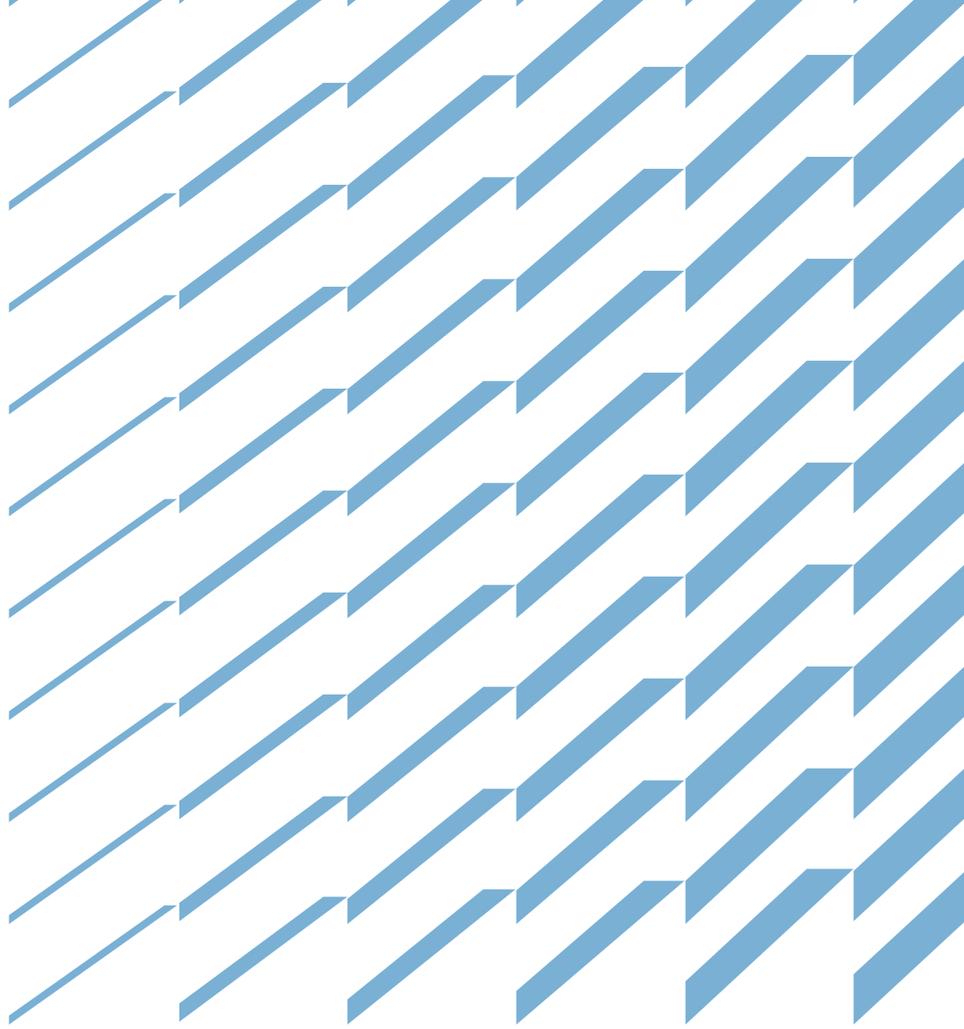
- 계절근로자 중앙관리제도 도입 : 중앙단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법제 마련, 입국 계절근로자를 수용 및 교육이 가능한 공간을 가진 조직을 입국 계절근로자 교육기관으로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DB구축 및 관리 등
- 총괄 농번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강화 : 도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중심으로 시·군,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와 정부부처와의 협조체계 강화
- 총괄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정 운영: 총괄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농촌인력지원증개센터의 운영을 관리하고, 구직자와 농가에게 지역 내 농촌인력증개센터의 정보 제공과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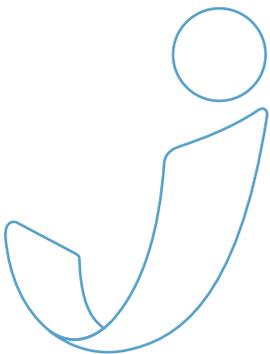
---

## ■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 이 연구는 전북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공급자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였음
- 전북 농업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산출하여 전북의 고용 노동력 공급시장의 규모를 예측해 볼 수 있었음
- 공공부문 공급시장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의 시각을 통해 현재 고용 노동력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북 공공부문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략 도출과 정책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이 연구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근거로 전북 농업 고용 노동력 투입량을 산출하여 파악한 농업 고용 노동력 투입량 변화가 코로나19, 고령화, 기계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무엇보다, 지난 2년 외국인 근로자 입국금지와 내국인 이동 제한에 따른 농촌 인력난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 연구의 변화 결과가 코로나19의 원인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21년, 2022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여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정기적인 농업 고용 노동량 투입량 산출로 농업 노동력 공급시장의 규모 변화와 고용 노동비·자가 노동비 변화 파악을 통해 농촌 인력난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이 필요함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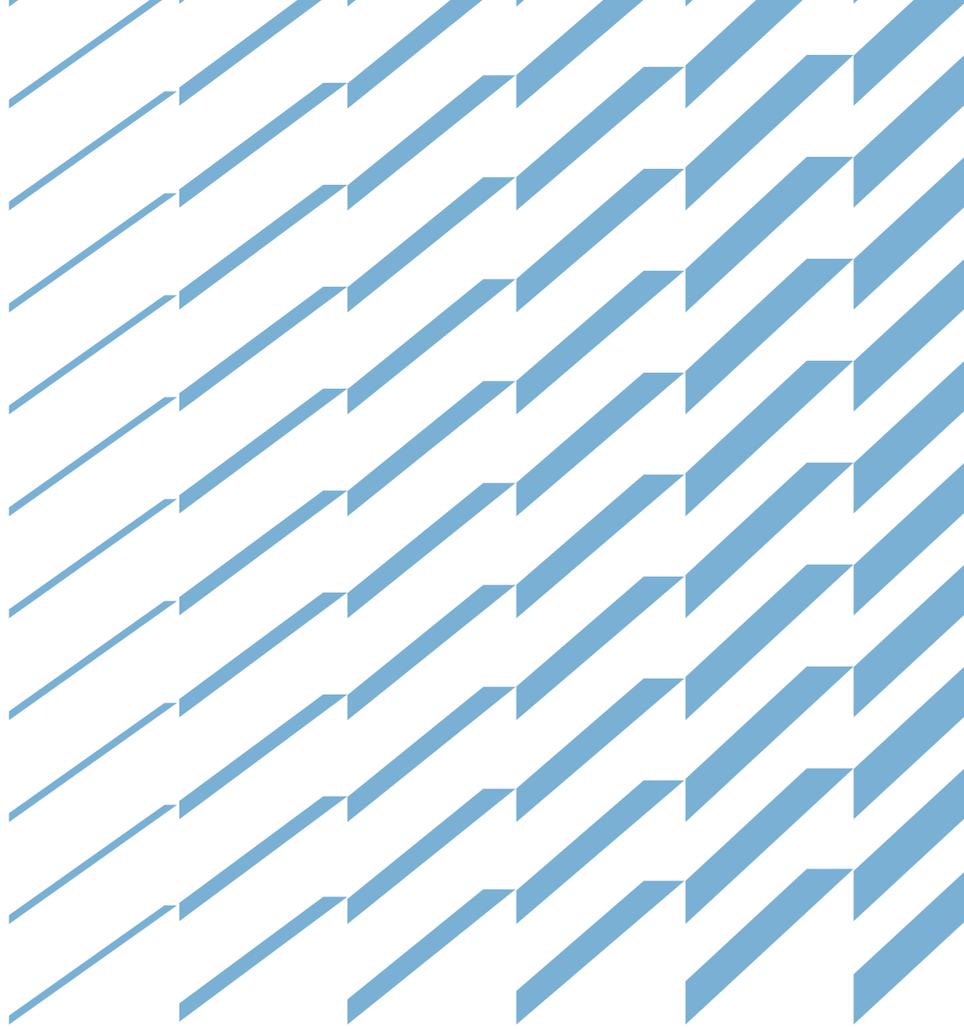


##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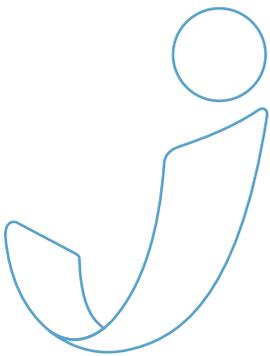
### REFERENCE

- 김미옥. (2020). 충청북도 농업노동력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충북연구원.
- 김병률, 전익수, 윤종열, 민자혜, 박미성, 김말징, 김배성, 김정섭 & 한재환. (2010). 농어촌 고용 실태와 인력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2015). 농업 노동력 실태와 농업 노동시장 정책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22(2), 145-158.
- 김정섭, 엄진영 & 유찬희. (2016). 일자리 없는 농촌, 할 일 많은 농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오내원 & 허주녕. (2014). 농업 고용 노동력 수급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유창희, 엄진영, 장민기 & 김혜민. (2016). 농업 고용 인력 실태 조사 및 수급 안정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안경아 & 박성준. (2017).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현황 및 정책 방향. JRI 정책이슈브리프, 273. 제주연구원.
- 엄진영. (2020).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1-21.
- 엄진영, 김광선 & 임지은. (2016).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진영, 박대식, 조승연, 김윤진, 이창원, 최서리, 이상지 & 신예진. (2020).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진영, 우병준 & 김윤진. (2017).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찬희, 엄진영 & 김윤진. (2018).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기현, 최경화, 박재현, 장동선, 김성훈 & 이성희. (2018). 건전한 생활공동체 실현을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실패러다임 연구. 충청북도.
- 이향미 & 고종태. (2018). 강원도 농업부문 고용인력 실태 및 수요 결정요인 분석. 농촌계획, 24(1), 47-60.
- 이현욱 & 송정아. (2016). 이주노동자의 계절적 수요와 인력공급에 관한 연구: 충북 괴산 배추산

- 
- 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247-261.
- 정용교. (2020).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농촌사회 유입과 적응: 경북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90, 219-248.
- 최서리, 이규용, 임선일, 정기선 & 신예진. (2013).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정책제언: 경기도를 중심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
- 최서리 & 이창원. (2014). 농축산업 외국인력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농촌사회, 14(2), 113-150.



## 부록









3. 다음은 앞 장의 작성해주신 영농순기표를 기준으로 농작업별 합계 노동시간을 기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용으로 대파 품목에 대한 농작업별 합계 노동시간을 예시(농촌진흥청)로 제시해드립니다.)

[ 예시 : 대파 농작업별 노동시간 ]  
(단위: 년/10a)

번호	작업명	합계 노동시간
1	종자예조및소독	0.3
2	묘상준비및설치	5.2
3	묘판준비및설치	-
4	파종	7.2
5	접목	-
6	가식	-
7	묘판관리	8.9
8	숙아내기	-
9	경운정지	6.6
10	퇴비및기비살포	7.1
11	이앙	-
12	정식	31.3
13	지주,네트세우기	-
14	추비살포	4.7
15	병충해방제	10.5
16	제초	15.9
17	비닐덮기	-
18	비닐및흙덮기	9.8
19	흙넣고밟아주기	-
20	복토	-
21	복토및복주기	-
22	유인	-
23	적심적아	-
24	물관리	4.7
25	온도관리	0.7
26	수확	35.6
27	하우스설치및관리	-
28	건조	-
29	탈곡	-
30	선별및포장	18.7
31	운반및저장	4
32	기타	2.7

[ 농업인 작성용 농작업별 노동시간(품목: 복숭아) ]  
(단위 : 시간/평)

번호	작업명	노동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 양파 영농순기표 및 농작업별 노동시간 조사표 ]

1. 다음은 작목별 영농순기표 작성 예시입니다. 품목은 대파로 선정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월별 및 상, 중, 하순별 농작업 이름이 모눈종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영농순기표 예시 : 품목(대파)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파종																											
											숙음/김매기																								
														정식																					
																	웃거름																		
																				복주기															
																																수확			



3. 다음은 앞 장의 작성해주신 영농순기표를 기준으로 농작업별 합계 노동시간을 기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용으로 대파 품목에 대한 농작업별 합계 노동시간을 예시(농촌진흥청)로 제시해드립니다.)

**[ 예시 : 대파 농작업별 노동시간 ]**  
(단위: 년/10a)

번호	작업명	합계 노동시간
1	종자예조및소독	0.3
2	묘상준비및설치	5.2
3	묘판준비및설치	-
4	파종	7.2
5	접목	-
6	가식	-
7	묘판관리	8.9
8	숙아내기	-
9	경운정지	6.6
10	퇴비및기비살포	7.1
11	이앙	-
12	정식	31.3
13	지주,네트세우기	-
14	추비살포	4.7
15	병충해방제	10.5
16	제초	15.9
17	비닐덮기	-
18	비닐및흙덮기	9.8
19	흙넣고뺀아주기	-
20	복토	-
21	복토및복주기	-
22	유인	-
23	적심적아	-
24	물관리	4.7
25	온도관리	0.7
26	수확	35.6
27	하우스설치및관리	-
28	건조	-
29	탈곡	-
30	선별및포장	18.7
31	운반및저장	4
32	기타	2.7

**[ 농업인 작성용 농작업별 노동시간(품목: 양파) ]**  
(단위 : 시간/평)

번호	작업명	노동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 마늘 영농순기표 및 농작업별 노동시간 조사표 ]

1. 다음은 작목별 영농순기표 작성 예시입니다. 품목은 대파로 선정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월별 및 상, 중, 하순별 농작업 이름이 모눈종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영농순기표 예시 : 품목(대파)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파종																														
									숙음/김매기																													
												정식																										
															웃거름																							
																		복주기																				
																																						수확



3. 다음은 앞 장의 작성해주신 영농순기표를 기준으로 농작업별 합계 노동시간을 기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용으로 대파 품목에 대한 농작업별 합계 노동시간을 예시(농촌진흥청)로 제시해드립니다.)

[ 예시 : 대파 농작업별 노동시간 ]  
(단위: 년/10a)

번호	작업명	합계 노동시간
1	종자예조및소독	0.3
2	묘상준비및설치	5.2
3	묘판준비및설치	-
4	파종	7.2
5	접목	-
6	가식	-
7	묘판관리	8.9
8	숙아내기	-
9	경운정지	6.6
10	퇴비및기비살포	7.1
11	이앙	-
12	정식	31.3
13	지주,네트세우기	-
14	추비살포	4.7
15	병충해방제	10.5
16	제초	15.9
17	비닐덮기	-
18	비닐및흙덮기	9.8
19	흙덮고밭아주기	-
20	복토	-
21	복토및복주기	-
22	유인	-
23	적심적아	-
24	물관리	4.7
25	온도관리	0.7
26	수확	35.6
27	하우스설치및관리	-
28	건조	-
29	탈곡	-
30	선별및포장	18.7
31	운반및저장	4
32	기타	2.7

[ 농업인 작성용 농작업별 노동시간(품목: 마늘) ]  
(단위 : 시간/평)

번호	작업명	노동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책연구 2022-10

**전라북도 농업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방안**

---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2년 3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

ISBN 978-89-6612-383-4 935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http://www.jthink.kr)

